

2026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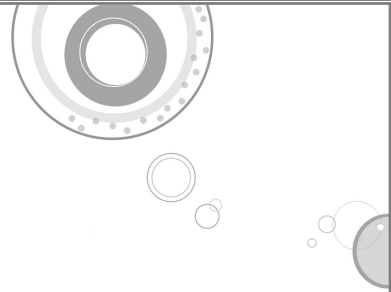
202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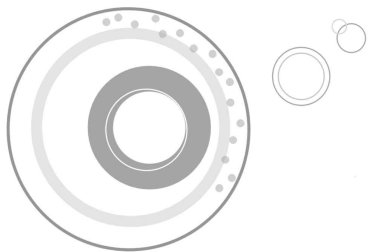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DMISSIONS

목 차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2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3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6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7
2.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조직 구성	8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8
III.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9
1. 출제 전	10
2. 출제 과정	13
3. 출제 후	14
4. 분항 분석 및 평가	15
I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45
1. 출제 및 검토 개선	46
2. 출제 후 점검 강화	47
3.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	47
V. 부록	48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우리 대학 자체 규정	49
2. 대학별고사의 문항 제출 양식 : 『문항카드』	51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2026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숙명여자대학교는 정부의 대학입학정책에 따라 우리 대학의 신입학 전형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도록 대학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의 신입생 선발 관련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의 적절함에 대한 사회적 공인을 확보하고, 신입생 선발 전형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구술 고사	실기· 실험 고사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기타	
수시	학생부종합 (숙명인재(면접형)전형, 소프트웨어인재전형)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		○				X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전형)	인문계, 자연계	X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선발전형)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X						
	논술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	○					○
	실기/실적	예·체능계	○			○			X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인문계, 자연계	X						
	학생부종합 (특성학교교출신자전형)	인문계, 자연계	X						
	학생부종합 (특성학교졸재자전형)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X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		○				X
	재외국민	인문계, 자연계	○	○ (선다형)					○
	재외국민	예·체능계	○	○ (선다형)		○			○ (선다형만 해당)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구술 고사	실기· 실험 고사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기타	
정시	수능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첨단공학부, 자유전공학부	X						
	수능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 체육교육과	○			○			X
	실기/실적	피아노과, 성악과, 작곡과, 관현악과, 회화과	○			○			X
	수능 (사회배려전형)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X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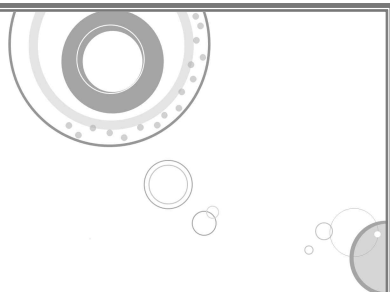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
	결과 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입학도우미' 메뉴 > '통합공지사항' 메뉴)	○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히 작성하였는가?	○

□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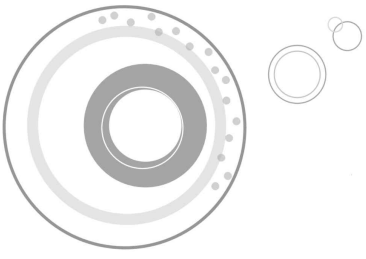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영향 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구술 고사	실기· 실험 고사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기타		
수시	학생부종합 (숙명인재(면접형)전형, 소프트웨어인재전형)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		○				X	해당 없음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전형)	인문계, 자연계	X							해당 없음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선발전형)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X							해당 없음
	논술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	○					○	준수
	실기/실적	예·체능계	○			○			X	해당 없음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인문계, 자연계	X							해당 없음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인문계, 자연계	X							해당 없음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X							해당 없음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		○				X	해당 없음
	재외국민	인문계, 자연계	○	○ (선다형)					○	준수
	재외국민	예·체능계	○	○ (선다형)		○			○ (선다형만 해당)	준수
정시	수능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첨단공학부, 자유전공학부	X							해당 없음
	수능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 체육교육과	○			○			X	해당 없음
	실기/실적	피아노과, 성악과, 작곡과, 관현악과, 회화과	○			○			X	해당 없음
	수능 (사회배려전형)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X							해당 없음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X							해당 없음

□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

시험 유형	입학 전형	모집 계열 (단위)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고사	논술우수자 전형	인문계	없음	인문계열 1회차-1	1-1		○	○						
					1-2		○	○						
				인문계열 1회차-2	2-1		○	○						
					2-2		○	○						
				인문계열 2회차-1	1-1		○							
					1-2		○							
				인문계열 2회차-2	2-1	○		○						
					2-2	○		○						
		자연계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자연계열 (약학부 제외) -1, 2, 3	1-1				○					
					1-2				○					
					2-1				○					
					2-2				○					
					3-1				○					
					3-2				○					
		자연계 (약학부)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자연계열 (약학부) -1, 2, 3	1-1				○					
					1-2				○					
					2-1				○					
					2-2				○					
					3-1				○					
					3-2				○					
선다형 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국어	재외국어	1~40	○								
		인문계	영어	재외영어	1~33									○
		자연계	수학	재외수학	1~20				○					
면접 및 구술 고사	학생부종합 (숙명인재 면접형)전형 소프트웨어 인재전형,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고사는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출제 문항 없이 개별 면접으로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대학은 관련 내용을 규정화 함.
- 2015년 2월 6일자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두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 우리 대학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 제5조 및 제5조의2

■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6.26.)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개발·면접구술고사제도 개발·논술고사 개발·학생부 반영기법 개발·자격증 및 특기 반영기법 개발 등)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전형관리 등)
5. 대학입학제도 통계 및 조사·홍보에 관한 사항(각종 통계분석·국내외 대학 입시제도 자료 조사, 홍보 계획 수립 등)
6. 주요 전형관리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전형위원 배분 등)
7. 대학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2.6)
8.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호번호변경 2015.2.6.)

제5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술제도개발·면접제도개발·통계분석·자료조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6.26.)
-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
- ⑤ 분과위원회의 연구 및 자료 조사 등의 경비를 입시경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조신설 2015.2.6)

- ① 위원회는 제2조 제7호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6.20)
- ②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행학습 영향평가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6.20)
- ③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6.20)
- ④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20)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계획 수립
 2.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3.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4.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
- ⑤ (삭제 2020.06.20)
- ⑥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3월 말일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0)

2.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조직 구성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우리 대학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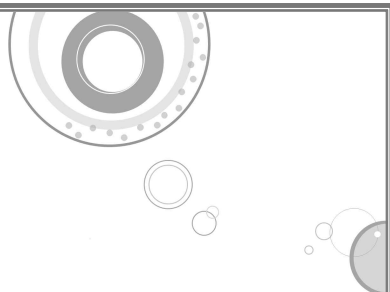
•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는 입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였다.

• 내부위원은 논술 출제 경력 위원을 포함한 5인, 외부위원은 현직 교사 4인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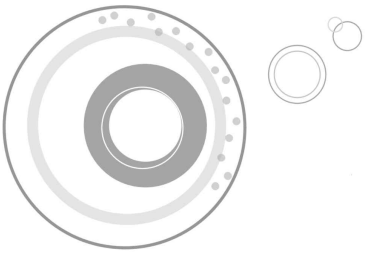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입학처	교수/입학처장	이OO	당연직
위원	영어영문학전공	교수	전OO	내부위원 (본교 교수)
위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OO	
위원	통계학과	교수	노OO	
위원	한국어문학부	교수	김OO	
위원	정신여자고등학교	교사	한OO	외부위원 (현직 교사)
위원	서울고등학교	교사	이OO	
위원	장충고등학교	교사	정OO	
위원	청원여자고등학교	교사	박OO	
간사	입학처	직원	곽OO	-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절차	일정		담당
입학처 자체평가 자료 작성 및 평가	'25. 4. ~ '26. 1.		입학팀
	재외국민 필답고사	'25. 7. 23.	
	논술고사	'25. 11. 15. ~ '25. 11. 16.	
입학처 자체 평가에 대한 결과 심의 및 평가	'26. 1. ~ '26. 2.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1차 회의	'26. 1. 8. ~ '26. 1. 15.	
	2차 회의	'26. 2. 20. ~ '26. 2. 24.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확정 및 처리	'26. 3.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출제위원	12명	12명	-
	검토위원	4명	-	4명 (3명)
재외국민특별전형 (전체)	출제위원	6명	6명	-
	검토위원	3명	-	3명 (3명)

1. 출제 전

☐ 자체 고교 교육과정 분석 자료 활용

외부 위원 6인(장학사 1명, 현직 고교 교사 5명)이 참여하여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에게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고교 교육과정 분석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음.

위원 성명	위원 소속
손○○ 장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박○○ 교사	목동고등학교
조○○ 교사	장충고등학교
이○○ 교사	원목고등학교
김○○ 교사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이○○ 교사	서문여자고등학교

☐ 고교 교육과정 준수 교육 실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에게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 전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자료를 위원별로 별도 배부하여 출제 중에도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제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가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관리함.

교육일자	교육명
25.05.08.~25.06.30.	2026학년도 모의논술 출제위원 고교 교육과정 사전 교육
25.06.20.~25.07.16.	2026학년도 재외국민 필답시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고교 교육과정 사전 교육
25.10.01.~25.10.31.	2026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고교 교육과정 사전 교육

-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별 이해
-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별 성취기준 안내
- 문항카드 작성 시 고려사항 안내
-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 위배사례 안내

[illegible]

□ 모의논술 시행

- 수시전형 전 모의논술 운영 후 결과를 논술고사에 반영
- 논술우수자전형 대비 수험생에게 출제 방향 안내 및 답안 채점, 우수답안 제공을 통한 논술 준비 지원
- 논술고사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입시부담 경감, 사교육 유발 억제
-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통한 논술고사의 방향과 난도 측정

구분	온라인 모의논술									
일시 및 장소	온라인 모의논술 : 2025.07.04.(금)~2025.07.09.(수), 입학처 홈페이지									
대상자	2026학년도 우리 대학 논술우수자전형에 관심 있는 수험생									
신청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모의논술 신청 페이지 가입을 통해 학생 개인 선착순 접수 및 응시 온라인 : 2025.07.04.(금) 10:00~2025.07.09.(수) 17:00, 기간 내 신청 후 응시, 선착순 1,000명									
세부 프로그램	- 2025.07.04.(금) 10:00~2025.07.09.(수) 17:00 : 참가 신청 후 응시 - 2025.07.30.(수) 17:00~2025.08.29.(금) 17:00 : 응시결과 조회, 모의논술 우수답안 및 채점 결과 총평 입학처 홈페이지 공개 - 2025.07.30.(수) 17:00 : 모의논술 특강 입학처 홈페이지 공개 <table><tr><th colspan="2">문항해설 및 특강자</th></tr><tr><td>인문계열 문항</td><td>이○○ 교수</td></tr><tr><td>자연계열 문항</td><td>박○○ 교수</td></tr><tr><td>자연계열 문항</td><td>신○○ 교수</td></tr></table>	문항해설 및 특강자		인문계열 문항	이○○ 교수	자연계열 문항	박○○ 교수	자연계열 문항	신○○ 교수	
문항해설 및 특강자										
인문계열 문항	이○○ 교수									
자연계열 문항	박○○ 교수									
자연계열 문항	신○○ 교수									
채점 결과 제공	- 개인별 채점 결과 제공 : 문항별 평가 등급 및 응시자 전체 평균 등급 제공, 작성 답안에 대한 채점자의 피드백 제공(「내 답안 다운로드」시 하단에 채점자의 피드백이 있음) - 모범답안 공개 : 채점위원이 전체 응시자 중 각 계열별 모범답안 선정 및 공개 - 총평 공개 : 모의논술 전체 응시자의 채점결과에 대해 출제/채점위원이 인문, 자연계열에 대한 각각의 평을 작성하여 수험생들에게 피드백 제공(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 - 특강(문항해설) 동영상 공개 : 모의논술 특강 영상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함 - 출제 문제 및 해설 공개 : 출제된 문제와 문제 해설을 입학처 홈페이지-수시모집-기출문제 게시판에 공지하여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년도 대비 개선 및 변경 사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별 고사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와 전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에게 주지
- 현직 장학사 및 고교 교사가 참여한 고교 교육과정 분석 과정을 통해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우리 대학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함
-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에게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수준 내 출제 지침 전달
-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문항 카드를 작성하게 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검토위원을 통해 사전 검증
- 출제자에게 고교 교육과정 교육 이후 출제팀별로 고교 교육과정 검토 실시
-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이 출제 문항 검토 후 출제위원과 합동회의에서 의견 개진
- 검토위원 대상 검토 보고서 제출 통해 검토 결과 확인
- 온라인 모의논술 시행을 통한 수험생의 논술고사 준비 조력
- 기출문제, 문제해설 입학처 홈페이지 공개, 문제해설 동영상 공개
-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 출제 및 향후 출제 방향성에 대한 논의
-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 확충 유지
- 문항별 검토의견서 분할하여 내용 검토를 구체화함

2. 출제 과정

- ☐ 입시의 공정성을 위하여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입실 출제 진행(보안요원, 공정위원 포함)
- 해당 고사 종료 시까지 외부와의 접촉 단절
- ☐ 논술고사의 경우 모의논술 결과 적극 반영
- 모의논술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출제 방향 및 난도 설정
- ☐ 철저한 분석 및 다수/다단계 검증을 통한 주제/제시문/문항 선정
- 기출문제 분석, 교과서 분석, 관련 도서 분석 등을 통한 주제/제시문/문항 후보군 도출
- 주제/제시문/문항 후보군에 대한 다수/다단계의 토론 과정을 통해 최적의 주제/제시문/문항 선정
- ☐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의 검토 및 피드백
-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의 주제/제시문/문항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염수
- ☐ 가이드를 준수한 문항카드 작성
- 문항카드 작성 가이드를 준수하여 채점 기준 등 세부 사항 결정
- ☐ 검토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한 문항 출제 완료
-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의 문항카드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해 문항카드 최종 확정 및 출제 완료



☐ 출제위원, 검토위원 대상 피드백

- [참고]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 결과보고서 제출 예시

[illegible]

4. 문항 분석 및 평가

가.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 대상	입학 전형	모집 계열 (단위)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위원별 검토 결과
논술 고사	논술우수자 전형	인문계	인문계열 1회차-1	1-1	· 사회과(통합사회) · 도덕과(생활과 윤리)	○	문항카드①	적합
				1-2				
			인문계열 1회차-2	2-1	· 사회과(통합사회) · 도덕과(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문항카드②	적합
				2-2				
			인문계열 2회차-1	1-1	· 사회과(통합사회, 사회·문화, 한국지리)	○	문항카드③	적합
				1-2				
			인문계열 2회차-2	2-1	· 국어과(문학, 독서) · 도덕과(윤리와 사상)	○	문항카드④	적합
				2-2				
		자연계	자연계열 (약학부 제외) -1, 2, 3	1-1	· 수학과(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	문항카드⑤	적합
				1-2				
				2-1				
				2-2				
				3-1				
				3-2				
		자연계 (약학부)	자연계열 (약학부) -1, 2, 3	1-1	· 수학과(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	문항카드⑥	적합
				1-2				
				2-1				
				2-2				
				3-1				
				3-2				
선다형 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재외국어	1~40	· 국어과(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	문항카드⑦	적합
		인문계	재외영어	1~33	· 영어과(영어Ⅰ, 영어Ⅱ,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	문항카드⑧	적합
		자연계	재외수학	1~20	수학과(수학, 수학Ⅰ, 수학Ⅱ)	○	문항카드⑨	적합
* 문항 붙임 번호는 [붙임]으로 제시한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번호 기재, 세부 문항 분석과 부록에 첨부함								

나. 전형별 분석 결과

□ 논술고사 개요 및 분석 결과 요약

- 전형명 : 논술우수자전형
- 모집인원 : 214명 (인문계 142명, 자연계 72명)
- 모집시기 : 수시
- 모집단위 : 인문계 및 자연계(글로벌협력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 테슬(TESL)전공, 첨단공학부 제외)
- 지원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논술시험 90% + 학생부(교과) 10%
- 수능최저학력기준
 - 인문계/자연계(약학부 제외) :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0이내(탐구 선택 시 1과목 반영)
 - 약학부 :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40이내(수학 반드시 포함, 탐구 선택 시 1과목 반영)
- 전형일정(논술시험일)
 - 인문계열, 의류학과 : '25.11.15.(토), 16.(일)
 - 자연계열(의류학과 제외) : '25.11.15.(토)

차수	시험시간	구분
1회차 (11.15.)	10:00~11:40	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 수학과, 통계학과, 화공생명공학부, 인공지능공학부, 지능형전자시스템학부, 신소재물리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기계시스템학부, 식품영양학과, 약학부
	14:30~16:10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홍보광고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사회심리학과, 법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미디어학부, 의류학과
2회차 (11.16.)	10:00~11:40	한국어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중어중문학부, 독일언어·문화학과, 일본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관광학전공,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교육학부, 가족자원경영학과, 아동복지학부, 영어영문학전공

- 유형 : 통합논술형
- 출제 범위 :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범위에서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
- 문항 수
 - 인문계, 의류학과 : 인문계열 2문항(세부분항 있음)
 - 자연계(의류학과 제외) : 자연계열 3문항(세부분항 있음)
- 시험 시간 : 100분
- 답안 분량 및 형식
 - 인문계열 문항 : 전체 답안 분량 1,800자 내외(원고지 형식)
 - 자연계열 문항 : 노트 형식
- 성적 산출 : 평가위원 2인이 각각 등급(최고 900점~최저 675점)으로 평가함

- 논술고사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각각 계열별로 운영하였다.
- 인문계열(의류학과 포함)은 2개 회차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자연계열은 1개 회차 내에서 자연계열 전체 모집단위 대상(의류학과, 약학부 제외)과 약학부 대상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논술고사 출제 문항 분석 내용 요약
 - 논술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사고력 함양을 위한 관련 교과 학습활동의 수준과 목표성취 정도를 고려하여 출제되었다.
 -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깊이 공부하여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평가 및 선발하려는 의도에 부합하며, 본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에 적합한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판단된다.
 - 인문계 논술 문항은 고등학교 국어, 사회, 도덕 교과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으며,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였다. 또한 자연계 논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문항 각각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러한 출제경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논술고사 방식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어휘력과 이해력과 적용력을 측정하고, 나아가 고등정신기능인 비판능력과 종합능력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 재외국민 필답고사 개요 및 분석 결과 요약

- 전형명 : 수시모집 특별전형
- 모집인원 : 재외국민 43명(인문계 34명, 자연계 6명, 예·체능계 3명), 북한이탈주민(정원 외)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모집단위 : 전 계열(일부 학과 제외)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기타 요건은 모집요강 참조)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국어	영어	수학	실기	서류	합계
재외국민 (1단계)*	인문계	50	50	-	-	-	100
	자연계	50	-	50	-	-	100
	예·체능계	40	-	-	60	-	100
북한이탈주민	인문계, 자유전공학부	30	30	-	-	40	100
	자연계	30	-	30	-	40	100
	예·체능계	40	-	-	60	-	100

*2단계 : 지원 자격 심사

-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 전형일정 : '25.07.23.(수)

차수	시험시간(제출서류 기반 면접 제외)	과목
1교시	10:30~11:30	국어
2교시	12:00~13:00	인문계 : 영어, 자연계 : 수학

- 유형 : 선다형
- 출제 범위 :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 문항 수 : 국어 40문항, 영어 33문항, 수학 20문항
- 시험 시간 : 교시당 60분
- 성적 산출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재외국민 필답고사는 아래와 같이 계열별로 과목을 지정하여 2개 교시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 인문계열(국어, 영어) / 자연계열(국어, 수학) / 예·체능계열(국어, 실기*)

*실기는 필답고사에 해당하지 않음

·재외국민 필답고사 출제 문항 분석 내용 요약

구분	분석 내용
재외국민 필답고사 (국어)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문항은 지원자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초 학업 역량과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특히 지원자의 학습 배경과 국어 사용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암기 위주의 지식보다 실제 국어 생활을 바탕으로 한 문법 체계의 이해와 어휘 사용 능력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언어와 매체’, ‘독서’, ‘문학’ 과목의 성취기준에 근거해 출제되었으며,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지선다형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한 사고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전체 문항 수와 60분의 제한 시간의 조합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재외국민 필답고사 (영어)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고사는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에 근거하여 출제되었으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어휘, 문법, 독해 영역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어휘, 문법, 독해 문항이 단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수험생의 영어 이해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의 주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일반적·보편적 범위 내에 있으며, 제시된 출제 범위 제시문과 문항 유형이 다양하여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독해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33문항으로 구성된 본 시험은 3점과 4점으로 문항을 배점하여 평가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으며, 문항의 난이도와 문항 수를 고려할 때 60분의 시험 시간은 수험생의 시간 관리 능력과 집중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시험은 대학 교육과정 이수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영어 이해 능력과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으며,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독해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평가 도구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시험으로 판단된다.
재외국민 필답고사 (수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고사는 전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학 후 학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역량, 사고력, 논리적 추론 능력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제시된 출제 범위인 수학, 수학Ⅰ, 수학Ⅱ를 기반으로 20개의 문항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출제 범위에서 학습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모든 문항은 선택형으로 교과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항들과 유사한 문항들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문항의 난이도는 전형 요소로의 충분한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항의 난이도와 20개의 문항 수를 고려한다면 60분 내 주어진 문항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 문항카드별 분석 결과

- 논술 및 재외국민 필답고사 문항 제출 양식 『문항카드(①~⑨)』은 “V. 부록”에 첨부함.
- ‘문항카드’는 각 문항별 일반정보, 문항 및 자료, 출제 의도, 출제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
- 소위원회 위원들의 문항카드별 검토 의견

문항카드①(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1회차 1번) 검토 의견

▶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인문계열 1회차 1-1, 1-2 문항은 ‘통합사회’의 중요 학습주제인 자연환경과 인간, 지속가능한 삶을 중심으로 제시문이 구성되었다. 이 학습주제는 사회교과의 중요학습 내용일 뿐 아니라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깊이 있게 성찰하고 탐구하기를 요구하는 주제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심층적으로 고민하여 보았을 주제이다. 제시문 <나>는 학생들이 ‘통합사회’에서 학습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고, 제시문 <다>는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환경 문제의 내용 요소들을 ‘인류세’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현상을 분석하도록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후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비교하는 도표는 ‘통합사회’ 과목에서 학습한 양적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량을 요구한다.

이처럼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은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성 높은 중요 학습내용인 생태환경에 대해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된 문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은 두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했고, 900자 가량의 분량의 답안을 50분 안에 작성하도록 출제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50분 한 교시 수업을 기준으로 통상 A4용지 1매 분량(최대 1600자)의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는 관행에 비추어보면 논리적 연관성을 가진 두 문항을 총 900자 가량의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은 고등학생들의 발달수준과 학교의 글쓰기 과제 작성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구성으로 보인다.

▶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3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1-1 문항의 경우, 교육목표 분류에 따르면 ‘적용’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보인다. ‘통합사회’ 과목은 다양한 학문체계를 넘나들며 서로 다른 학문 분과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의도하는데 문항에서 활용한 제시문 <가>가 일종의 입론이라면 제시문 <나>는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이라는 경제학적 관점, 사회구조적 관점을 담는 제시문으로 창의적인 전이를 촉발하는 매개가 된다. 이와 같은 문항과 제시문의 구성은 창의적 적용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기에 매우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수험생은 폐기 행위 자체가 자본주의의 이념적 관련물이자 물질적 풍요의 상징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폐기물의 처리 또한 공공 시스템에 전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비가시화되는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과,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이유는 자본주의의 소비 전략이 개인의 상품 구매 욕망을 자극할 때 증가하는 상품 구매에 비례해서 폐기물 또한 무한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답안구성이 300±30자이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6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1-2 문항의 경우, 근거에 기반한 비판을 학생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제시문 <다>의 분석과 실증근거에 기반한 계량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의도한 이 문항과 제시문들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충실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은 우선 <다>에서 나타난 사회-생태계의 논지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내용에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본주의의 근본적 프로세스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생태계의 논지는 생태계 파괴 및 그것의 극복 문제가 인간의 사회경제 문제와 분리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물론 순환 경제의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며, 이러한 실천은 거버넌스와 같은 거시적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의식과 실천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리될 수 있다. 또한, 수험생은 [그림 1]의 '그래프 A'에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근본적으로 배출자 개인에게 있으며, 나아가 순환 경제를 위한 이러한 정책이 개인의 노력과 상호 연결될 수 있음을, '그래프 B'에서 1996년 이후 배출량의 일정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자원 순환 실천이 정책에 대한 개인적 순응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의 제시문들은 가독성이 적절하고 답안 구성을 위한 필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수험생의 사고력 및 비판적 분석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이 문항은 기후 급변과 생태계 파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간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역량을 확인하려는 출제 의도를 담고 있다. 이 문항은 수험생에게 친숙한 현안인 기후 변화와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적합한 제도와 정책 도입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처방과 규범이나 문화를 통한 개개인 의식 및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미시적 차원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판적 분석 및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평가에 적합해 보인다.

또한 출제 의도에 출제진이 어떤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여 평가문항을 구성하였는지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공개된 모범답안과 평가 기준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예시 답안 역시 평가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고, 출제진이 문항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문항의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한 평가 설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본다.

▶ 종합의견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은 기후와 생태계 위기라는 수험생에게 친숙한 개념과 사회 현상을 소재로 하고 있다. 해당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관련 성취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교과와 성취기준을 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 문항이다. 또한 개념 적용에 의한 사회 현상 분석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수험생의 분석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문제로 평가한다. 이 문항을 통해 지원자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의 수학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하여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항카드②(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1회차 2번) 검토 의견

▶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행복이라는 주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학습하게 되는 1학년 ‘통합사회’ 과목 학습 내용이다. 숙명여대 인문계열 1회차 2-1, 2-2 문항은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후 처음 고민해보았던 행복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3년의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다양한 내용을 조화롭게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선택과목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 학습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평가는 이 문항세트의 주된 쟁점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학습 요소이다. 1학년 ‘통합사회’ 과목에서부터 시작된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학습요소들을 학습하면서 어떻게 심화시켜 나갔는지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이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인문계열 1회차 2번 문항은 두 개의 하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900자 가량의 분량의 답안을 50분 안에 작성하도록 출제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50분 한 교시 수업을 기준으로 통상 A4용지 1매 분량(최대 1600자)의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는 관행에 비추어보면 논리적 연관성을 가진 두 문항을 총 900자 가량의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은 고등학생들의 발달수준과 학교의 글쓰기 과제 작성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험생이 답안을 작성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3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2-1 문항의 경우, 교육목표 분류에 따르면 ‘분석’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보인다. 분석은 여러 사회과 과목에서 고차사고력을 학습하는데 기본이 되는 목표이며 특히 도덕과 과목들에서 다양한 사상가들의 견해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된다.

제시문 〈나〉를 입론으로 하여 〈나〉의 맥락에서 제시문 〈가〉의 왕세자와 시인의 관점을 비교분석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구도는 대부분의 인문·사회계열 진로 희망 학생들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 과목의 전형적인 학습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생활과 윤리’ 과목을 충실하게 학습하였다면 학생들은 이 문항을 어려움 없이 해결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험생은 제시문 〈나〉에서 행복을 바라보는

두 관점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서 왕세자와 시인의 관점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 이때, 관점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 근거가 적절한 측정 방식의 유무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답안 구성이 300±30자이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6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2-2 문항은 다양한 관점에 기반한 평가를 학생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수업에서 수행되는 토론 학습에 충실하게 참여한 학생은 이 논제의 구조가 매우 익숙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의 섬 프로젝트가 가지는 성과와 한계를 조화롭게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성과 또는 한계 측면에 대해 독선적인 선입견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수험생은 행복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고 측정하려는 시도가 현대 첨단 기술과 만날 때 어떤 이점과 위험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상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험생은 행복의 객관적 측정과 이를 활용한 삶의 객관적 여건 개선이 행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오랜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하나 첨단 기술의 악용이 감시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 문항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현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제시문 <가>~<다>는 모두 고등학생들이 균형 잡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원전을 재구성한 지문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제시문의 논리적 연계가 잘 드러나 있고, 답안 구성을 위한 핵심 개념이 잘 기술되어 있어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수험생의 사고력 및 비판적 분석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이 문항은 수험생이 행복감과 같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영역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변화시켜 파악하려는 노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시에 그 노력이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어떤 파생적 위험 낳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출제되었다. 이 문항은 수험생에게 친숙한 개념인 행복, 주관적 감정, 정량 지표 등을 활용하여 행복의 객관적 측정 시도가 개인의 내밀한 심적 상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와 그것을 토대로 한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 있음을 파악해 내는 데에 있어서 논리적 이해와 비판적 분석 및 사고 능력 평가에 적합해 보인다.

공개된 평가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예시 답안 역시 문항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숙명여자대학교 논술 문제를 활용하여 논술 학습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이 심화 탐구 활동의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한 점이 인상 깊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논술을 지도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종합의견

인문계열 1회차 2번 문항은 주관적인 행복감을 정량화하고 측정하려는 시도의 함의를 이해하고, 아울러 그 시도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어떤 위험을 수반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관련 성취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정상 의도하는 학습 발달 과정을 충실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

문항이다. 또한 수험생에게 높은 관심과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친숙한 개념과 첨단 기술 발달의 사회적 영향을 소재로 활용하여 수험생의 분석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서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원자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의 수학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기에 적합한 문항이다.

문항카드③(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2회차 1번) 검토 의견

▶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인문계열 2회차 1-1, 1-2 문항은 도시 계획 및 도시 재개발이라는 사회적 쟁점을 주제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확대와 공동체 해체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해당 문항은 인문·사회계열 진로를 모색하는 고등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어야 할 도시화, 계층 구조, 젠트리피케이션, 공공성 및 인간적 가치 등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통합사회’와 ‘사회·문화’, ‘한국지리’ 과목 등 각기 다른 교과 내용을 통합하여 공통점과 비판적 쟁점을 도출하도록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우수한 평가 도구로 판단한다.

문항에 활용된 제시문은 모두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 있으며, 해당 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고등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제시문 <가>는 1960년대 이촌향도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빚어진 계층에 따른 빈부 격차의 문제를 다룬 문헌 지문과 함께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 추이를 설명하는 [그림 1]과 1985년도 연령대/학력별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을 보여주는 [표 1]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이는 ‘통합사회’ 과목의 성취기준 “[10통사03-01]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제시문 <나>는 고층 건물 건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부자와 빈자 사이의 계층을 분리시키고 고착화한다는 점을 비판하는 글로, 이는 ‘사회·문화’ 과목의 성취 기준 “[12사문04-02]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다.”와 부합한다. 제시문 <다>는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만을 우선했던 뉴욕의 도시 계획과 재개발 방식을 비판하며 인간적 가치를 중심에 둔 도시 개발 방식을 제안하는 글로, ‘한국지리’ 과목의 성취 기준 “[12한지04-03]주요 대도시를 사례로 도시 계획과 재개발 과정이 도시 경관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한 단순한 자료 읽기나 요약에 그치지 않고, 지니 계수와 소득 분포 자료를 해석하여 문학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연결하도록 한 문항은, 학생들이 사회 현상을 수치와 지표를 통해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텍스트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역량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인문계열 2회차 1번 문항은 〈가〉, 〈나〉, 〈다〉의 세 제시문을 읽고 푸는 두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50분 내에 300자 내외, 600자 내외의 답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주어진 제시문의 분량과 내용, 그리고 요구되는 사고의 수준을 고려할 때, 제시된 시간은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 핵심 내용과 관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답안을 작성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제시문 〈가〉는 소설 텍스트를, 제시문 〈나〉와 〈다〉는 글쓰이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핵심 대목을 발췌해 제시하였다. 세 제시문 모두 가독성이 좋아 내용 파악에 어려움 없이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다. 300자 내외로 작성하는 1-1 문항은 제시문 〈가〉의 등장인물인 장병만 씨의 꿈을 [그림 1]과 [표 1]을 활용해 분석하도록 구성하여, 등장인물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도표를 근거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600자 내외로 작성하는 1-2 문항은 제시문 〈다〉에서 주장하는 인간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도시 개발의 핵심을 요약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시문 〈가〉와 〈나〉에 제시된 도시 재개발의 문제점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제시문이 핵심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문항의 질문 또한 제시문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답안을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로 구성되었으므로 정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주어진 시간 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평가한다.

▶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제시문 〈가〉는 등장인물의 사례를 통해 1960년대의 이촌향도와 도시화 과정을 배경으로 저학력, 저소득 층의 계층 상승 욕망과 그것이 좌절되는 현실을 등장인물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이와 함께 [그림 1]과 [표 1]을 통해 196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소득불평등 지수의 변화와 1985년도 연령대/학력별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의 격차를 제시하여, 1965년 이후 지니계수가 악화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1985년에는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1-1 문항은 제시문 〈가〉의 장병만 씨의 계층 상승에 대한 꿈의 좌절을 [그림 1]의 지니계수 변화가 보여주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표 1]의 학력별 월평균소득 격차를 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이다. 또한 통계 수치를 문학적 인물의 삶과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료를 현실 문제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제시문과 자료의 구성은 매우 적절하며, 자료 해석과 표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으로서 타당하게 설계되었다. 기초적인 수준의 도식자료 이해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추었다면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서술 분량 또한 300자 내외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시문 〈가〉의 장병만 씨의 상황과 [그림 1], [표 1]의 소득불평등의 심화,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라는 핵심 내용만 연결하여 서술하면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제시문 〈나〉는 고층 건물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으로서, ‘야만을 몰아내는 문명화’라는 프런티어 담론을 통해 부자들의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 논리에 입각해 이루어진 모제스식의 뉴욕 도시 재개발 방식을 비판하며, 공원의 예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활동이 공존하는 인간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재개발의 방향을 제안한다.

1-2 문항은 제시문 <다>의 관점을 기준으로, 제시문 <가>의 판자촌이 아파트 단지로 변하는 과정에서 도시 빈민이 퇴거로 내몰리는 현실과 제시문 <나>의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시 재개발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히 제시문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인 제이콥스가 주장한 인간적 가치와 지역 공동체의 관점에서 도시 재개발을 평가하도록 한 점은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개발’이라는 현상이 개인의 삶(제시문 <가>)과, 도시 공간의 계층 분리(제시문 <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한 문항 설계는 고등 사고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타당하다. 도시 재개발을 발전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점검하고, 인간 공동체의 삶을 중심에 두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이다. 서술 분량이 600자 내외이므로 <다>의 관점을 간명하게 요약한 뒤 이를 토대로 <가>와 <나>에 제시된 도시 재개발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비판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이 문항은 도시화와 재개발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단순히 ‘발전’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아가, 그 이면에 놓인 계층 불평등과 공동체 해체의 문제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도시를 개발해 왔고, 아파트와 고층 건물로 상징되는 주거 환경의 변화는 더 나은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학생들 역시 일상에서 이러한 공간의 위계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 문항은 도시 재개발이 누구의 삶을 개선하고, 동시에 누구를 배제하는가를 제시문들을 통해 되문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또한 제시문과 문항들은 소설 속 장병만 씨의 꿈을 단순한 개인 서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 지표와 연결해 ‘왜 그 꿈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가’를 설명하도록 설계되어 자료 해석 능력과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함께 측정하고자 한 출제 의도가 엿보인다. 아울러 인간적 가치 중심의 도시 재개발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도시 빈민 퇴거 문제와 불평등 심화 문제를 평가하도록 구성하여, 학생들이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서로 다른 자료를 종합해 비판적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즉, 해당 문항은 텍스트 이해에 그치지 않고, 도표의 해석과 개념 적용, 그리고 가치 판단까지 요구하도록 설계되어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서술 능력을 함께 측정하고 있다.

1-1 문항은 제시문 <가>의 인물의 삶과 통계 자료를 연계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욕망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시된 모범답안 역시 장병만 씨의 저학력, 저소득이라는 사회적 조건과 도시 빈민으로서의 삶을 서술하고, 이를 [그림 1]의 소득 지니계수 변화와 [표 1]의 연령·학력별 임금 격차 자료와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특정 연령대와 학력 집단의 소득 격차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장병만 씨의 꿈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어, 문항의 평가 의도가 적절히 구현되었다.

1-2 문항은 제시문 <다>의 논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가>와 <나>에 나타난 도시 재개발 현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도록 설계되었다. 모범답안은 제인 제이콥스의 관점을 명확히 제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의 도시 빈민 소외와 <나>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일관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프런티어 담론과 고층 건물을 ‘불도저식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설명한 부분은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서술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결론부에서 도시의 진정한 발전을 인간적 가치와 공동체의 생명력이라는 기준으로 정리함으로써, 제시문 간의 관계를 종합하고 논리적으로 완결성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타당성과 완성도가 높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인문계열 2회차 1-1 문항과 1-2 문항은 출제 의도가 분명하고, 제시된 모범답안 역시 자료 해석 역량, 논리적 서술 능력을 균형 있게 나타내고 있어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이는 본 문항이 통합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임을 뒷받침한다. 답안의 채점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채점 과정에서도 채점위원 간의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각 답안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들이 간결하게 나타나 있다. 채점 기준과 등급을 9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기에 수험생은 자신의 답안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답안 역시 문항의 출제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여 서술되었고, 제시문에 나타난 표현을 적절히 활용해 핵심 개념과 논지를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 종합의견

인문계열 2회차 1-1, 1-2 문항은 산업화, 도시화 이후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도시 재개발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게 출제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에서 아파트 단지, 고층 건물, 정비된 도시 경관을 더 나은 삶의 상징으로 접해 온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문항은 개발을 둘러싼 익숙한 가치 판단을 한 번 더 성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가>, <나>, <다>와 자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루어지는 내용과 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접하는 학생이 비교적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화, 재개발, 사회 계층,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통합사회’와 ‘사회·문화’, ‘한국지리’와 관련된 지문을 선정하여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질문을 종합적으로 사유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다>를 관점의 중심축으로 삼아, <가>와 <나>의 도시 재개발 문제를 평가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소설을 통해 불평등이 개인의 삶에 각인되는 체험적 층위를 보여준 뒤, 비판적 담론을 통해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작동 방식과 그 문제점을 드러내며, 나아가 대안적 관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문 구성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문항의 변별력 또한 확보되어 있다. 1-1 문항에서는 [그림 1]·[표 1]이 제시하는 핵심 경향을 정확히 읽어내고, 이를 장병만 씨의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와 연결하여 사회 구조 속에서 그 꿈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충분히 구분될 수 있다. 1-2 문항 역시 <다>의 ‘인간적 가치’ 중심 관점을 충실히 요약한 뒤,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가>의 퇴거 현실과 <나>의 공동체 붕괴 및 불평등 심화 문제를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답안과, 제시문 내용을

단순 나열하는 답안이 뚜렷이 변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문항은 수험생들에게 친숙한 개념과 사회 현상을 소재로 하여 자료 해석 능력과 관점 적용 능력, 그리고 비판적 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항카드④(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2회차 2번) 검토 의견

▶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인문계열 2회차 2-1, 2-2 문항은 인간의 욕망과 운명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 간의 의미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문항은 인간이 어떤 삶을 지향하며, 어떠한 태도로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학의 근본적 질문을 다루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가치관을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인간 존재와 삶의 방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문항에 활용된 제시문은 모두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 있으며,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제시된 우언의 의미를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제시문 〈가〉는 우언의 개념을 제시한 뒤 부편이라는 벌레의 습성을 보여주는 우언을 통해 인간의 소유욕과 출세욕을 풍자하고 있다. 이는 ‘문학’ 과목의 성취 기준 “[12문학01-01]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제시문 〈나〉는 세무서 직원이었다가 열심히 공부하여 세무서장이 된 ‘조’라는 인물의 삶의 태도를 제시하여, 인물의 가치관과 선택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성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학’ 과목의 성취기준 “[12문학04-01]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연결된다. 제시문 〈다〉는 그림자와 관련한 장주의 우언을 바탕으로, 운명에 순응하며 평안을 추구하는 ‘선생’의 삶의 태도를 제시한다. 이는 도가 사상, 특히 장자 사상에 나타난 세계관과 삶의 태도를 이해하도록 하는 ‘윤리와 사상’ 과목의 성취기준 “[12윤사02-06] 노자와 장자 사상을 탐구하여 도가적 세계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도교의 성립 및 한국 고유사상과의 융합을 조사하여 우리 전통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와 부합한다.

아울러 제시문 〈가〉, 〈나〉, 〈다〉 모두 인간의 욕망과 삶의 태도, 운명에 대한 관점 등 인문학적 성찰을 핵심 제재로 삼고 있으며, 인간과 삶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독서’ 과목의 성취기준 “[12독서03-01]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관련이 깊다.

특히 제시문 〈가〉를 통해 인간의 소유욕과 출세욕이라는 욕망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나〉의 인물 ‘조’의 삶과 연결하도록 한 문항은 문학 작품의 상징적 의미를 인물 해석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문학’과 ‘독서’ 영역의 성취기준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에 삽입된 우언을 비교하여 운명에 대한 상이한 관점(개척적 운명관과 순응적 운명관)을 확인하고, 이를 각각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와 연결지어 서술하도록 한 구성은 비판적 이해 능력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성찰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연계성이 높다.

제시문 <다>에 나타난 ‘장주의 우언’과 ‘식영(息影)’의 개념을 통해 무위자연의 철학을 이해하도록 한 점은 ‘윤리와 사상’ 교과와 도가적 세계관 단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문학 텍스트와 연결짓는 융합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내용 요약의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성찰하도록 설계된 문항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인문계열 2회차 2번 문항은 제시문 <가>, <나>, <다>의 세 제시문을 읽고 푸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50분 내에 300자 내외, 600자 내외의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제시문의 길이와 내용,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고려할 때, 평가 시간은 타당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통합적 사고력과 비판적 성찰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분량과 구조를 갖춘 문항이다.

제시문 <가>는 우언의 개념을 제시한 뒤 실제 우언 작품을 제시하였고, 제시문 <나>와 <다>는 인물의 삶의 태도와 운명관을 유추해볼 수 있는 우언이 삽입된 핵심 대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세 제시문 모두 분량이 적절하고, 제시된 우언의 의미를 바탕으로 인물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내용 파악에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

300자 내외로 작성하는 2-1 문항은 제시문 <가>의 우언에 나타난 부판이라는 벌레의 행동 습성(소유의 축적, 높은 곳을 지향하는 성향)이 인간의 소유 욕망과 출세 욕망을 비유한다는 점을 파악한 뒤, 이를 제시문 <나>의 인물 ‘조’의 삶의 태도와 연결하여 유사성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즉 비유적 표현의 함의를 정확히 해석하고, 서로 다른 제시문에서 공통되는 욕망을 근거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600자 내외로 작성하는 2-2 문항은 제시문 <나>와 <다>에 삽입된 우언이 제시하는 상반된 운명관을 정리하고, 그것이 각각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준거로 작동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두 인물이 서로의 관점에서 상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이 우언의 핵심 의미를 인물의 태도와 연결해 이해하는 능력뿐 아니라, 대립하는 관점의 논리를 구성해 평가를 도출하는 능력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이 핵심 개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문항의 질문 또한 제시문을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답안을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통합적 사고력과 비판적 성찰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분량과 구조를 갖춘 문항이다.

▶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제시문 <가>는 우언의 개념을 제시한 뒤 부판이라는 벌레에 대한 우언을 수록하여, 현실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텍스트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작품 속 부판은 지나가며 보이는 모든 것을 등에 올리는 습성과 높은 곳에 오르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보이는데, 이는 각각 인간의 끝없는 소유 욕망과 출세 욕망을 상징한다. 2-1 문항은 이러한 부판의 상징적 행위가 제시문 <나>에 나타난 ‘조’의 삶의 태도와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를 설명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문항 설계는 단순한 내용 확인이 아니라 개념을 추출하여 다른 텍스트 요소에 적용하는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우언의 핵심 의미인 소유욕과 출세욕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조의 삶의 태도 즉, 성취 이후에도 지속되는 출세에 대한 욕망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이를 즐기며 부와 권력을 소유하려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부판의 속성과 대응되는 부분을 찾기에 충분한 연결 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적인 문학적 해석 능력과 논리적 연결 능력을 갖추었다면 답안을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판단되며, 서술 분량이 300자 내외이므로 〈부판전〉의 두 습성이 상징하는 바와 ‘조’의 삶의 태도 사이의 유사성만 간명하게 연결해도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인간의 욕망 구조라는 보편적 주제를 중심으로 인물의 삶을 분석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학 교육의 목표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제시문 〈나〉와 〈다〉에는 우언이 하나씩 삽입되어 있으며, 두 우언은 운명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제시한다. 제시문 〈나〉에 삽입된 손금을 그려가면서 성공한 소년의 우언은 ‘운명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관점을 함축하며, 이는 노력과 경쟁을 통해 상승을 이루어 온 ‘조’의 삶의 태도를 뒷받침한다. 반면 제시문 〈다〉에 삽입된 장자의 그림자를 피해 도망갔으나 피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늘 속에 들고서야 그림자를 피할 수 있었던 어떤 인물의 우언은 ‘운명은 피할 수 없으며, 순응할 때 비로소 평안을 얻는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준거로 삼아 ‘선생’의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2-2 문항은 두 우언이 제시하는 운명관을 요약하고, 그것이 각각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두 인물이 서로의 관점에서 상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도록 구성되었다. 운명관의 대립을 단순히 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관점이 상대의 삶을 어떤 논리로 비판하거나 해석하는지까지 제시해야 하므로 관점 적용과 평가의 논리 구성 능력을 함께 요구하는 문항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운명’을 적극적 개척과 순응적 수용이라는 상반된 관점에서 서술하도록 한 점은 인간 존재와 삶의 방향성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 서술 분량이 600자 내외이므로 두 우언의 핵심 의미를 간명하게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조와 선생의 태도를 교차 평가하는 논리를 구성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이 문항은 우언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삶의 태도를 단순한 개인 성향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 이면에 놓인 가치관과 운명관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가며 성취와 상승을 삶의 목표로 삼고 이러한 태도를 당위적인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 문항은 이러한 통념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그와 다른 삶의 태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시문들을 통해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하다.

2-1 문항은 제시문 〈가〉에 나타난 부판의 지해를 요약하고 이를 제시문 〈나〉의 인물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우언의 상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 인물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조의 삶을 단순한 성공담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아가, 성취 이후에도 지속되는 소유와 상승의 욕망이 어떻게 인물의 태도를 규정하는지를 파악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구성은 비유적 표현의 해석 능력과 함께 텍스트 간 공통 요소를 근거로 비교, 분석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한 의도가 드러난다. 제시된 모범답안 역시 부판의 소유욕과 출세욕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뒤, 세무서장인 ‘조’가 보이는 성공 지향적 태도와 바쁜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 등을 근거로 들어 부판이 지닌 속성과의 대응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2 문항은 제시문 〈나〉와 〈다〉에 삽입된 우언을 중심으로 운명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도출하고, 이를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와 연관 지어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관점 비교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문항은 이 운명관이 각각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준거로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한 뒤, 서로의 관점에서 상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제시된 모범답안은 ‘적극적 운명 개척’과 ‘운명예의 순응’이라는 두 관점을 명확히 대비하고, 이를 각각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에 대응시킨 뒤, 조의 입장에서 선생의 소극성을 비판하고, 선생의 입장에서 조의 집착과 불안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제시문에 근거한 이해와 논리적 서술을 균형 있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높다.

결과적으로 이 문항은 텍스트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우언의 함축적 의미 해석, 인물의 가치관 파악, 관점 비교와 평가라는 단계적 사고를 요구하도록 설계되어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서술 능력을 함께 측정한다. 또한 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이 간결하게 드러나며, 채점 기준과 등급을 9등급으로 세분화해 제시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답안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범답안 역시 문항의 출제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제시문에 나타난 표현을 적절히 활용해 핵심 개념과 논지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 종합의견

인문계열 2회차 2-1, 2-2 문항은 인간의 욕망 구조와 운명관이라는 보편적 인문학적 쟁점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 간의 의미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과 비판적 성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출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에서 성취와 상승, 노력과 경쟁을 당위적인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기 쉬운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문항은 ‘끝없는 소유와 출세 욕망’과 ‘운명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삶의 태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성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가〉, 〈나〉, 〈다〉 모두 고등학교 국어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루어지는 내용과 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서에 직접 인용된 작품은 아니지만, 처음 접하는 학생이 비교적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욕망, 성공, 운명, 삶의 태도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또한 〈가〉에서 우언의 비유적 장치를 통해 소유와 출세 욕망을 제시하여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나〉와 〈다〉에서 서로 다른 운명관을 제시하여 삶의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문 구성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문항의 변별력 또한 확보되어 있다. 2-1 문항에서는 〈가〉의 부판의 행동 습성이 상징하는 인간의 소유욕과 출세욕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나〉의 ‘조’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연결해 유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충분히 구분될 수 있다. 2-2 문항 역시 〈나〉와 〈다〉에 삽입된 우언이 제시하는 상반된 운명관을 충실히 요약한 뒤, 이를 기준으로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를 교차적으로 평가하여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답안과, 우언이나 인물의 특징을 단순 나열하는 답안이 뚜렷이 변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문항은 함축적 의미 파악 능력과 관점 적용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상이한 태도를 분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사고 역량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특히 상징의 의미를 바탕으로 인물을 해석하고, 상반된 운명관을 각 인물의 시각에서 재구성하도록 한 점은 비판적 사고력과 가치 판단 능력, 타자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관련 성취기준을 근거로 볼 때 교육과정 연계성이 높고 타당도가 확보된 문항이라 판단된다.

문항카드⑥(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약학부 제외) 1~3번) 검토 의견

문항의 모든 제시문과 문제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제시되고 출제되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의 경우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총 3문항에 문항 별로 2문제씩 구성되어 있고, 제시문이 문제 해결 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문항 2의 경우 순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어진 시간은 100분으로 문제의 난이도, 평가도구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시문은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적용, 활용되는 내용이 제시되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에 충분한 방향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시하므로 수험생의 익숙한 접근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계열(약학부 제외) 문항 1〉

문항 1은 제시문의 ‘사잇값 정리’, ‘평균값 정리’, ‘귀류(모순)법’을 이용하여 연속함수인 이차함수와 무리함수의 특성을 이용하여 교점, 실근을 가짐을 보이길 원하고, 주어진 조건을 부정하여 모순된 결과를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문항이다.

1-1 문항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학생이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두 함수가 만나는 지점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지, 연속함수로 주어진 방정식의 해의 존재성 여부를 사잇값 정리를 적용하여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다루는 문제이다. 일부는 사잇값 정리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두 곡선의 위치 관계로 설명하는 학생도 있어 부분 점수 부여 및 평가 변별도 가능한 문제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이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1-2 문항은 귀류법, 즉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서술하고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원명제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증명해야 할 원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존재하게 되는 $f(c) = 2c$ 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 평균값 정리를 적용함으로써 원명제의 가정에 모순되게 됨을 보여주게 되는 문제이다. 증명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고교에서 무리수 여부를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귀류법을 이해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고 전 문제에서 평균값의 정리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시문을 통해 해결 방향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귀류법의 개념과 평균값 정리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제된 좋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자연계열(약학부 제외) 문항 2〉

문항 2는 제시문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중 수직인 조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제시하여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에 가변적인 점에 대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접선과 직선을 구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점의 좌표를 일반화하고 이를 통하여 적분을 이용하여 넓이를 구하고 수열의 극한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이다.

2-1 문항은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 위의 특정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두 직선의 수직 조건과 한 점을 지나는 조건을 이용하여 점의 좌표를 일반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즉,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과 기울기의 곱이 -1 인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문제이다.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면 충분히 기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이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2-2 문항은 앞선 2-1 문항에서 구한 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적분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래프와 직선의 개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이차함수와 x 축 및 접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하여 구하고 이와 연관된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이다. 미분을 이용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능력, 넓이를 구해야 할 영역을 적절한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능력,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 수열을 적절하게 변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세 가지 능력 모두 고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판단되며, 다항함수의 정적분과 수열의 극한 중 $\frac{\infty}{\infty}$ 꼴에 대한 이해가 된 학생이면 충분한 해결정도를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연계열(약학부 제외) 문항 3〉

문항 3은 제시문에서 ‘역함수의 정의’, ‘도함수를 이용한 역함수를 가지기 위한 조건’을 알려주고 다항함수 중 삼차인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이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와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3-1 문항은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과 도함수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역함수의 정의에 기반하여 역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삼차인 다항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함을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의 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로 역함수의 정의와 성질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제시문을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삼차방정식을 유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구해진 삼차방정식은 복잡한 형태가 아니었으므로 해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이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3-2 문항은 전 문제와 동일하게 역함수의 정의와 성질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유도하여 해결하는 문제로 역함수의 정의에 대한 아이디어 적용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함수로 주어진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 역함수의 정의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고교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내용인 역함수의 정의, 근과 계수의 관계의 활용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좋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자연계열(약학부 제외) 논술고사 문항 1~3은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특성에 맞게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등 고등학교 수학 교과와 주요한 과목을 출제 범위로 하여 고르게 개념 요소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출제 의도가 확인된다. 특히, 고등교육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논리적인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출제부터 많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해석학까지 고르게 출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되고 해결의 과정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되었다. 변별을 위한 어려운 난이도를 지양하고 대입 전형의 평가 요소가 가지는 역할의 범위 안에서 입학 후 학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제되었다고 생각한다.

예시 답안은 필요한 과정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출제된 것이 잘 반영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접근이 다양한 교과와 특성을 고려한 ‘다른 풀이’까지 제시되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항카드⑥(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약학부) 1~3번) 검토 의견

제시문과 문제, 해결 과정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 및 고려 되었으며, 기호, 수식, 표현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성 및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집단위의 지원자 특성을 고려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룹이 충분히 형성될 정도의 수준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총 3문항에 문항 별로 2문제씩 구성되어 있고, 제시문을 통해 문제 출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공통 문항인 ‘문항 1’을 포함하여 문항 내의 문제는 절차적 이해를 요구하기보다는 개념적 이해에 능숙한 학생이 해결하기 용이하도록 구성되었다. 6개 문항, 난이도, 모집단위 지원자의 역량, 전형 요소로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고사 시간은 적절한 범위 수준으로 생각한다.

제시문은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적용, 활용되는 내용이 제시되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에 충분한 방향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시하므로 수험생의 익숙한 접근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계열(약학부) 문항 1〉

문항 1은 제시문의 ‘사잇값 정리’, ‘평균값 정리’, ‘귀류(모순)법’을 이용하여 연속함수인 이차함수와 유리함수의 특성을 이용하여 교점, 실근을 가짐을 보이길 원하고, 주어진 조건을 부정하여 모순된 결과를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문항이다. 자연계열(약학부 제외)와 동일한 문항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논술고사 구성 방향을 알 수 있는 문항이다.

1-1 문항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학생이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두 함수가 만나는 지점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지, 연속함수로 주어진 방정식의 해의 존재성 여부를 사잇값 정리를 적용하여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다루는 문제이다. 일부는 사잇값 정리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두 곡선의 위치 관계로 설명하는 학생도 있어 부분 점수 부여 및 평가 변별도 가능한 문제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이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1-2 문항은 귀류법, 즉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서술하고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원명제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증명해야 할 원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존재하게 되는 $f(c) = 2c$ 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 평균값 정리를 적용함으로써 원명제의 가정에 모순되게 됨을 보여주게 되는 문제이다. 증명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고교에서 유리수 여부를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귀류법을 이해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고 전 문제에서 평균값의 정리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시문을 통해 해결 방향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귀류법의 개념과 평균값 정리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제된 좋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자연계열(약학부) 문항 2〉

문항 2는 고등학교의 수학Ⅰ, 미적분을 범위로 한 문항으로 제시문의 ‘삼각함수의 성질’,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 해결, 지수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로 구성된 문항이다.

2-1 문항은 주어진 구간에서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구한 해의 범위에 대하여 주어진 지수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이다. 사인함수가 포함된 부등식, $y = e^{-x}$ 의 적분 등은 교과서 등을 통한 경험이 있지만, 정적분의 범위, 결과가 간단히 정리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 다소 낯설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2-2 문항은 2-1 문항의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에 대하여 확장되어 주어진 구간을 구하고,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 결과를 만족하는 실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등비급수의 합 공식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문제 해결과정에서 확장된 범위로 인하여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변별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병렬적으로 구해진 범위에 대한 정적분을 등비수열의 합과 연결하여 정적분을 구해야 한다. 구한 정적분이 주어진 정적분의

결과와 정리하도록 하는 상수가 다소 복잡한 형태로 성립하는 것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고교과정을 깊이 있게 공부한 우수한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자연계열(약학부) 문항 3〉

문항 3은 제시문의 ‘역함수의 정의’, ‘로그함수의 정의’, ‘로그함수의 성질’, ‘실수 e 를 밑으로 하는 로그함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범위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함을 도함수를 이용하여 보이는 문제와 주어진 함수에 대하여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로 구성된 문항이다.

3-1 문항은 $x > 0$ 인 범위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함을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여, 그 함수가 증가함수임을 도함수로 적용하여 성립함을 보이는 문제이다. 간단한 문제지만 정의역, 함수의 정의, 도함수의 부호 등을 확인하는 세밀함을 변별로 할 수 있는 문제이다.

3-2 문항은 역함수 $y = g(x)$ 의 그래프를 $f(x)$ 의 그래프와 $y = x$ 에 대한 대칭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음을 보이는 문제이다. 즉, $y = f(x)$ 의 정의역을 확인, 도함수를 이용하여 증감을 확인, 이계도함수를 이용하여 변곡점 확인, 극한을 이용하여 점근선이 존재함을 확인, 원점에서의 도함수를 확인하여 원점에서의 접선이 대칭에 활용되는 $y = x$ 의 그래프와 일치함을 확인하여 $y = f(x)$ 의 개형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대칭성을 이용하여 요구한 그래프를 구하는 문제이다. 문제의 내용 자체는 고교과정 내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도함수에 대한 지식, 함수의 극한에 기반한 점근선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는 미적분 과목의 다양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우수한 학생들 판별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자연계열(약학부) 문항 1~3은 모집 요강 등을 통하여 제시한 출제 범위가 고르게 적용되어 고등학교 수학 교과에서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등 함양된 역량을 교과의 개념 요소 이해 및 적용 정도를 충분히 확인하고자 하는 출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약학대학의 특성과 함께 고등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고려하여 논리적, 절차적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는 출제 의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되고, 해결의 과정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변별을 위한 불편한 문항 구성을 지양하고 절차적 이해보다는 개념적 이해를 확인하고자 하는 출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별고사로 생각한다.

예시 답안은 제시문 내용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고르게 반영하여 제시되었다. 또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제시되어 있어 풀이 과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요소별로 충분한 변별(구분)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문항은 장기간 해외에서 학습한 지원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학업 역량과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특히 지원자의 학습 배경과 국어 사용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암기 위주의 지식보다 실제 국어 생활을 바탕으로 한 문법 체계의 이해와 어휘 사용 능력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대표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한국어 독해 역량을 평가하였다. 모든 문항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언어와 매체’, ‘독서’, ‘문학’ 과목의 성취기준에 근거해 출제되었으며, 모든 문항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본 전형은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 시간은 60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객관식 평가의 일반적인 출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시간 배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모든 문항이 4지선다형으로 출제되었고, 복잡한 계산이나 장시간의 추론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한 사고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전체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의 조합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한 시간을 통한 변별이 아니라, 국어 이해력과 기본적인 사고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출제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문항에는 문법 체계와 어휘 사용 능력, 텍스트 이해 및 추론 능력, 문학 작품 감상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요소가 고르게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국어 생활 맥락에서 언어 규범을 적용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구성·해석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문항 구성은 평가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충족하는 적절한 시험 설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제시문과 문항(문법 영역에서 20문항, 비문학 및 문학 영역에서 20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해 적절히 구성되었다.

1~4번 문항은 ‘언어와 매체’ 과목의 성취기준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에 근거하여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출제되었다. 음운의 개념에 대해 확인하는 문항과 자음의 조음 위치, 모음의 조음 위치,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5~6번 문항은 ‘언어와 매체’ 과목의 성취기준 “[12언매02-02]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을 탐구한다.”와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에 근거하여 단어의 품사 확인, 복합어 중 합성어 찾기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7~9번 문항은 ‘언어와 매체’ 과목의 성취기준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와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에 근거하여 문장 성분, 단어의 관계, 문장의 짜임에 있어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을 구별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0~11번 문항은 <용비어천가>의 일부를 인용하여 보기 자료를 구성하였고, ‘언어와 매체’ 과목의 성취기준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에 근거하여 중세 국어의 의미와 현대 국어의 의미 확인, 중세 국어의 표기 방식을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되었다.

12~14번 문항은 ‘언어와 매체’ 과목의 성취기준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에 근거하여 단어의 쓰임, 고유어의 의미, 관용 표현의 의미 등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해당 문항들은 문맥 속에서 어휘와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 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15~18번 문항은 ‘언어와 매체’ 과목의 성취기준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와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에 근거하여 맞춤법 규정, 속담의 의미, 어문 규범에 대한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특히 띄어쓰기와 발음 규정, 속담의 의미를 묻는 문항들은 일상적인 국어 사용 과정에서 빈번히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선택지 간 의미 대비가 명확하여 정답과 오답의 변별력도 확보하고 있다.

19~20번 문항은 ‘언어와 매체’ 과목의 성취기준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에 근거하여 한자성어의 사용과 한자의 독음을 묻는 문제로 문맥의 의미 파악과 기초 한자 이해 정도를 판단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특히 19번 문항은 고사를 제시하고 그 맥락에서 유래한 한자성어를 찾도록 함으로써, 문맥을 바탕으로 의미를 추론하고 적절한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21~24번 문항은 ‘독서’ 과목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에 근거하여 출제되었다. 문장의 문맥적 의미 파악, 글의 내용 확인 등 글쓰이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독해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되었다.

25~28번 문항은 ‘독서’ 과목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에 근거하여 출제되었다. 글의 전개 방식과 단락의 내용 파악, 문장의 의미 추론 등의 과정을 통해 독해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29~32번 문항은 정지용의 <비>와 이육사의 <절정>을 제시하여, 시어의 상징적 의미, 시상 전개 방식, 시적 표현 기법, 작품 감상의 확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된 두 작품 모두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학생들에게 친숙한 작품을 활용해 시에 담긴 의미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33~36번 문항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2」를 일부 발췌하여 구성하였으며, 인물의 행동과 심리 이해, 사건 전개의 맥락 파악, 어휘의 문맥적 의미, 시점과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특히 작품 속 상황과 인물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현대 소설의 특징과 인물의 심리 이해를 기반으로 기본적 이해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구성되었다.

37~40번 문항은 고전 시가 작품인 유리왕의 〈황조가〉, 고려가요 〈동동(動動)〉, 가사 〈사미인곡〉을 제시하였고, 시가에 대한 내용적, 형식적 이해와 시구의 문맥적, 함축적 의미 파악, 시상 전개 방식, 상징적 소재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특히 각 작품에 나타난 자연물과 계절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본 시험은 대학 수학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1~20번), 설명문과 과학·기술 관련 글을 중심으로 한 독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21~28번), 그리고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감상 및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29~40번)으로 영역별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인용된 제시문과 작품들은 내용과 난도가 비교적 평이하여, 제시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문항의 요구에 따라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추론이나 배경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출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출제 의도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은 문항들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국어 지식을 실제 언어 사용 맥락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며, 대학 수준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언어 능력과 분석적 사고력을 균형 있게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이다. 본 시험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 언어 사용 능력과 독해력, 문학 감상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자 한 출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음운, 어휘, 문법, 어문 규범 등 국어 교과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국어 사용 능력을 점검하는 문항과, 설명문 및 문학 작품을 통해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적절히 구성한 점을 통해 언어적 이해와 논리적 분석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 출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답안은 모든 문항에서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지 간 변별이 분명하여 채점의 공정성과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문맥적 의미 파악이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항에서도 해석의 여지없이 합리적으로 분명하게 도출 가능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출제되었다고 평가한다.

▶ 종합의견

전체 문항이 문법 영역과 비문학, 문학 영역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은 국어의 체계적 이해와 실제 언어 사용 능력, 그리고 텍스트 해석 능력을 단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문항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언어와 매체’, ‘독서’ 및 ‘문학’ 과목 성취기준에 근거해 출제되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주제와 갈래가 다양하고 적용 수준이 단계적으로 심화되어 평가 도구로서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험 문항은 학생의 기본 국어 역량과 대학 학업 수행을 위한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제 의도와 모범답안 또한 각 문항의 평가 목표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계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시험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국어 역량과 대학 학업 수행을 위한 언어적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효과적인 평가 도구라고 판단된다.

문항카드⑧(재외국민 특별전형 영어 1~33번) 검토 의견

▶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본 재외국민 특별전형 영어 시험의 문항들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에 근거하여 출제되었다. 출제 범위는 영어I, 영어II, 영어 독해와 작문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며, 성취기준 [12영I03-03] [12영II03-01] , [12영II03-02], [12영II03-03], [12영독03-02], [12영독03-03] 에 근거하여 어휘의 의미 파악, 문맥을 통한 의미 추론, 주제 및 세부 내용 이해, 논리적 순서 파악 등을 고르게 출제하였다. 제시문 주제 또한 의사결정 과정, 설명의 기능, 산업과 기술의 발달, 글로벌 이슈, 언어와 독서의 중요성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일반적·보편적 범위 내에 있어 교육과정 적합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본 시험은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당 기본 3점을 배점하고, 변별력이 요구되는 일부 문항 즉 19번 문항에 대해서는 4점을 부여하여 전체 배점의 균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총 문항 수와 난이도는 60분 내에 충분히 해결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험자의 영어 능력뿐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관리 역량 또한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 구성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평가 체계를 참조하여 어휘, 문법, 독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다양한 문항 유형을 포함함으로써 단순한 지식 확인을 넘어, 실제적인 언어 이해 및 활용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서로 다른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여 제시되며, 이를 통해 수험자가 다양한 언어 환경 속에서 영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해·적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구성하였다.

▶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본 시험은 대학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한다는 명확한 목적 아래 설계되었다. 출제 의도에서 밝히고 있듯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어휘 숙달도와 다양한 주제의 영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특히 단순 암기식 지식이 아니라 어휘, 문법, 독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대학 수학 능력과의 연계성이 높다.

1~4번 문항은 하나의 어휘가 지닐 수 있는 복수의 의미 요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어휘 문항으로, 정의 기반 어휘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3번 문항은 ‘simulate’의 다의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정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문항은 사전적 의미의 단순 대응이 아니라, 의미의 공통 핵심을 파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 이해력을

적절히 점검하고 있다. 선택지 간 의미 중복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오답 또한 의미 요소 일부만 충족하도록 구성되어 변별력이 확보되어 있다.

5~8번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 문장 구조 이해 능력을 점검하도록 구성된 문법 문항으로, 5번의 병렬 구조 오류, 6번의 동명사 구조('committed to reducing'), 8번의 분사구문 오류 등은 문장 성분 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결 가능하다. 제시된 문장은 실제 사용 맥락을 고려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 규칙 암기 여부가 아니라 구조 인식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부합하고 문항의 타당성이 높다.

9~13번 문항은 밑줄 친 표현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 추론하는 문제로, 어휘력과 독해력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3번 문항은 'indigenous'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문항들은 단순 대응식 암기가 아니라 의미망에 대한 이해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다. 제시 문장은 비교적 명확한 상황 맥락을 제공하고 있어 수험생이 논리적 추론을 통해 정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4~19번 문항은 빈칸 완성 유형으로, 문장의 의미 흐름과 담화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감정, 상태, 추상 개념, 전치사 사용 등 다양한 언어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14~17번의 빈칸 추론 문제는 문맥 전체를 고려해야 하므로 독해 기반 어휘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9번 문항의 경우 장문 맥락 속에서 동사와 명사를 동시에 판단하도록 하여 문맥 이해 능력과 어휘 선택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

20~33번 문항은 본 시험의 핵심 평가 부분으로, 논리적 사고와 주제 파악 능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설명문과 논증문 중심의 독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파악, 세부 내용 이해, 논리적 연결, 글의 구조 인식 등 다양한 독해 요소를 고르게 평가한다. 제시문 주제는 의사결정에서의 전문가 의견, 설명의 기능, 산업과 기술의 발전, 글로벌화, 언어와 독서의 가치 등으로, 고등학생이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제시문은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난이도를 적절히 조정하여 교육과정 이탈 없이 독해 역량을 평가하도록 재구성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시험의 논제는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며, 문항은 어휘·문법·독해 영역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 논제는 단순한 언어 지식 확인을 넘어, 문맥 이해와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문적 깊이와 이해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선정·재구성되었으며, 수험생의 분석력과 추론 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활용되었다고 판단된다.

첨부된 문항카드를 바탕으로 제시문의 적절성을 분석하면, 본 시험의 제시문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력과 학문적 읽기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각 제시문은 보편적이면서도 학문적 성격을 띤 주제를 통해 대학 수학에 필요한 독해 역량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제시문은 난이도와 담화 유형 측면에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25~26번의 석유 발견과 산업 발전에 관한 글은 비교적 명료한 설명 구조를 통해 세부 내용 이해와 요지 파악을 평가하며, 32번의 독서에 관한 글은 문단 배열을 요구함으로써 논리적 전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 나아가 21번, 24번, 29번, 33번과 같이 주제나 필자의 관점을 묻는 문항들은 제시문의 중심 의미를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해결 가능하므로 단순 정보 탐색을 넘어선 고차적 이해를 요구한다. 이러한 구성은 논증문, 설명문, 사회적 쟁점 논의문, 비교·대조 구조의

글 등 다양한 담화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학습자의 적응력과 종합적 독해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제시문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본 시험의 출제 의도는 대학 교육과정 이수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영어 이해 능력과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으며, 문항 구성 전반에서 이러한 의도가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다. 단순한 어휘·문법 지식의 암기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맥 이해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의미를 해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출제 목적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어휘 영역(1~4번, 9~17번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어휘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출제 의도는 개별 단어의 사전적 의미 암기보다는, 복수의 의미 요소를 종합하거나 문장 맥락에 적합한 의미를 추론하는 데 있으며, 이는 대학 학업에서 요구되는 읽기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제시된 모범답안은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의미 요소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출제 의도와 답안 간의 일치도가 높으며, 3번, 13번, 14번 문항의 경우 제시된 정의 또는 문맥과 정확히 일치하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설정하고 있어 의미적 일관성이 유지된다.

문법 영역(5~8번, 18~19번, 27번 문항)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와 형태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출제 의도는 규칙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실제 문장 맥락 속에서 문법적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18번의 전치사 선택, 27번의 분사구문 선택은 문법과 의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구조 분석 능력을 요구한다. 모범답안은 문법적 오류의 핵심 원인을 명확히 드러내는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으며, 문장의 의미 흐름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판단 결과로서 타당성을 갖는다.

독해 영역(20~33번 문항)은 설명문과 논증문을 중심으로, 주제 파악, 세부 정보 이해, 논리적 연결, 글의 구조 인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출제 의도는 단순 정보 검색이 아니라, 제시문의 논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거나 요약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27~29번 세계화 지문은 긍정과 우려를 병치하여 29번에서 중심 논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30~31번은 언어의 본질과 상실의 의미를 다루어 추상적 개념 이해를 요구하며, 32번은 문단 배열을 통해 논리적 전개 구조를 분석하도록 하고, 33번은 독서 습관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해결 가능하다. 독해 영역에서도 각 문항의 모범답안은 지문의 중심 논지와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오답 선택지들은 부분 정보에 근거하거나 지문의 논리와 어긋나도록 구성되어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다.

제시된 모범답안은 각 문항의 출제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텍스트의 의미, 논리, 문법 구조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답안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평가 도구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종합의견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시험은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문항 수와 시간 배분, 영역 구성, 제시문 선정, 모범답안 설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체계성과 타당성을 갖춘 평가로 판단된다. 또한, 어휘·문법·독해 영역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으며, 제시문과 문항 유형이 다양하여 수험생의 영어 활용 능력과 대학 학업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제 의도와 모범답안 또한 교육적 목표와 잘 부합하여 평가 도구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시험으로 판단된다.

문항카드⑨(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학 1~20번) 검토 의견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고사는 수학, 수학I, 수학II에서 학습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익혔는지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으며, 어려운 고차원적 수학적 사고력보다는 대학 진학 후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들이라고 판단된다. 해결 과정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다. 모든 문항은 선택형이며, 문항 수는 20문항으로 세 과목으로 제시한 출제 범위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난이도와 문항 수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지필고사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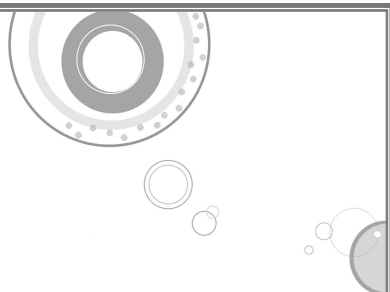
문항	내용
1	단순한 식의 변형 문항으로 곱셈 공식의 활용 등 다항식의 연산 이해정도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2	항등식의 정의를 이해하고,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3	복소수의 성질, 허근, 방정식 풀이 등을 작용하여 허수단위가 적용된 것을 단순화하여 문제의 요구를 구하는 문제이다.
4	절댓값을 포함하는 부등식에 대하여 범위를 구분하여 이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정수인 해를 구하는 문제이다.
5	원 외부의 점에서의 거리에 대한 최대, 최소의 값을 원의 정의와 성질을 이용하여 구하는 문제이다.
6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하고 교점을 구하여 두 교점 간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이다.
7	명제의 조건을 이해하여, 주어진 명제와 동치인 명제를 구하는 문제이다.
8	집합의 포함관계를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9	합성함수의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합성함수의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10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11	문제상황을 이해하여 순열, 조합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12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문항	내용
13	로그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그 중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14	주어진 범위에서 삼각함수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15	삼각비,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등을 이용하여 예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16	Σ 의 정의와 성질, 부분분수 등을 이용하여 주어진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다.
17	도함수를 이용하여 삼차함수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이다.
18	도함수를 활용하여 주어진 구간에서 다항함수의 최댓값,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19	부정적분의 정의와 성질, 미분계수의 정의 등을 이용하여 주어진 극한을 구하는 문제이다.
20	정적분이 포함된 식을 미지수가 들어있는 정적분에 대한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함수를 구하고 요구하는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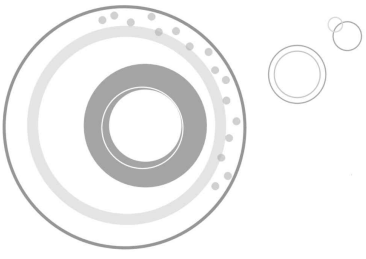
모든 문항은 제시된 출제 범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공통과목인 수학에서 50% 정도 출제되고, 일반 선택과목인 수학I, 수학II에서 50%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또한, 문항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목의 중위 수준 바탕의 평가 수준을 요구하는 정도로 출제되어 전형 요소로의 충분한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60분 내에 큰 어려움 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런 문항 구성을 통해 특별전형인 재외국민 전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입학 후 학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역량, 이해력 사고력, 논리적 추론 능력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출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부 기반 면접 관련 사항

2026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숙명인재(면접형)전형, 소프트웨어인재 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은 다단계전형(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고사)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며, 면접고사 또한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면접고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활동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기본적인 학업 소양과 진로탐색 및 전공선택 과정을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 및 태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학생부 기반 면접은 교과 지식에 기반한 문항 출제 없이 지원자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므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Ⅳ.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 우리 대학은 현행 관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실시 후 선행학습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차년도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에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참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반영 절차

절차	내용	시행 주체
(1) 대학 입학 전형 실시	· 입학 전형 실시	입학처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선행학습 영향평가 계획 수립 ·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소위원회
(3)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공개	· 소위원회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와 전형 개선방안 보고서를 심의하고 공개(매년 3월)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4)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반영	· 전형 개선방안 보고서에 근거하여 차년도 전형계획수립에 반영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1. 출제 및 검토 개선

□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사전 교육 및 교육과정 준수 여부 지속 점검

-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에 대한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중요성, 성취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실시
- 출제위원은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스스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출제하도록 하며, 출제 과정 중 검토위원의 점검 및 최종 검토 결과 제출을 통하여 출제 전부터 출제 후까지의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2. 출제 후 점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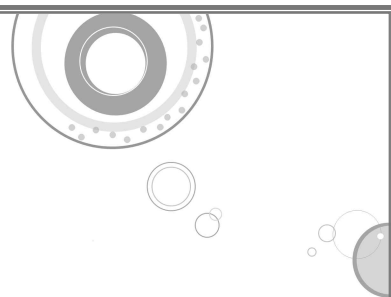
□ 출제와 평가의 연계 강화

- 출제자가 평가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출제 의도에 맞는 답안이 작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자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출제와 평가의 연계를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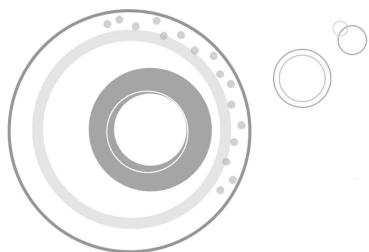
3.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

□ 현재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 형태 및 수험생 지원 방향 유지

-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 계열 문항 확대 기조를 유지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계열별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능력 및 통합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준수함.
- 모의논술 실시, 기출문제 및 해설 공개 등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 출제 방향 및 형태를 경험하게 하고, 수험생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 대학 제공 자료만으로 충분히 대학별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추가 평가의견들을 참고하여 문항 구조 및 난이도, 지문 개수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고함.



V. 부록



V. 부록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우리 대학 자체 규정

□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 배경 및 관련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규정화

- 2015년 2월 6일자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두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된 제도 개발 및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제2조(기능)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6.26.)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개발·면접구술고사제도 개발·논술고사 개발·학생부 반영기법 개발·자격증 및 특기 반영기법 개발 등)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전형관리 등)
5. 대학입학제도 통계 및 조사·홍보에 관한 사항(각종 통계분석·국내외 대학 입시제도 자료 조사, 홍보 계획 수립 등)
6. 주요 전형관리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전형위원 배분 등)
7. 대학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2.6)
8.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호번호변경 2015.2.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실무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입학처장 및 사무·관리처장)은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6.26./2020.06.20)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술제도개발·면접제도개발·통계분석·자료조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6.26.)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

⑤ 분과위원회의 연구 및 자료 조사 등의 경비를 입시경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조신설 2015.2.6.)

① 위원회는 제2조 제7호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소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6.20)

②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6.20)

③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6.20)

④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20)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계획 수립
2.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3.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4.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

⑤ (삭제 2020.06.20)

⑥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3월 말일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0.)

(이하 생략)

2. 대학별고사의 문항 제출 양식 : 『문항카드』

2-1. 문항카드 ①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인간, 사회, 환경, 자본주의 경제, 생태계, 공존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1

<가>

보도 위에는 레오니아에서 나온 어제의 쓰레기들이 깨끗한 비닐봉지에 싸여 쓰레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눌러 짠 치약, 터져 버린 전등, 신문, 그릇, 포장 재료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보일러, 백과사전, 피아노, 도자기 세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레오니아의 풍요로움은 매일 생산되고 판매되고 구매되는 것보다 매일 새로운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버려지는 물건들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 청소부들은 천사처럼 환영받습니다. 어제의 잔재를 치우는 그들의 임무는 신심에 영향을 주는 의식처럼 말 없는 존경을 받습니다.

레오니아 사람들은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어디로 가져가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부들은 그것을 도시 밖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매년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쓰레기장은 점점 더 멀리 물러나야 합니다. 버려지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쓰레기 더미는 점점 더 높아지고 겹겹이 쌓이고 반경을 넓혀갑니다. 그 결과 과거의 파편들이 벗을 수 없는 갑옷처럼 단단하게 굳습니다. 도시는 매일 새로워지면서 하나의 결정체가 되어 자신을 보존하게 됩니다. 바로 그저께의, 그리고 매달, 매년, 십 년 전의 쓰레기들 위에 쌓이는 어제의 쓰레기 더미로 말입니다. 레오니아를 에워싼 튼튼한 쓰레기 성벽이 산처럼 사방에서 도시를 압도합니다.

레오니아의 국경선 너머에는 쓰레기를 끊임없이 밖으로 밀어내는 도시들이 분화구처럼 생긴 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화구들이 세계 전체를 뒤덮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는 오염된 산들의 잔해가 서로를 지탱하거나 중첩되거나 뒤섞이면서 국경을 만들 겁니다. 쓰레기 산의 높이는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럴수록 붕괴 위험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나〉

한때는 쓰레기에 신경 쓰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부유함을 뜻했다. 하인을 여럿 둘 수 있는 사람들은 육체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을뿐더러,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로 골치 아플 필요가 없었다. 비슷한 일이 1950년대 미국에서도 일어났다. 쓰레기 대부분을 도시 당국이나 민간 업체들이 직접 수거해서 도시 외곽으로 보내 매립장에 묻거나 소각로에서 태웠고, 음식 쓰레기는 분쇄기에 갈아 하수구로 내려보냈다. 쓰레기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저 멀리 사라져 폐기물 처리 전문가와 시스템만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냉전 시대에는 ‘버리는 행위가 해방을 뜻한다.’라는 말이 자본주의를 공산주의와 비교하는 용도로 쓰였다. 1954년 역사학자 존 쿨웨호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느 정도의 낭비를 용인하는 것은 부유함의 전제 조건이다. 낭비는 부유함의 결과이자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물건을 산다는 것은 자유를 뜻했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곧 어떤 상품을 구매하느냐의 문제였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 소비의 자유가 경제의 무한한 성장을 보증한다고 믿었다.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성마저도 생활의 편리함이자 자유의 즐거움이었다. 일회용품과 포장재, 그리고 이것들이 나타내는 편리함, 청결함, 노동 절감은 너저분한 옛날 방식과 대비되는 현대인의 자유로운 삶을 의미했다. 거침없이 물건을 소비하고 폐기하는 인간의 행위는 20세기의 고유한 현상이며, 재사용과 재활용이라는 옛날 습관은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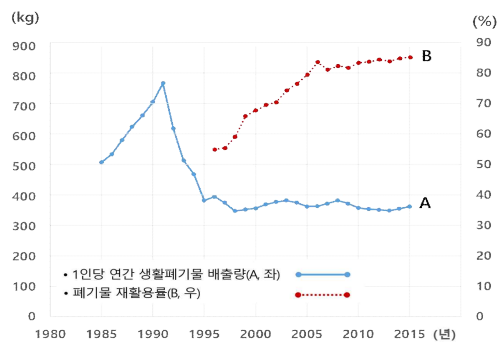
벤스 패커드는 『쓰레기 제조자』에서 ‘계획적인 구식화(planned obsolescence)’라는 용어를 세상에 널리 알렸다. 그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품이 수명을 다하거나 기능이 저하되도록 만들고, 아니면 낡게 해서 촌스럽게 보이게끔 하는 소비자본주의의 전략을 말한다. 이런 전략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상품을 끝없이 욕망하고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13년 포드사는 조립생산 라인의 노동 효율성을 높여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였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GM사는 1923년부터 매년 모델을 바꿔 출시하는 ‘연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4년 뒤 특정 모델의 신차 판매량에서 포드사를 앞서게 되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집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고, 그들의 가정은 수많은 상품으로 가득 채워졌다.

〈다〉

지난 근대 산업사회는 인간 역사상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 산업혁명 이후 본격화된 산업자본주의와 소비자본주의는 자연환경을 일방적으로 착취하여 생산력을 극대화했다. 특히 화석연료의 대규모 채굴과 사용을 통해 고도의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융합이 긴밀히 이루어졌다. 자본주의는 많은 사람을 극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준 성공적인 물질대사 시스템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 구조는 기후 급변과 생태계 파괴라는 최악의 이중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195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또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지구는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 즉 인류세의 행성이 되었다.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등 인간이 초래한 위기가 인간과 생태계를 다시 덮치는 악순환이야말로 인류세의 특징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생태계는 이러한 인간 사회계에 포위된 채 겨우 연명하거나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이제 문제는 ‘인간과 자연으로 이루어진 전체 생명공동체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이다.

자연 생태계는 자연순환과 먹이사슬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질대사를 한다. 인간 사회계 역시 자연을 상대로 물질대사를 한다. 그런데 자연 생태계와 달리, 인간 사회계는 자연으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추출'하고 그것을 '변환'하여 '소비'한 후 폐기물을 일방적으로 '배출'한다. 이러한 물질대사에서 순환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인간 사회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최악의 위기에 대응해야만 한다. 이때 비로소 사회계와 생태계는 상호 순환하며 함께 진화하는 관계가 된다. 즉, 생태계는 사회화된 자연 생태 시스템이 되고, 사회계는 생태계에 의존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사회-생태계'라고 부른다.

인류세는 재난을 양산한다.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태계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회복력(resilience)'이 강화되어야 한다. 회복력이란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시스템을 재조직하면서도 시스템 자체의 고유 기능, 구조, 정체성, 피드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연 재난과 극한 기상이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순환적인 사회경제를 향한 거시적 차원의 여러 정책만이 아니라 녹색소비를 위한 노력에서처럼 미시적 차원의 개인의 책임 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림 1] 쓰레기종량제* 시행 전후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폐기물 재활용률의 변화 추이

* 1990년대 들어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오염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주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가 판매한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종이, 고철, 병, 플라스틱 등)은 일시와 장소에 따라 배출하면 무료 수거되며,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은 구매한 스티커로 수수료를 부담하여 배출하게 했다.

1-1. <가>에 나타난 레오니아 사람들의 쓰레기에 대한 태도와 도시의 문제 상황을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1-2. <다>의 논지에 따라 <나>에 나타난 문제를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을 해석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기후 급변과 생태계 파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간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역량을 확인하고자 한다. 생물종다양성의 축소와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 등은 이러한 위기와 함께 이제 일상의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기후,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근대 이후 여러 형태의 자본주의 체계는 인간과 자연을 동력 및 자원으로 치환하여 생산과 소비를 무한히 확대함으로써 소위 '선형적인 사회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을 전파해왔다. 이러한 경제체계에서는 상품 생산과 소비의 총량에 비례하는 폐기물의 증가가 나타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무관심 속에서 은폐되고 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 결과 인류세 위기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지구 행성에 짙게 드리운다. 이에 대해 기후,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는 선형적 경제체계의 문제를 비판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으로서 사회-생태계로의 전환은 물론 순환적인 사회경제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제도와 정책 도입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규범이나 문화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개개인의 의식 및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미시적 차원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제시문 〈가〉
	성취 기준 2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제시문 〈가〉
	성취 기준 3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 4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제시문 〈다〉
	성취 기준 5	[10통사02-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다〉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4-03]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려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탈로 칼비노	민음사	2016	143~145	제시문 〈가〉	○
낭비와 욕망: 쓰레기의 사회사	수전 스트레서	이후	2010	294~296, 405~420	제시문 〈나〉	○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조효제	창비	2022	227~236, 302~303	제시문 〈다〉	○
1인당 생활계폐기물발생량, 폐기물재활용률	지표누리	국가데이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그림 1]	○
쓰레기종량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2025		주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이탈로 칼비노, 『보이지 않는 도시들』 (민음사, 2016)

칼비노는 이 책에서 마르코 폴로라는 역사 속 인물을 가상의 영토로 불러내어 인간의 언어, 기억, 욕망 등에 의해 변화하는 여러 도시의 모습을 환상의 이야기 형식으로 묘사한다. 제시문은 도시 레오니아의 찬란함의 이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레오니아 사람들의 일상과 태도를 통해 폭로하고 있다. 레오니아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끝없이 욕망하면서 이를 위해 매일매일 새로운 상품들로 자신들의 삶을 채워간다. 그 결과 기존의 물건들은 새로운 물건들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쓰레기로 치환된다. 쓰레기는 레오니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져 산처럼 높이 쌓여가고 결국 그것의 붕괴 위험이 다시금 그 도시를 위협한다. 제시문에서 상품 소비 욕망이 초래할 생태계 파괴의 파국적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다.

제시문 <나>

- 수전 스트레서, 『낭비와 욕망: 쓰레기의 사회사』 (이후, 2010)

전반적으로 이 책은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소비자본주의로 이행한 미국의 역사적 흐름을 조망한다. 트레이서는 특히 경제의 부침이 발생한 역사적 과정에서 미국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상품 물신화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신화가 폐기 행위와 그것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은폐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제시문은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개인들이 쓰레기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폐기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긍정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제시문 <다>

- 조효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창비, 2022)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는 도래하지 않는 미래의 서사가 아니라 여기 지금 모든 지구 거주자들의 현실이다. 이는 인간의 파괴적인 행위가 초래한 자연 생태계 훼손만이 아니라 이 훼손으로 인해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부정적인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 저자는 인간에게서 자연으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행위 결과들을 사회경제 시스템의 환경 폭력이나 에코사이드를 통해 설명한다. 나아가 인간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해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사회문화와 자연이 분리된 이원론적 세계관을 해체하고 상호의존적이 공진화를 제안하는 사회-생태계의 이론적 논점들을 제안한다. 제시문은 이러한 내용과 논지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그림 1]

‘쓰레기종량제 시행 전후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폐기물 재활용률의 변화 추이’는 1985년 이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활동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국가데이터처가 제공하는 <1인당 생활계폐기물발생량>(1985~2015, A)과 <폐기물재활용률> (1996~2015, B)의 데이터를 각각 반영한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그래프 A는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추진된 쓰레기종량제의 영향으로 배출량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준다. 그래프 B는 1996년 추계가 시작된 이래의 <폐기물재활용률>로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

주는 국가기록원의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기록에서 추출한 내용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주는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적인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특히 폐기물 배출이 배출자 개인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순환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논제의 구성

1-1. <가>에 나타난 레오니아 사람들의 쓰레기에 대한 태도와 도시의 문제 상황을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자연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소비자본주의 물질화 욕망이 쓰레기에 대한 개인들의 무관심을 어떻게 긍정하게 만드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문항이다. <가>에서 레오니아 사람들의 태도는 무한히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면서 그것에 비례한 양만큼 발생하는 쓰레기에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쓰레기의 무한한 증가가 레오니아 도시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미래적인 사실이다. <나>는 소비자본주의 시대 미국에서 쓰레기 배출에 대한 무관심과 개인적 책임이 은폐되는 원인을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폐기 행위 자체가 자본주의의 이념적 관련물이자 물질적 풍요의 상징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폐기물의 처리 또한 공공 시스템에 전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비가시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이유는 자본주의의 소비 전략이 개인의 상품 구매 욕망을 자극할 때 증가하는 상품 구매에 비례해서 폐기물 또한 무한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아래 채점 기준에 설명된 내용을 포함해서 이러한 취지의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다>의 논지에 따라 <나>에 나타난 문제를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을 해석하시오. (600±60자)

기후 급변과 생태계 파괴의 원인을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계의 급격한 과잉 팽창 결과로 설명하려는 것이 인류세 담론의 일부 주장이다. 이 담론에는 지난 세기 인간중심적 세계가 극단적으로 추구해온 선형적인 경제 성장 논리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 인류세 담론의 논리에 따르면 자연은 자원의 대상으로 의미가 제한되어 오직 개발과 채굴의 착취에 노출된다. 자연의 훼손은 지속되고 누적되는데, 그 영향은 생물다양성의 상실만이 아니라 기후 난민의 인권 문제처럼 사회경제적 불평등에도 미친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사회-생태계의 논지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내용에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본주의의 근본적 프로세스를 비판하는 것이다. 생태계 파괴 및 그것의 극복 문제가 인간의 사회경제 문제와 분리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물론 순환 경제의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생태계가 피력하는 기본 논지이다. 나아가 그 실천은 거버넌스와 같은 거시적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의식과 실천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1995년 처음 시행된 ‘쓰레기종량제’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 1]의 해석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점은 위의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의식과 실천의 중요성이다. 그래프 A는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근본적으로 배출자 개인에게 있으며, 나아가 순환 경제를 위한 이러한 정책이 개인의 노력과 상호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프 B는 1996년 이후 배출량의 일정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자원 순환 실천이 정책에 대한 개인적 순응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에서 레오니아 사람들의 쓰레기에 대한 태도와 도시의 문제 상황 기술】 ① 레오니아 사람들은 매일 버려진 물건이 새로운 상품을 대체함으로써 풍요해진다고 여긴다. ② 레오니아 사람들은 계속 쓰레기를 버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무관심하다. ③ 도시 밖으로 계속 밀려난 쓰레기는 점점 높은 쓰레기 산이 되어 언제 붕괴할지 모른 채 레오니아를 위험에 빠뜨린다. 【제시문 <나>의 내용을 활용한 설명】 ④ <나>는 소비자본주의가 상품 소비를 부추기는 것만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 행위도 권장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는 쓰레기에 대한 책임에서 배출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것을 처리 전문가와 시스템에 전가하고 있음을 통해 강조된다. ⑤ <나>는 '계획적 구식화'의 전략에서처럼 소비자본주의가 상품의 끝없는 소비 욕망을 자극하고 결국 과도한 상품 소비와 증가한 폐기물이 도시 환경을 파괴하리라 예상한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고, ④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에 3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다>의 논지 기술】 ① <다>는 근대 이후 산업 및 소비자본주의가 자연환경을 착취함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와 생태계에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생물다양성 파괴와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②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경제 성장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인간 사회계가 자연 생태계와 달리 자연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추출, 변환, 소비, 배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순환하는 물질대사를 하기 때문이다. ③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계와 자연 생태계가 상호 순환하고 함께 진화하는 사회-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여러 정책만이 아니라 미시적 차원의 개인적인 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제시문 <나>의 문제 기술】 ④ <나>의 내용에 제시된 문제는 무한한 상품 소비가 경제 성장을 보충한다는 믿음을 조장한 소비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쓰레기의 무한 발생과 배출을 긍정하면서 마침내 환경이 파괴된 미래 사회의 위기를 예상케 한다는 점이다. 【[그림 1]의 해석】 ⑤ 그래프 A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개인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급감하였으며, 그래프 B는 이러한 실천이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률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은 사회-생태계의 관점에서 기후 급변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에 대응하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만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과 실천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중요성이 잘 드러내고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고, ④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에 3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1.

레오니아 사람들은 매일 버려진 물건이 신상품으로 대체될 때 풍요해진다고 여기며 계속 쓰레기를 버린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무관심하다. 레오니아의 국경으로 계속 밀려난 쓰레기는 붕괴할 만큼 높은 쓰레기 산이 되어 도시를 위태롭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끝없이 상품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자본주의가 쓰레기 배출마저도 권장하는 데서 비롯된다. 쓰레기에 대한 책임마저도 배출자로부터 면제하고 처리 전문가와 시스템에 전가하는 것이다. 소비자본주의는 ‘계획적 구식화’ 전략의 경우처럼 과도한 상품 생산과 그에 비례한 폐기물 증가를 낳아 결국 환경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328자)

1-2.

근대 이후 산업 및 소비자본주의가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와 생태계의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이것은 생물다양성 파괴와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았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경제 성장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인간 사회계가 자연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추출, 변환, 소비, 배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순환하는 물질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와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계와 자연 생태계가 상호 순환하고 공진화하는 사회-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여러 정책의 실행과 함께 미시적 차원의 개인적인 책임 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생태계는 무한한 상품 소비가 경제 성장을 보증한다는 믿음을 조장한 소비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쓰레기의 무한한 발생과 배출을 긍정하면서 초래할 위기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1]에서 그래프 A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개인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급감했음을 보여주고, 그래프 B는 이러한 개인적 실천이 순환 경제를 위한 자원 재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은 사회-생태계의 관점에서 기후와 생태계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과 실천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653자)

2-2. 문항카드 ② 〈인문계열 1회차 2번 문항〉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행복, 과학 기술, 감시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가〉

왕세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행복의 섬’에 도착하자마자 솔로코프는 영화관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놓인 안락한 소파에 앉았다. 자리에 앉자 곧 영화가 시작되었다. 다름 아닌 솔로코프 자신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다. 그의 개인 소장품과 여러 매체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영상을 인공지능이 모아 편집한 영화였다. 솔로코프는 짜깁기된 단조로운 영화에 싫증을 느끼고 반쯤 눈을 감았다. 그러는 동안 표정, 체온, 심박수, 혈압, 생체 신호, 그리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호르몬 수치 등 모든 생체 지표가 그가 앉은 평범해 보이는 가죽 소파를 통해 철저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영화가 끝나자 화면에 여러 질문이 나타났다. 시중드는 로봇 카린이 그에게 읽으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가?” 솔로코프는 기분이 상해서 카린을 바라봤다. “무슨 이따위 바보 같은 질문이 다 있어? 내가 이걸 대답해야 해?”

“솔로코프 씨, 행복이 매우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당신의 기본적인 상태를 더 잘 이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5단계로 된 척도를 사용해 최대한 솔직하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코프는 로봇을 향해 “바보 같군.”이라며 투덜댔으나 이내 다시 화면을 보며 응답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모양이었다. 그가 포기하려 하기 직전에 질문이 끝나고 머리 위 조명이 켜지면서 카린이 말했다.

“축하합니다, 솔로코프 씨. 이제 함께 지내실 손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솔로코프 씨도 좋아하실 겁니다.”

...(중략)...

화려하게 차려 입은 아킬라 공주가 은수저로 와인잔을 두드리 손님들을 주목하게 했다. 우선 자신의 오빠인 왕세자가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왕세자는 이 행복의 섬을 통제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한 책임자이기도 했다. 공주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왕세자께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어떤 기술도 좋은 게 아니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왕세자는 기술의 힘을 통해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궁극의 길을 찾고자 이 섬을 설계했습니다. 이 섬에 오신 여러분은 왕실이 이룩한 이 전례 없는 과업을 목격하는 특전을 누리게 될 겁니다.” 공주의 또렷한 영어 악센트는 아주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다소 차갑게 느껴졌다. 솔로코프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공주님, 저는 왕세자의 비전과 결단력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도파민이 뇌의 보상체계를 통제한다는 것, 또 옥시토신이 정서적 교감을 강화하고 엔도르핀이 통증을 완화해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바는 불안을 잠재우고 세로토닌은 자신감을 북돋우고 아드레날린은 활력을 채워주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감과 직접 관련된 어떠한 신경전달물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인이 와인잔을 높이 들며 끼어들었다. “에밀리 디킨슨이 ‘저 작은 돌멩이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썼고 레이먼드 카버는 ‘행복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을 바라보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제 생각에 사람들은 모두 더 행복하게 살아가 노력하는데, 다만 기술과 실천력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피곤해 보이는 여배우가 물담배 연기를 한껏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뿜으며 말했다.

아킬라 공주가 모두의 의견에 인내심 있게 고개를 끄덕인 후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모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

1990년대부터 행복이라는 주제와 그 분야 연구에 관심을 둔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협력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행복은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여겨져 그 연구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연구자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행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노라 주장하는 연구는 실증주의 학계에서 큰 의심을 사곤 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복이 상대적이라면 객관적인 경제 개선과 부양이 반드시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행복이 상대적이라면 감정과 기분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이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러워진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혹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행복처럼 까다로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마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서툰 것처럼 행복을 가능하고 평가하는 데 서툰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1990년대 내내 많은 경제학자와 심리학자가 서로 손을 잡고 설문 조사, 가치 척도 등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객관적으로 측정한다고 알려진 방법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였다. ‘옥스퍼드 행복 척도’나 ‘삶의 만족도 척도’ 같은 것들이 그 예다. 그리

고 각국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총생산(GNP)’과 비슷하게 국민 행복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모아 ‘국민총행복(GNH)’을 지표화하였으며, ‘경제 웰빙 지수’나 ‘인간 개발 지수’ 등을 공공정책의 효과와 경제 발전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행복의 다양한 수준들은 ‘고통의 양에 대한 쾌락의 양’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 행복은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것, 나아가 정확하게 측정되고 실증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행복은 완전히 상대적일 수는 없다. 도리어 행복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다〉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가능성과 관련하여 엄청난 낙관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낙관론 덕에 마음과 몸, 뇌에 대한 세심한 과학적 관찰만으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행동주의와 공리주의의 야망이 재점화되었다. 행동주의 경제학자나 행복 전도사들이 드디어 인간의 동기 부여와 만족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할 때마다 새로운 심리 감시가 암시되는 셈이다.

돌이켜 보면 1960년대 처음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에 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려던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에 대해 보고할 때, 그 보고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의심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날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자기 감시, 그리고 데이터 분석학은 이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사람들의 말을 본인들은 모르게 한꺼번에 해석할 수 있다면, 혹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의 행복 상태를 실시간 수치로 표현해 알려줄 수 있다면, 연구자들은 굳이 설문 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보고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빅 데이터는 인간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과 행동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사람의 신체, 얼굴, 행동을 추적하여 기분을 읽어내는 감성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감정을 판별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의 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 행복의 조건과 본질에 관한 과학적 탐구로 시작했던 작업이 한순간에 행동 통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 인간의 변영과 진보를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작업이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경영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나아가 제시된 정책을 아무런 비판 없이 무작정 따르게 만드는 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과 육체, 그리고 세상 사이의 관계를 정량화하는 작업은 사람들에게 대한 통제력을 확고히 하고 그들의 결정을 예측하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2-1. 〈나〉의 내용에 근거하여 〈가〉의 왕세자와 시인의 관점 차이를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의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이점과 한계를 논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우리는 흔히 행복을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해한다. 행복을 이렇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만 이해한다면, 삶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오직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되고, 사회 전체를 발전시켜야 할 뚜렷한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행복감을 정량화하고 측정하려는 경제학자들이나 심리학자의 시도는 사회의 객관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지표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량화하는 것에도 문제는 있다. 오늘날 첨단 기술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들을 들여볼 수 있게 되면서 행복감을 측정하고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심리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항은 수험생이 행복감과 같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영역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변화시켜 파악하려는 노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시에 그 노력이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어떤 파생적 위험 낳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출제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1-02]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제시문 〈가〉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AI 2041	리카이푸 · 천치우판	한빛비즈	2023	433~441	제시문 <가>	○
해피크라시	에바 일루즈 · 에드가르 카바나스	청미	2021	53~61	제시문 <나>	○
행복산업	윌리엄 데이비스	동녘	2015	252~267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리카이푸 · 천치우판, 『AI 2041』 (한빛비즈, 2023)

<가>는 기술의 발전에 의지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시도로서 ‘행복의 섬’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입장과 그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왕세자는 첨단 기술에 의지해 사람의 감정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제시문 속 시인은 행복은 사람에 따라 다른 상대적인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제시문 <나>

- 에바 일루즈 · 에드가르 카바나스, 『해피크라시』 (청미, 2021)

<나>는 1990년대 들어 유행하기 시작한 행복에 대한 과학을 설명한다. 이전까지는 행복이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이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데 반해, 행복을 순수하게 주관적인 감정으로만 보면 인간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근거를 잃게 된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복감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설명한다.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행복은 적절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이다.

제시문 <다>

- 윌리엄 데이비스, 『행복산업』 (동녘, 2015)

<다>는 사람들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이해할 때,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인간의 심적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것은 개인의 내밀한 심적 상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와 그것을 토대로 한 통제에의 문제다. <다>는 이렇게 행복을 정량화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이 자칫 사람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수단으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논제의 구성

2-1. <나>의 내용에 근거하여 <가>의 왕세자와 시인의 관점 차이를 설명하시오. (300±30자)

2-1번 문항의 요구 사항은 <나>의 내용에 의지해서 <가>의 왕세자와 시인이 행복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나>의 내용에 따르면, 행복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있다. 한 관점에서는 행복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이어서 객관적인 측정이나 파악이 어렵다고 본다. 반면 또 다른 관점에서는 행복을 상대주의적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적절한 방법들을 동원한다면 행복 역시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본다. <가>의 시인은 행복을 느끼고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 서 있는 데 반해, 왕세자는 <나>의 경제학자나 심리학자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감정으로 보고, 더 나아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나>에서 행복을 바라보는 두 관점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서 왕세자와 시인의 관점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복을 측정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받아들이는 전제, 즉 행복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의 유무다.

2-2.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의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이점과 한계를 논하시오. (600±60자)

2-2번 문항은 <나>와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파악하려는 노력이 오늘날의 첨단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이점과 위험이 있는지를 논하는 것이다.

<가>의 왕세자가 추진하는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의 생체 신호나 감정 등을 측정하고,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들을 토대로 첨단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나>에서 나온 것처럼 행복을 상대적이고, 그래서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삶의 객관적인 여건을 개선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은 근거를 잃게 되고, 심리학 역시 마음의 과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인간의 심리와 삶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의 근거를 실증해 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오랜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러한 노력이 첨단 기술과 만날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심적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감시 사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의 섬 프로젝트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기술적 노력이라는 의의는 있으나 그것이 도리어 인간을 통제하는 기술로 전락할 수 있다는 한계 또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에 나오는 행복을 바라보는 두 입장의 요약과 구별】 ① 〈나〉는 행복을 바라보는 두 입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 입장에 따르면, 행복은 상대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행복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② 반면 다른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법만 동원된다면 행복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본다. 【〈가〉에서 왕세자와 시인의 입장 구별】 ③ 〈가〉의 왕세자는 행복의 섬에 초대된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다시 말해 왕세자는 〈나〉에서 말하는 행복이 측정 가능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반면 시인은 디킨슨과 카버의 말을 인용해 행복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대화의 자연스러운 맥락에 비추어 보면 〈나〉에서 말하는 행복이 상대적이며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유사하다. 【왕세자와 시인의 입장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 근거】 ⑤ 〈나〉에서 행복이 측정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의 근거는 적절한 측정 방식의 유무다. 이는 왕세자와 시인이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다. 시인이 행복을 그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으로 보는 반면, 왕세자는 생체신호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과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과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은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④를 충족하였으나 ③, ⑤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가 부족한 경우 (〈나〉의 내용 파악을 잘못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의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의미 설명】 ① 〈가〉의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다. 【〈나〉를 활용한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이점 설명】 ② 〈나〉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을 그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으로만 이해한다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경제학이나 심리학의 다양한 시도들은 객관적인 근거를 잃게 된다. ③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기술 개발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실제로 생체 신호 측정,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로젝트는 인간 삶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의 실증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그에 의지해 인간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인간의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한다. 【〈다〉를 활용한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한계 설명】 ④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오늘날의 첨단 기술은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행복에 관한 자기 보고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게 해 줄 수단으로서 빅 데이터나 SNS 같은 새로운 기술은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새로운 감시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 ⑤ 본래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기술 발전을 통해 인간이 더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면, 프로젝트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위험한 전략으로 탈바꿈될 수도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과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은 충족하였으나 ④, ⑤(프로젝트의 한계)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②, ③(프로젝트의 이점)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③, ⑤를 충족하였으나 ②, ④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④를 충족하였으나 ③, ⑤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②, ③, ④, ⑤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①이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의 내용이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2-1.

〈나〉에는 행복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나온다. 하나는 행복이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방법이 동원된다면 행복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의 ‘행복의 섬’에서는 생체 신호의 기록,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시인은 그러한 시도에 대해 회의적이다. 행복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시인이 〈나〉에서 나온 행복에 관한 상대주의적 입장이라면, 왕세자는 행복도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313자)

2-2.

인간은 언제나 행복하기를 꿈꾼다.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려는 시도이자 노력이다. 만약 〈나〉에 나온 것처럼 행복이 그저 상대적인 감정이고 그래서 측정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면, 심리학이나 경제학 연구를 통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려는 다양한 노력은 그 의미와 객관적인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행복의 섬’에서는 첨단 기술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려고 시도한다. 그런 점에서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려는 다양한 노력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할 기술을 더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가 오늘날 빅 데이터나 SNS와 같은 첨단 기술과 만날 때, 사회를 감시 사회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다〉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에 관한 자기 보고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을 감시하고 조작하는 통제 기술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인간을 이해하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인간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606자)

2-3. 문항카드 ③ 〈인문계열 2회차 1번 문항〉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문화, 한국지리
	핵심개념 및 용어	도시화, 공간 불평등,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1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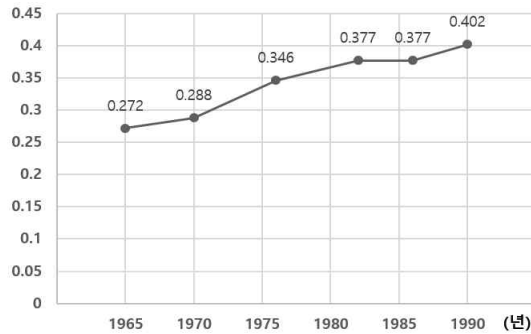
장병만 씨의 고향은 전라북도 완주군의 어느 작은 마을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중학교를 마친 뒤부터 줄곧 농사를 지어온 농부성이었다. 1,200평 정도의 논과 400평 정도의 밭농사였는데, 그나마 자기 땅이 아니라 소작농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농사일이 너무나 힘들고 뼈빠지게 일해 봐야 빚밖에 남지 않는 희망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1964년 그의 나이 서른한 살 때 식솔을 이끌고 무작정 상경을 감행했노라고 했다.

“이불 보파리 하나만 달랑 들고 야간열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때 참 청운의 꿈이 있었지요, 서울에 오면 뭔가 새 인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그는 다른 이농민들이 그렇듯 도시 빈민층에 편입되었다. 판잣집이라도 얻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 행세를 하였지만, 그는 셋방살이로 서울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무수히 많은 직업들을 전전했다. 막노동은 물론이고 전철이나 버스칸에서 때 빼는 약이니 지갑이니 하는 것을 파는 세일즈 일도 해보았고, 떠돌이 약장사를 따라다니기도 했으며, 잘만 하면 목돈을 만진다는 소문에 복덕방 거간꾼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자기가 들어가 살 수도 없으면서 마치 자신의 집을 매매하듯이 열정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곤 했던 것이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는 서울에 올라오면서 품었던,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리라는 꿈, 이를테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생을 벗어나고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가슴 벅찬 그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번번이 그 새로운 인생은 오지 않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늘 제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후배가 그에게 말했다. “이미 엄청나게 확대되고 단단해진 이 자본주의 체제가 그런 영성하기 짝이 없는 장 선생님의 꿈을 허락

해줄 리가 없는 거지요.” 무심코 내뱉은 후배의 말에, 판자촌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는 결정에 따라 그곳마저 빈손으로 쫓겨날 상황에 처한 장병만 씨는 두 눈으로 분노를 쏟아낼 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림 1]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 추이

* 소득 지니계수 :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계수로,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해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해짐.

학력 연령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 이상	전체
전체	147,571	194,525	245,028	317,214	200,274
20대	137,073	181,272	198,858	265,357	182,193
30대	141,786	192,460	248,718	310,692	201,997
40대	146,862	205,867	288,927	335,550	205,946
50대	165,713	255,101	323,960	418,467	233,320

[표 1] 1985년도 연령대/학력별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단위: 원)

〈나〉

고층 건물은 도시 공간에서 부자들이 빈자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고층 건물은 그 자체로 젠트리파이어(gentrifier),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한국의 대도시에서 오래된 주택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일은 우리가 흔히 보아온 일이며, 그 연장선에서 고층 건물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계급 전쟁의 무기로 기능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무기가 정당화되는 방식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로 잘 알려진 지리학자 닐 스미스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을 독특하게 규정했던 프런티어(frontier)의 개발이 서부에서 동부 도시로 이동해 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적한다. “서부의 평원과 산맥, 숲에 적용되던 황야와 프런티어의 이미지는 이런 장소들이 멀끔하게 문명화되고 난 20세기 후반기에는

미국 동부 도시에 더 많이 적용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교외화 경험의 일부로서 미국 도심들은 ‘도시의 황야’로 인식되었다. 즉 과거 미국 도심들은, 그리고 많은 경우 지금도 질병과 무질서, 범죄와 부패, 마약과 위협의 온상이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서부의 ‘원시적이고 위험하며 야만적인’ 황야가 그랬듯이 ‘도시의 황야’ 역시 발전과 확장의 긍정적인 기대가 얹힌 프런티어로 대체되어야 했다. 스미스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표현에는 프런티어 이미지에 대한 호소”가 담겨 있으며, “프런티어 담론은 18, 19세기 서부에서든, 20세기 말 도심 지역에서도 정복 과정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의 말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프런티어의 이미지에 호소하고 프런티어가 “야만과 문명의 접점”으로 불릴 때, 고층 건물이라는 젠트리파이어는 ‘야만’을 몰아내고 ‘문명’을 도심에 끌고 오는 것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빈자를 몰아내고 부자를 데려온다. 황폐=쇠락=위험=야만=정체=빈자로 가득 찬 도시는 풍요=활력=기회=문명=발전=부자로 재편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층 건물이 상징하는 미래적 이미지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즉 고층 건물은 그 자체로 미래로 향하는 발전의 이미지를 도시에 이식함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정당화한다. 고층 건물은 이렇게 빈자를 내쫓는 무기이면서 동시에 부자들이 도피하는 곳이다. 도시의 공중은 사유화되었다. 그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밑바닥’ 삶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발밑 도시를 심미적인 배경으로 소비할 수 있다.

<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이 대규모 도시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로버트 모제스이다. 그는 20세기 뉴욕 도시계획의 중심인물로,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마스터 빌더(Master Builder)’로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다. 모제스의 계획은 뉴욕을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중심의 현대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브루클린-배터리 터널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며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트라이버리 다리는 맨해튼, 브롱크스, 퀸스를 이어주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모제스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근대주의적 도시개발사업자지만 이러한 빛나는 성과 뒤에는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모제스의 재개발은 수천 가구의 강제 이주를 초래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공동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크로스 브롱크스 고속도로 건설로 약 5,000 가구가 철거됐고,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 가정이 거주하던 지역이 파괴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강제 이주는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뉴욕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모제스의 뉴욕 재개발은 1960년대 제인 제이콥스와의 대립으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제이콥스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닌 지역 주민이자 작가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모제스의 도시계획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대표적인 예로 그녀는 도시녹화사업을 설명한다. 공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공원을 만드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이콥스는 공원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시간대나 요일에 따라 다른 타입의 사람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그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평일 아침저녁으로는 회사원이 왕래하고 점심시간에는 런치박스를 들고 벤치를 찾는다. 그 외의 시간에는 작은 아이를 데리고 주부가 찾아오거나 학교가 끝날 시간에는 아이들의 함성이 들려온다. 밤에는 변화가에 나온 사람들

이 모여들거나, 휴일에는 버스킹 연주와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은 일상적으로 공원을 가로지르고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 이러한 다양성은, 공원이 주거시설과 오피스, 상가 등 동선의 일부 속에 위치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사람들의 활기도 중요하다. 평일 점심때만 사람들로 북적이는 오피스가의 공원은 저녁 시간 이후에는 한산해져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즉 도심부에 녹지를 늘린다는 배려만이 아니라 근처에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이나 생활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공원을 만들기는 어렵다. 제이콥스는 불도저로 슬럼을 일소하여 넓은 도로와 고층단지 사이에 조성한 공원은 그것이 아무리 넓고 좋은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금세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시설물이 될 뿐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제이콥스는 모제스 방식의 대규모 도시 재개발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도시의 인간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제이콥스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 소규모 상점, 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도시의 활력을 만든다고 믿었다.

1-1. <가>의 ‘장병만 씨의 꿈’에 대해 [그림 1]과 [표 1]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1-2. <다>의 논지에서 <가>와 <나>에 보이는 ‘도시 재개발’에 대해 평가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도시 계획 및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는 1960년대의 이촌향도와 도시화 과정을 배경으로 저학력, 저소득 계층의 계층 상승 욕망을 묘사하고 있으며, <나>는 도시 재개발의 일종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미국의 프론티어에 빗대어, 부자가 빈자를 쫓아내어 부자와 빈자 사이의 계층 분리와 고착화 과정으로 기술한다. <다>는 도시계획과 도시 재개발을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도시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림]과 [표]를 통해 <가>의 등장인물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해석하고 그 인물의 꿈이 좌절될 가능성을 설명하며, <다>에서 주장하는 인간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가>에서 보이는 빈민촌의 아파트 단지로의 변화와 <나>에서 보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개발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문들 사이의 관련성 파악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제시문 <가>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4-02]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다.	제시문 <가>, <나>
	과목명: 한국지리		관련
	성취 기준 1	[12한지04-03] 주요 대도시를 사례로 도시 계획과 재개발 과정이 도시 경관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녹천에는 똥이 많다	이창동	문학과지성사	1992	20~21	제시문 <가>	○
도시 공간의 SF화	권범철	문화과학사	2022	136~138	제시문 <나>	○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제인 제이콥스	그린비	2010	140~152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이창동, 『진짜 사나이』, 『녹천에는 똥이 많다』 (문학과지성사, 1992)

제시문 <가>는 이창동의 연작 소설집 『녹천에는 똥이 많다』의 수록작 「진짜 사나이」에서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 소설은 한국의 1960년대 이촌향도와 도시화의 전형적인 과정을 배경으로 하면서 소설의 주인공인 장병만 씨의 사례를 통해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 즉 빈부의 계층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장병만씨는 빈농 출신으로 중학교만 졸업하고 1960년대 30대 나이에 서울로 상경한다. 소설에서 그는 도시 빈민층에 편입되고 사회의 하층 직종에 전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게다가 판자촌의 세입자이기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의 꿈은 가난에서 탈피하여 내집 마련과 같은 희망찬 미래, 즉 개인의 노력을 통해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상승하는 것이지만 저학력, 저소득자인 그가 확대되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그러한 꿈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서술된다.

제시문 <나>

- 권범철, “도시 공간의 SF화”, 『문화과학』 2022 가을호(문화과학사, 2022)

제시문 <나>는 고층 건물을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으로 보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고층 건물의 상징적 의미를 미국의 ‘프런티어’ 이미지와 접속시켜 프런티어 담론이 ‘야만을 몰아내는 문명화’라는 의미를 지녔듯이, 고층 건물이 ‘도시의 황야’를 몰아내는 발전과 확장의 의미가 부여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프런티어 담론을 통해 의미 부여되는 것은 빈자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부자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것이다. 이 글의 저자는 이처럼 고층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부자가 빈자를 내쫓는 과정이라고 보면서 그 정복 과정을 합리화하는 발전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시문 <다>

-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제시문 <다>는 인간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재개발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작가이자 시민운동가인 제인 제이콥스의 글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글에서는 뉴욕의 도시계획 및 도시 재개발의 중심인물이었던 로버트 모제스의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 논리가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개발이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한 방향에 대한 저항으로서 대표적으로 제인 제이콥스의 지역 거주민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제이콥스는 공원의 예를 통해 도시의 생명력은 다양한 계층과 활동이 공존하는 일상적 교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모제스식의 ‘불도적’식 도시개발은 그러한 인간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해체를 불러오는 개발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 논제의 구성

1-1. <가>의 ‘장병만 씨의 꿈’에 대해 [그림 1]과 [표 1]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가>의 ‘장병만 씨의 꿈’

- 장병만 씨의 꿈 : 장병만 씨는 빈농 출신으로 1960년대 30대의 나이에 이촌향도하여 도시 빈민층에 편입된 인물. 장병만 씨는 저학력에 사회의 저변 직업을 전전하지만 희망찬 미래를 그리면서 열심히 일하면 계층의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함.
- 소설의 배경 설명 : <가>에서는 196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심과 주변 사이에 계층적 구별이 ‘도시 빈민층에 편입’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으며,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라는 사회적 약자가 무일품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제하는 자본주의적 개발논리를 설명한다.

[그림 1]의 설명

- [그림 1]은 196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지니계수를 통해 밝히고 있다. 1965년 0.272에서 1990년 0.402로 상승하여 25년 사이에 0.130만큼 큰폭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1]의 설명

- [표 1]은 1985년도 연령대별, 학력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에 따른 비교로 볼 때, 전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월평균소득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50대 연령에 대비해 보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월평균소득 차이는 2.5배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과 [표 1]을 장병만 씨의 사례에 적용

- [그림 1]과 [표 1]은 장병만 씨에게 적용되는 정보들이다. [그림 1]로 볼 때, 장병만 씨가 상경한 이후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악화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표 1]로 볼 때, 1985년에는 장병만 씨가 50대에 속하며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소득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크게 차이가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적용할 때 개인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을 이루려는 장병만 씨의 꿈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 <다>의 논지에서 <가>와 <나>에 보이는 ‘도시 재개발’에 대해 평가하시오.

(600±60자)

<다>의 논지

- 로버트 모제스식의 도시계획 및 도시 재개발은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그 부작용으로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 제인 제이콥스는 인간적 관계와 생활의 다양성이 살아 있는 도시를 이상으로 제시하며,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를 비판한다. 제이콥스는 공원의 예를 통해 도시의 생명력은 다양한 계층과 활동이 공존하는 일상적 교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가>에서 묘사하는 도시 재개발

-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촌향도와 빈부 계층 차이를 보여주며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라는 사회적 약자가 희생을 강제당하는 묘사를 통해 계층 차이가 고착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의 확장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에서 기술하는 도시 재개발

- <나>에서는 고층 건물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으로서, ‘야만을 몰아내는 문명화’라는 프런티어 담론을 통해 부자들의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도시 재개발은 외형적 발전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빈자의 공간적 구별을 고착시키고 부자의 승리를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의 논지에서 <가>와 <나>의 도시 재개발 평가

- <다>의 논지에서 보면 <가>와 <나>의 도시개발은 자본주의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논리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발전은 외형적 고도화나 자본의 집중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며 일상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에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의 '장병만 씨의 꿈' 설명】 ① 장병만 씨는 빈농 출신으로 1960년대 30대의 나이에 이촌향도하여 도시 빈민층에 편입된 인물. 장병만 씨는 저학력에 사회의 저변 직업을 전전하지만 희망찬 미래를 그리면서 열심히 일하면 계층의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함. ② 소설의 배경으로, 〈가〉에서는 196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심과 주변 사이에 계층적 구별이 '도시 빈민층에 편입'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으며,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라는 사회적 약자가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제하는 자본주의적 개발논리를 설명하고 있음. 【[그림 1]의 설명】 ③ [그림 1]은 196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지니계수를 통해 밝히고있다. 1965년 0.272에서 1990년 0.402로 상승하여 25년 사이에 0.130만큼 큰폭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줌. 【[표 1]의 설명】 ④ [표 1]은 1985년도 연령대별, 학력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에 따른 비교로 볼 때, 전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월평균소득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50대 연령에 대비해 보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월평균소득 차이는 2.5배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음. 【[그림 1]과 [표 1]을 장병만 씨의 사례에 적용】 ⑤ [그림 1]과 [표 1]은 장병만 씨에게 적용되는 정보들이다. [그림 1]로 볼 때, 장병만 씨가 상경한 이후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악화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표 1]로 볼 때, 1985년에는 장병만 씨가 50대에 속하며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소득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크게 차이가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적용할 때 개인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을 이루려는 장병만 씨의 꿈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며,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하며,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세 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의 논지】 ① 로버트 모제스식의 도시계획 및 도시 재개발은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그 부작용으로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② 제인 제이콥스는 인간적 관계와 생활의 다양성이 살아 있는 도시를 이상으로 제시하며,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를 비판한다. 제이콥스는 공원의 예를 통해 도시의 생명력은 다양한 계층과 활동이 공존하는 일상적 교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가〉에서 묘사하는 도시 재개발】 ③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촌향도와 빈부 계층 차이를 보여주며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라는 사회적 약자가 희생을 강제당하는 묘사를 통해 계층 차이가 고착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의 확장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가 기술하는 도시 재개발】 ④ 〈나〉에서는 고층 건물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으로서, '야만을 몰아내는 문명화'라는 프런티어 담론을 통해 부자들의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도시 재개발은 외형적 발전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빈자의 공간적 구별을 고착시키고 부자의 승리를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의 논지에서 〈가〉와 〈나〉의 도시 재개발 평가】 ⑤ 〈다〉의 논지에서 보면 〈가〉와 〈나〉의 도시개발은 자본주의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논리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발전은 외형적 고도화나 자본의 집중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며 일상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에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⑤를 충족하였으나, ①, ②, ③, ④ 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⑤를 충족하였으나, ①, ②, ③, ④ 중 하나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하며,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세 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1.

〈가〉에서 장병만 씨의 사례는 1960년대 도시화 과정의 전형적인 것으로 중졸 학력의 그는 도시 빈민층에 편입되었다가 재개발 과정에서 그곳에서마저 쫓겨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꿈은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림 1]에서는 196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1]에서는 장병만 씨가 속한 50대의 학력별 임금격차가 중졸이하에 비해 대졸이상이 2.5배 이상을 보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볼 때 장병만 씨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318자)

1-2.

〈다〉에서 제인 제이콥스는 로버트 모세스식의 근대적 도시계획이 대규모 재개발과 강제 이주를 초래하며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파괴한다고 비판하며,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며 일상적 관계를 이어가는 도시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한다.

〈가〉에서 장병만 씨의 묘사는 이촌향도와 도시화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학력 저소득층의 도시 생활자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없이 축출되는 계층 불평등의 심화 과정을 보여준다. 〈나〉의 고층건물은 젠트리피케이션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부자들은 도심의 상층부로 올라가며 ‘밀바닥 삶’을 심미적 배경으로 소비하고, 빈자들은 점점 도시에서 밀려난다. 고층건물이라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에 대해, ‘야만을 몰아내는 문명화’라는 프런티어 담론을 결부시키는 것은 “불도저식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일 뿐이다.

따라서 제이콥스의 논지에서 보면 〈가〉와 〈나〉의 도시 재개발은 자본주의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논리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계층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도시의 진정한 발전은 외형적 고도화나 자본의 집중이 아니라, 도시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여 도시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 만드는 데에 있다. (607자)

2-4. 문항카드 ④ 〈인문계열 2회차 2번 문항〉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독서,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비유, 출세, 욕망, 장자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가〉

우언(寓言)은 짧고 날카로워 문학 속의 기마병이다. 동물이나 허구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인간의 삶을 빗대어 간결하게 표현한다. 중국의 문인 유종원이 남긴 우언은 비록 양은 많지 않으나 전형적인 형상을 이루었다. 그의 작품들은 시대의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서 사회 현상과 인간의 속성을 신랄하게 묘사했다. 그의 대표작인 〈부판전〉에서 풍자하는 인간 속성의 두 가지 측면을 보자.

부판(蝨蟬)이라는 놈은 짐을 잘 지는 작은 벌레이다. 길을 가다가 무슨 물건이라도 맞닥뜨리면 주워서 머리로 들어 올려 등에 진다. 물건이 무거워 지극히 힘들어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다. 그 등은 꺾끄러워 물건들이 쌓이면 흩어지지 않아, 끝내 얹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모습을 가련하게 여겨 그 짐을 치워 주어서 걸을 수 있게 되어도, 또다시 가져다가 전과 마찬가지로 들어 올려 등에 짊어진다. 게다가 그 놈은 높은 곳에 기어오르기를 좋아하여 힘이 다 빠질 때까지도 멈출 줄을 몰라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 죽고 만다. 비록 덩치가 커다란 사람이라는 존재들도 이 작은 벌레의 지혜와 같다.

〈나〉

“내가?” 나는 웃었다.

“예, 형님하고 형님 동기 중에서 조(趙)형 하고요.”

“조라니,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애 말인가?”

“예, 그 형이 재작년엔가 고등고시에 패스해서 지금 여기 세무서장으로 있거든요.”

“아, 그래?”

“모르셨어요?”

“서로 소식이 별로 없었지. 그 애가 옛날엔 여기 세무서에서 직원으로 있었지, 아마?”

“예”

“그거 잘됐군. 오늘 저녁엔 그 친구에게나 가볼까?”

친구 조는 키가 작았고 살결이 검은 편이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살결이 창백한 나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내게 곧잘 했었다.

‘옛날에 손금이 나쁘다고 판단 받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손금을 파가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그 소년은 성공해서 잘살았다.’

조는 이런 얘기에 가장 감격하는 친구였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술 한 잔씩을 마시고 나서 세무서장이 된 조의 집을 향하여 갔다. 거리는 어두컴컴했다. 다리를 건널 때 나는 냇가의 나무들이 어슴푸레하게 물속에 비춰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게 여전하군.” 내가 말했다.

“그렇까요?” 후배가 웅얼거리듯이 말했다.

조의 응접실에는 손님들이 네 사람 있었다. 나의 손을 아프도록 쥐고 흔들고 있는 조의 얼굴이 옛날보다 윤택해지고 살결도 많이 하얘진 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

“어서 자리로 앉아라. 이거 원 누추해서…. 빨리 마누랄 얻어야겠는데…”

그러나 방은 결코 누추하지 않았다.

...(중략)...

집에는 세무서장인 조가 보낸 쪽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 일 없으면 세무서로 좀 들려주세요.’ 아침밥을 먹고 나는 세무서로 갔다. 이슬비는 그쳤으나 하늘은 흐렸다. 나는 조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서장실에 앉아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아니 내가 비꼬아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고쳐 생각하기로 했다.

조는 러닝샤쓰 바람으로, 바지는 무릎 위까지 걷어붙이고 부채를 부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초라해 보였고 그러나 그가 흰 카바를 씌운 회전일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몸짓을 해 보일 때는 그가 가엾게 생각되었다.

“바쁘지 않나?” 내가 물었다.

“나야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 높은 자리라는 건 책임진다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으면 되는 모양이지.”

그러나 그는 결코 한가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서류에 조의 도장을 받아갔고 더 많은 서류들이 그의 미결함에 쌓여졌다.

“월말에다가 토요일이 되어서 좀 바쁘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그 바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다〉

김 군은 나의 벗이다. 그가 시냇가의 푸른 소나무 숲속 산기슭 한 곳을 구해 조그만 정자를 지었다. 각 모서리에 기둥을 세워 가운데는 비워두고 풀로 지붕을 얹고 대나무를 엮어 벽을 만드니, 멀리서 보면 깃으로 지붕을 꾸민 그림배 같았다. 이 정자를 휴식할 곳으로 삼고서 선생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그대는 장주(莊周)의 우언(寓言)을 들어보았는가. 장주가 ‘옛날에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햇빛 아래에서 도망쳤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더니만 나무 그늘에 들어가자 그림자가 돌연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대개 그림자라는 것은 한결같이 사람의 형체를 따르는 것이니,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그림자도 고개를 숙이고, 사람이 고개를 치켜들면 그림자도 고개를 치켜들며, 그 밖의 오고가는 행동을 오로지 형체가 하는 대로 따른다. 그러나 그늘 아래와 밤에는 없어지고 불빛 아래와 낮에는 살아나니, 사람의 처신도 이와 유사하다. 사람이 태어날 때 조물주에게서 형체를 받으니, 조물주가 사람에게 장난치는 것이 어찌 형체가 그림자를 부리는 것 정도에 그치겠는가.

그림자가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것은 형체의 처분에 달렸고, 사람이 천변만화하는 것도 조물주의 처분에 달렸다. 사람된 자는 당연히 조물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니 내가 무슨 간여할 것이 있겠는가. 아침에 부유했다가 저녁에 가난해지고, 예전에 귀한 사람이었다가 지금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모두 조물주가 풀무질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이다. 나의 한 몸으로 본다면, 예전에 높은 관을 쓰고 조정을 출입했다가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숲과 골짜기를 거닐고, 조정의 어진 신하와 단절하고 고라니며 사슴과 짝이 되었다. 이 모두가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장난을 쳐서 그렇게 되는데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니, 이에 대해 무슨 기뻐하고 성낼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김 군이 말하기를,

“그림자는 진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선생의 경우는 인생의 실의와 득의가 자신에게 달렸으니 세상에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밝은 시대를 만났으면서도 재능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선생이 대답하기를,

“흐름을 타면 가고 구덩이를 만나면 그치는데, 가고 그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산림에 들어온 것은 하늘의 뜻이니, 비단 그림자를 실 뿐만이 아니라 서늘한 바람을 타고 조물주와 벗이 되어 까마득히 먼 들판에 노닐고 그늘 속으로 사라지면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 터이니, 식영(息影, 그림자를 쉼)으로 이름하면 안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김 군이 말하기를,

“이제야 선생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적어 주시면 정자의 이름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2-1. <가>에 나타난 부판의 ‘지혜’를 요약하고 <나>의 한 인물에 적용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에 삽입된 우언에서 보이는 운명에 대한 관점을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와 연관지어 기술하고, 각 인물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논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문학의 함축적 의미를 읽어 내는 힘, 문학 속에 나타난 인물들이 지닌 서로 다른 가치관을 파악하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가〉에는 우연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고 이에 맞춰 〈부판전〉이라는 실제 작품을 하나 수록하였다. 작품은 부판이라는 별레의 습성을 두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끝없는 소유 욕망과 출세 욕망’을 비유하고 있다. 1번 문항에서는 이 습성들이 〈나〉에 나타난 인물과 어떤 유사성을 묻고자 하였다.

〈나〉와 〈다〉에는 우연들이 하나씩 삽입되어 있다. 이 우연들은 서로 반대되는 운명에 대한 관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운명에 대한 관점들은 작품 속의 각 인물들이 삶의 태도의 준거가 되고 있다. 〈나〉에 나타난 조의 삶의 태도, 〈다〉에 나타난 선생의 삶의 태도를 이와 연관짓고, 서로의 시각으로 상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2번 문항에서 묻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제시문 〈가〉, 〈다〉
	성취 기준 2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나〉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가〉, 〈나〉. 〈다〉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2-06] 노자와 장자 사상을 탐구하여 도가적 세계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도교의 성립 및 한국 고유사상과의 융합을 조사하여 우리 전통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중국우언문학사	천푸칭	소나무	1994	235	제시문〈가〉	○
다산성-김승옥 대표작품선	김승옥	한겨레	1995	292~316	제시문〈나〉	○
식영정기의 우언 글쓰기와 문학사적 의의	조상우	온지학회	2007	111~112	제시문〈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천푸칭, 「부판전」, 『중국우언문학사』 (소나무, 1994)

제시문 〈가〉는 천푸칭의 『중국우언문학사』에 수록된 유종원의 「부판전」을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우언은 동물이나 허구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인간의 삶에 대한 풍자와 교훈을 표현하고자 하는 글로, 제시된 우언은 부판이라는 작은 벌레가 가진 습성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글이다.

제시문 〈나〉

- 김승옥, 「다산성 - 김승옥 대표작품선」 (한겨레, 1995)

제시문 〈나〉는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일부이다. 주인공은 고향 무진으로 잠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기간에 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동창 ‘조’를 만나게 된다. 세무서원이었다가 고등고시를 통과하여 세무서장이 된 ‘조’는 부와 출세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이다. 자기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손금을 그려가며 성공한 소년의 우언을 좋아하는 ‘조’는 더 많은 부와 높은 지위를 위해 설새 없이 일하고 또 그것을 즐긴다. 제시문은 이러한 ‘조’의 삶의 태도를 중심으로 발췌되었다.

제시문 〈다〉

- 조상우, “식영정기의 우언 글쓰기와 문학사적 의의”, 『온지논총』 16집 (온지학회, 2007)

제시문 〈다〉는 “식영정기의 우언 글쓰기와 문학사적 의의”에 수록된 임억령의 〈식영정기〉를 재구성한 글이다. 〈다〉에 삽입된 장주(장자)의 우언(그림자를 피해 도망갔으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었고, 그늘 속에 들어가서야 그림자를 피할 수 있었던 인물)과 식영의 개념을 통해 ‘선생’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논제의 구성

2-1. <가>에 나타난 부판의 '지혜'를 요약하고 <나>의 한 인물에 적용하시오. (300±30자)

이 문항은 지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할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가>에 수록된 <부판전>에는 부판이라는 별례의 행동 습성이 나타나 있다. 가다가 보이는 모든 것을 등에 올리는 습성, 높은 곳에 오르기 좋아하는 습성이 그것이다. 이는 인간의 습성을 풍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 보자면 전자는 끝없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후자는 끝없는 출세에 대한 욕망이 된다. 부판은 <나>의 '조'에 적용될 수 있다. 조는 세무서원이었다가 열심히 공부하여 세무서장이 된 인물로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졌고, 지위도 점차 높아진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에 대해 단념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서류가 미결함에 쌓일 정도로 버거운 일에 시달리는데, 여전히 그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끝없는 출세에 대한 욕망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2. <나>와 <다>에 삽입된 우언에서 보이는 운명에 대한 관점을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와 연관지어 기술하고, 각 인물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논하시오. (600±60자)

이 문항 또한 지문의 관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할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나>와 <다>에는 우언이 하나씩 삽입되어 있다. 손금을 그려가면서 성공한 소년의 우화와, 그림자를 피해 도망갔으나 피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늘 속에 들고서야 그림자를 피할 수 있었던 어떤 인물의 우화가 그것이다. 이는 '조'와 '선생'의 운명에 대한 관점 및 삶의 태도와 연관되는데 손금을 그리던 소년의 우화는 '운명은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조에 대응하며, 그림자를 피하려는 사람의 우화는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운명에 순응할 때 비로소 삶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선생에 대응한다.

한편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하는 '조'의 시각과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순응해야 한다는 '선생'의 시각은 대립되는 면이 있다. 조는, 선생의 태도에 대해 운명은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선생과 같이 사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논할 수 있고, 선생은 조의 태도에 대해 운명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금은 잘 나가는 듯이 보일지라도 언제라도 새로운 운명의 흐름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라 논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판의 지혜(반어적, 어리석은 행동)와 인간의 욕망을 연계지어 파악할 수 있어야 함】 ① 길 가다가 보이는 모든 것을 등에 짐 → 소유에 대한 욕망 ② 높은 곳에 오르기 좋아함 → 출세에 대한 욕망 【인물에 대한 적용】 ③ '조'에 적용할 것. ④ 부판의 소유에 대한 욕망을 '조의 부에 대한 욕망'에 연관시킴. ⑤ 부판의 출세에 대한 욕망을 '조의 출세에 대한 욕망'에 연관시킴.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④, ⑤를 충족하고 ③이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④, ⑤를 충족하고 ③이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3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연에 나타난 운명에 대한 관점의 파악】 ① <나> 우연의 핵심 : 나쁜 손금을 좋게 파면서 노력하여 성공하였듯이, 운명은 개척할 수 있다. ② <다> 우연의 핵심 : 그림자가 늘 따라 붙듯이 운명은 피할 수 없고, 그늘속에 들어가면 사라지듯이 순응함으로써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 ③ ‘조’의 삶의 태도 : 나쁜 손금을 좋은 손금으로 파면서 성공한 우화처럼, 열심히 노력하여 세무서 직원에서 세무서장으로 출세할 수 있었고 검은 얼굴도 윤택하게 바뀔 수 있었다. ④ ‘선생’의 삶의 태도 : 그림자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그늘로 들어와서 그림자를 쉬게할 수 있었듯이, 선생도 운명의 흐름을 타고 속세를 벗어나 지금 산림에 들어와 있다. 【서로의 태도에 대한 논함】 ⑤ ‘조’의 시각에서 ‘선생’을 볼 때 : 인생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선생처럼 사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라 논할 수 있다. ⑥ ‘선생’의 시각에서 ‘조’를 볼 때 :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그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명의 한 때가 그렇기 때문인 것이며, 운명의 또다른 흐름이 오면 그대도 운명의 급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논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 ⑥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 ⑥ 중 하나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2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2개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3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4개 이상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2-1.

부판의 지혜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자신의 등에 올리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것’과 ‘높은 곳에 오르길 좋아하다가 결국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끝없는 소유욕과 출세욕을 풍자하고 있다. 이 두 속성은 <나>에 나온 ‘조’의 삶에 적용된다. 조는 세무서 직원에서 시작하여 세무서장이 된 인물인데, 현재 부를 축적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세무서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설새 없이 일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는 부판이 지닌 두 속성과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323자)

2-2.

<나>의 우연은 손금이 나뉘던 친구가 손톱으로 좋은 손금을 그려 성공한다는 것이고, <다>의 우연은 그림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림자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그늘에서 그림자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의 우연은 손금을 인위적으로 그림으로써 성공한다는 내용을 통해 운명은 개척 가능한 것이란 관점을 보여주고, <다>의 우연은 그림자는 그늘 아래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임을 말함으로써 인간은 운명에 순응할 때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관점을 보여준다.

조의 삶의 태도는 <나>에 나타난 우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즉,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라 믿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선생의 삶의 태도는 <다>의 우화와 닮아있다. 선생은 운명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늘 속에서 쉬라는 우화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그가 산림에 들어가 머무는 행위는 운명을 긍정하며 그늘로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둘은 서로의 시각에서 논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는 조의 시각에서는 운명에 쉽게 순응하는 선생의 방식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삶으로 비칠 수 있으며, 운명의 큰 흐름을 보고 있는 선생의 시각에서는 조의 성공이 일시적인 것일 뿐 언제라도 급변하는 운명의 흐름을 탈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645자)

2-5. 문항카드 ⑤ <자연계열(약학부 제외) 1, 2, 3번 문항>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약학부 제외) / 문항 1-1, 1-2, 2-1, 2-2, 3-1, 3-2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핵심개념 및 용어	함수의 연속, 사잇값 정리, 평균값 정리, 귀류법, 역함수, 정적분, 접선, 수열의 극한, 이차부등식
예상 소요 시간	90 분 / 전체 100 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f(a) \neq f(b)$ 이면, $f(a)$ 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 에 대하여 $f(c) = k$ 인 c 가 열린구간 (a, b)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나>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열린구간 (a, b) 에서 미분가능하면

$$\frac{f(b) - f(a)}{b - a} = f'(c)$$

인 c 가 열린구간 (a, b)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도 된다. 이와 같이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한다.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1. 이차함수 $y = x^2 + a$ 와 무리함수 $y = \sqrt{x+1}$ 이 열린구간 $(1, 3)$ 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 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1-2. 함수 $f(x)$ 가 닫힌구간 $[0, 1]$ 에서 연속이고 열린구간 $(0, 1)$ 에서 미분가능한 함수라고 하자. 함수 $f(x)$ 가 열린구간 $(0, 1)$ 에 있는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 1$ 을 만족시킬 때, $f(c) = 2c$ 인 c 의 개수가 닫힌구간 $[0, 1]$ 에서 하나 이하로 존재함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라>

두 직선 $l: y = mx + n$, $l': y = m'x + n'$ 에 대하여 l 과 l' 이 서로 수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mm' = -1$$

거꾸로 $mm' = -1$ 이면 l 과 l' 은 서로 수직이다.

<마>

두 함수 $f(x)$ 와 $g(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두 곡선 $y = f(x)$, $y = g(x)$ 및 두 직선 $x = a$, $x = b$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 는 다음과 같다.

$$S = \int_a^b |f(x) - g(x)| dx$$

제시문 <라>와 <마>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자연수 n 에 대하여 이차함수 $y = nx^2$ 위의 점 $P_n(a_n, b_n)$ 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점 $(0, 1)$ 을 지난다고 가정하자. (단, $a_n > 0$ 이다.)

2-1. a_n 과 b_n 을 각각 구하시오.

2-2. 이차함수 $y = nx^2$ 과 x 축 및 이차함수 $y = nx^2$ 위의 점 $P_n(a_n, b_n)$ 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A_n 이라고 하자. 이때 $\lim_{n \rightarrow \infty} \frac{A_n}{a_n}$ 의 값을 구하시오.

<바>

함수 $f: X \rightarrow Y$ 가 일대일대응이면 Y 의 각 원소 y 에 대하여 $y=f(x)$ 인 X 의 원소 x 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때 Y 의 각 원소 y 에 $y=f(x)$ 인 X 의 원소 x 를 대응시키면 Y 를 정의역, X 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 함수를 함수 f 의 역함수라 하고, 기호로

$$f^{-1}: Y \rightarrow X, x=f^{-1}(y)$$

와 같이 나타낸다.

<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삼차함수 $f(x)=ax^3+bx^2+cx+d$ ($a \neq 0$)가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a > 0$ 이면 도함수 $f'(x)$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f'(x) \geq 0$ 을 만족시킨다.
2. $a < 0$ 이면 도함수 $f'(x)$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f'(x) \leq 0$ 을 만족시킨다.

제시문 <바>와 <사>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함수 $f(x)=x^3+2x+4$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삼차함수이다.

3-1. 삼차함수 $f(x)$ 의 역함수가 존재함을 보이고, 역함수 f^{-1} 에 대하여

$f^{-1}(t^2+5t+1)=t-1$ 을 만족시키는 실수 t 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3-2. 삼차함수 $f(x)$ 의 역함수 f^{-1} 에 대하여 $f^{-1}(t^2+2)+f^{-1}(t^2-2)=0$ 을

만족시키는 실수 t 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3. 출제 의도

함수, 이차방정식, 함수의 미분과 적분, 도함수의 활용, 정적분, 합성함수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본 문제들은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들로부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문제들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문들을 읽고 함수의 합성, 함수의 그래프, 접선의 방정식, 이차방정식, 연립방정식, 정적분, 역함수 등에 대한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기준
제시문 〈가〉, 〈나〉, 〈다〉	[12수학II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12수학II01-04]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1-1	[10수학01-16] 이차부등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10수학04-05] 무리함수 $y = \sqrt{ax+b}+c$ 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II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12수학II01-04]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1-2	[10수학03-07]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12수학II02-07]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이해한다.
제시문 〈라〉, 〈마〉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 [12수학II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문제 2-1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 [12수학II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2미적02-11]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문제 2-2	[12수학I03-01] 수열의 뜻을 안다. [12수학II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II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12미적01-02]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12미적02-11]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제시문 〈바〉, 〈사〉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II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 3-1	[10수학01-12] 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II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 3-2	[10수학01-12] 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황선욱 외 8인	미래엔	2020	69~81, 83~85, 128~131, 199~209, 227~230, 243~251
	고등학교 수학	이준열 외 9인	천재교육	2020	76~79 86~98, 122~132, 206~208, 248~252
	고등학교 수학Ⅰ	권오남 외 14인	교학사	2020	116~117
	고등학교 수학Ⅰ	황선욱 외 8인	미래엔	2020	121~122
	고등학교 수학Ⅰ	홍성복 외 10인	지학사	2020	30~48, 62~73, 78~82
	고등학교 수학Ⅰ	황선욱 외 8인	미래엔	2020	30~48, 61~67, 76~81
	고등학교 수학Ⅰ	권오남 외 14인	교학사	2020	66~77, 142~148
	고등학교 미적분	황선욱 외 8인	미래엔	2020	166~179
	고등학교 미적분	김원경 외 14인	비상교육	2020	10~26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에서는 연속함수의 성질 중 하나인 사잇값 정리를 소개한다. <문제 1-1>에서는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f(a)$ 와 $f(b)$ 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사잇값의 정리에 의하여 방정식 $f(x)=0$ 은 a 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유도하고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도함수의 활용 중 평균값 정리를 소개한다. 제시문 <다>에서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인 귀류법을 소개한다. <문제 1-2>에서는 평균값 정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귀류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라>에서는 두 직선이 수직인 조건을 소개한다. <문제 2-1>에서는 자연수 n 에 대하여 이차함수 $y=nx^2$ 위의 점 $P_n(a_n, b_n)$ 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점 $(0, 1)$ 을 지난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a_n 과 b_n 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마>에서는 두 함수 $f(x)$ 와 $g(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두 곡선 $y=f(x)$, $y=g(x)$ 및 두 직선 $x=a$, $x=b$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문제 2-2>에서는 이차함수 $y=nx^2$ 과 x 축 및 이차함수 $y=nx^2$ 위의 점 $P_n(a_n, b_n)$ 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A_n 이라고 할 때, $\lim_{n \rightarrow \infty} \frac{A_n}{a_n}$ 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바>에서는 역함수의 개념을 소개하고, 제시문 <사>에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삼차함수가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을 소개한다. <문제 3-1>과 <문제 3-2>에서는 삼차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함을 보이고, 역함수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1-2	■ 각 세부 문제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1-1>에서 이차함수와 무리함수가 연속함수임을 이해한다. ② <1-1>에서 사잇값 정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③ <1-1>에서 이차부등식을 정확히 풀 수 있다. ④ <1-2>에서 명제의 부정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 ⑤ <1-2>에서 평균값 정리를 이해할 수 있다. ⑥ <1-2>에서 귀류법을 이용하여 명제를 증명할 수 있다.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③과 ⑥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2-2	■ 각 세부 문제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2-1>에서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② <2-1>에서 접선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③ <2-1>에서 a_n 과 b_n 을 정확히 구할 수 있다. ④ <2-2>에서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⑤ <2-2>에서 주어진 영역의 넓이를 적분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⑥ <2-2>에서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③과 ⑥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3-2	■ 각 세부 문제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3-1>에서 도함수를 이용하여 역함수의 존재를 보일 수 있다. ② <3-1>에서 역함수를 이용하여 삼차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③ <3-1>에서 삼차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④ <3-2>에서 역함수의 정의를 사용하여 $f(y) = t^2 + 2$, $f(z) = t^2 - 2$로 표현할 수 있다. ⑤ <3-2>에서 $f(y) - f(z) = 4$를 구할 수 있다. ⑥ <3-2>에서 삼차방정식과 이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③과 ⑥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1.

$f(x) = x^2 + a - \sqrt{x+1}$ 라고 하면 $f(x)$ 는 닫힌구간 $[1, 3]$ 에서 연속이다. 제시문 <가>(사잇값 정리)에 의해 $f(1)f(3) < 0$ 이면 $f(c) = 0$ 인 c 가 열린구간 $(1, 3)$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즉, 이차함수 $y = x^2 + a$ 와 무리함수 $y = \sqrt{x+1}$ 이 열린구간 $(1, 3)$ 에서 만난다.

$f(1) = a + 1 - \sqrt{2}$ 이고 $f(3) = a + 7$ 이므로 $f(1)f(3) < 0$ 에 대입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a+1-\sqrt{2})(a+7) < 0$$

그러므로 실수 a 의 값의 범위는 $-7 < a < \sqrt{2} - 1$ 이다.

참고로 열린구간 $(1, 3)$ 에서 도함수 $f'(x)$ 는 다음을 만족시킨다.

$$\begin{aligned} f'(x) &= 2x - \frac{1}{2\sqrt{x+1}} \\ &= \frac{4x\sqrt{x+1} - 1}{2\sqrt{x+1}} > 0 \end{aligned}$$

따라서 다음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f(1) < 0, f(3) > 0$$

1-2.

귀류법을 사용하기 위해 $f(c_1) = 2c_1$ 이고 $f(c_2) = 2c_2$ 인 서로 다른 c_1, c_2 가 구간 $[0, 1]$ 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c_1 \neq c_2$ 이므로 $c_1 < c_2$ 라고 하자. 함수 $f(x)$ 가 닫힌구간 $[c_1, c_2]$ 에서 연속이고 열린구간 (c_1, c_2) 에서 미분가능하므로 제시문 <나>(평균값 정리)에 의해

$$\frac{f(c_2) - f(c_1)}{c_2 - c_1} = f'(c)$$

인 c 가 열린구간 (c_1, c_2) 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위의 식으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다.

$$f'(c) = \frac{f(c_2) - f(c_1)}{c_2 - c_1} = \frac{2c_2 - 2c_1}{c_2 - c_1} = 2$$

그런데 c 는 열린구간 $(0, 1)$ 에 있고 $f'(c) = 2$ 이므로 함수 $f(x)$ 가 열린구간 $(0, 1)$ 에 있는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 1$ 이라는 사실에 모순이다. 그러므로 $f(c) = 2c$ 인 c 의 개수가 닫힌구간 $[0, 1]$ 에서 하나 이하로 존재한다.

2-1.

이차함수 $y = nx^2$ 위의 점 $P_n(a_n, b_n)$ 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y = 2na_n(x - a_n) + na_n^2$$

이고, 이차함수 $y = nx^2$ 위의 점 $P_n(a_n, b_n)$ 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y = -\frac{1}{2na_n}(x - a_n) + na_n^2$$

으로 주어진다. 또한 이 직선은 점 $(0, 1)$ 을 지나므로

$$1 = \frac{1}{2n} + na_n^2$$

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a_n^2 = \frac{2n-1}{2n^2}$$

을 얻고, 이를 이용하면

$$a_n = \frac{1}{n} \sqrt{\frac{2n-1}{2}}, \quad b_n = \frac{2n-1}{2n}$$

을 얻는다.

2-2.

점 $P_n(a_n, b_n)$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 na_n^2 = 2na_n(x - a_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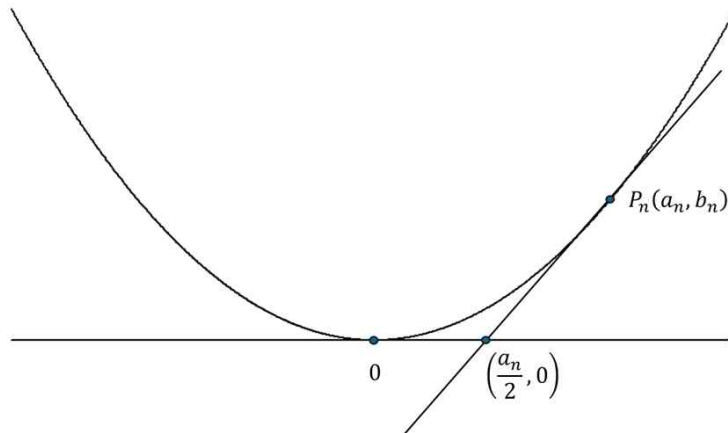
이다. x 축과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 $y=0$ 을 대입하면

$$-na_n^2 = 2na_nx - 2na_n^2$$

을 얻는다. 따라서

$$x = \frac{a_n}{2} > 0$$

이다.



이를 이용하여, 이차함수 $y = nx^2$ 과 x 축 및 이차함수 $y = nx^2$ 위의 점 $P_n(a_n, b_n)$ 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A_n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A_n &= \int_0^{\frac{a_n}{2}} nx^2 dx + \int_{\frac{a_n}{2}}^{a_n} \{nx^2 - (2na_n x - na_n^2)\} dx \\
&= \int_0^{a_n} nx^2 dx - \int_{\frac{a_n}{2}}^{a_n} (2na_n x - na_n^2) dx \\
&= \frac{na_n^3}{3} - na_n \left\{ a_n^2 - \left(\frac{a_n}{2} \right)^2 \right\} + na_n^2 \frac{a_n}{2} \\
&= na_n^3 \left(\frac{1}{3} - \frac{3}{4} + \frac{1}{2} \right) \\
&= \frac{na_n^3}{12} \\
&= \frac{n}{12} \frac{1}{n^3} \left(\sqrt{\frac{2n-1}{2}} \right)^3
\end{aligned}$$

따라서

$$\lim_{n \rightarrow \infty} \frac{A_n}{a_n} = \lim_{n \rightarrow \infty} \frac{\frac{1}{12n^2} \frac{2n-1}{2} \sqrt{\frac{2n-1}{2}}}{\frac{1}{n} \sqrt{\frac{2n-1}{2}}} = \frac{1}{12}$$

이다.

3-1.

도함수 $f'(x) = 3x^2 + 2$ 는 $f'(x) \geq 0$ 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제시문 <사>에 따르면 $f(x)$ 는 역함수를 갖는다. 문제에서 $f^{-1}(t^2 + 5t + 1) = t - 1$ 이므로 $t^2 + 5t + 1 = f(t - 1)$ 이 성립한다. 여기에서 우변의 $f(t - 1)$ 을 주어진 $f(x)$ 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f(t - 1) = t^3 - 3t^2 + 5t + 1$$

를 얻는다. 그러므로

$$t^3 - 3t^2 + 5t + 1 = t^2 + 5t + 1$$

이 되고, 이것을 풀면 $t^2(t - 4) = 0$ 이다. 그러므로 $t = 0$ 또는 $t = 4$ 이다.

3-2.

$f^{-1}(t^2+2)=a$, $f^{-1}(t^2-2)=b$ 라고 하면 $f(a)=t^2+2$, $f(b)=t^2-2$ 이다.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면

$$f(a)-f(b)=4 \quad (1)$$

이다. 식 (1)의 좌변을 계산하면

$$\begin{aligned} f(a)-f(b) &= (a^3+2a+4)-(b^3+2b+4) \\ &= a^3-b^3+2(a-b) \end{aligned} \quad (2)$$

이다. 한편 $f^{-1}(t^2+2)+f^{-1}(t^2-2)=0$ 은 $a+b=0$ 이다. 이를 식 (2)에 대입하면

$$\begin{aligned} f(a)-f(b) &= a^3-(-a)^3+2(a-(-a)) \\ &= 2a^3+4a \end{aligned}$$

이다. 이것과 식 (1)로부터 $a^3+2a=2$ 를 얻는다. 그러므로

$$f(a)=a^3+2a+4=6$$

이다. 또한 $f(a)=t^2+2$ 이므로 $t^2=4$ 이다. 따라서 $t=\pm 2$ 이다.

■ 다른 풀이

함수 $f(x)$ 에 $-x$ 를 대입하면

$$\begin{aligned} f(-x) &= -x^3-2x+4 \\ &= -f(x)+8 \end{aligned} \quad (3)$$

이다. 문제의 조건 $f^{-1}(t^2+2)+f^{-1}(t^2-2)=0$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1}(t^2+2) = -f^{-1}(t^2-2)$$

이것과 식 (3)을 이용하면

$$\begin{aligned} t^2+2 &= f(-f^{-1}(t^2-2)) \\ &= -f(f^{-1}(t^2-2))+8 \\ &= -t^2+2+8 \end{aligned}$$

이다. 따라서 $2t^2=8$ 이고 $t=\pm 2$ 이다.

2-6. 문항카드 ⑥ <자연계열(약학부) 1, 2, 3번 문항>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약학부) / 문항 1-1, 1-2, 2-1, 2-2, 3-1, 3-2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 수학II, 미적분
	핵심개념 및 용어	평균값 정리, 사잇값 정리, 귀류법, 삼각함수, 지수함수, 등비수열, 로그함수, 역함수, 정적분, 도함수, 접선, 방정식과 부등식
예상 소요 시간	90 분 / 전체 100 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f(a) \neq f(b)$ 이면, $f(a)$ 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 에 대하여 $f(c) = k$ 인 c 가 열린구간 (a, b)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나>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열린구간 (a, b) 에서 미분가능하면

$$\frac{f(b) - f(a)}{b - a} = f'(c)$$

인 c 가 열린구간 (a, b)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도 된다. 이와 같이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한다.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1. 이차함수 $y = x^2 + a$ 와 무리함수 $y = \sqrt{x+1}$ 이 열린구간 $(1, 3)$ 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 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1-2. 함수 $f(x)$ 가 닫힌구간 $[0, 1]$ 에서 연속이고 열린구간 $(0, 1)$ 에서 미분가능한 함수라고 하자. 함수 $f(x)$ 가 열린구간 $(0, 1)$ 에 있는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 1$ 을 만족시킬 때, $f(c) = 2c$ 인 c 의 개수가 닫힌구간 $[0, 1]$ 에서 하나 이하로 존재함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라>

두 함수 $y = \sin x$, $y = \cos x$ 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y \mid -1 \leq y \leq 1\}$ 이다. 함수 $y = \sin x$ 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므로 $\sin(-x) = -\sin x$ 이고, 함수 $y = \cos x$ 의 그래프는 y 축에 대해 대칭이므로 $\cos(-x) = \cos x$ 이다. 두 함수 $y = \sin x$, $y = \cos x$ 의 그래프는 2π 간격으로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즉, 임의의 실수 x 에 대하여

$$\sin(x + 2n\pi) = \sin x, \quad \cos(x + 2n\pi) = \cos x \quad (\text{단, } n \text{은 정수})$$

가 성립한다.

<마>

첫째항이 a , 공비가 r 인 등비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S_n 이라고 하면

1. $r \neq 1$ 일 때, $S_n = \frac{a(1-r^n)}{1-r} = \frac{a(r^n-1)}{r-1}$ 이고,

2. $r = 1$ 일 때, $S_n = na$ 이다.

제시문 <라>와 <마>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함수 $f(x) = e^{-x}$ 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지수함수이다.

2-1. $0 \leq x \leq 2\pi$ 일 때, 부등식 $\sin x \leq \frac{1}{2}$ 을 풀고, 해당하는 x 의 값의 범위에

대하여 함수 $f(x)$ 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2-2. $0 \leq x \leq 100\pi$ 일 때, 부등식 $\sin x \leq -\frac{1}{2}$ 에 해당하는 x 의 값의 범위에 대하여 함수

$f(x)$ 의 정적분의 값이 $(e^{\frac{5\pi}{6}} - e^{\frac{\pi}{6}})k$ 가 되는 실수 k 의 값을 구하시오.

<바>

함수 $f: X \rightarrow Y$ 가 일대일대응이면 Y 의 각 원소 y 에 대하여 $y=f(x)$ 인 X 의 원소 x 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때 Y 의 각 원소 y 에 $y=f(x)$ 인 X 의 원소 x 를 대응시키면 Y 를 정의역, X 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 함수를 함수 f 의 역함수라 하고, 기호로

$$f^{-1}: Y \rightarrow X, \quad x=f^{-1}(y)$$

와 같이 나타낸다.

<사>

지수함수 $y=a^x$ ($a>0, a\neq 1$)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일대일대응이므로 역함수를 갖는다. 이때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y=a^x \Leftrightarrow x=\log_a y$$

이므로, $x=\log_a y$ 에서 x 와 y 를 서로 바꾸면 지수함수 $y=a^x$ 의 역함수

$$y=\log_a x \quad (a>0, a\neq 1)$$

를 얻는다. 이 함수를 a 를 밑으로 하는 로그함수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1.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2. $a>1$ 일 때, x 의 값이 증가하면 y 의 값도 증가한다.
3. 그래프는 점 $(1,0)$ 을 지나고, y 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특히, a 가 자연상수 $e=\lim_{x\rightarrow\infty}\left(1+\frac{1}{x}\right)^x$ 인 경우에 자연로그라 하고, $y=\ln x$ 로 나타낸다.

제시문 <바>와 <사>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함수 $f(x)=\ln\sqrt{\frac{1+x}{1-x}}$ 의 역함수를 $y=g(x)$ 라고 하자.

3-1. $x>0$ 에 대하여 $f(x)>x$ 임을 보이시오.

3-2. $y=g(x)$ 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3. 출제 의도

함수, 이차방정식, 함수의 미분과 적분, 도함수의 활용, 정적분, 합성함수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본 문제들은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들로부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문제들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문들을 읽고 함수의 합성, 함수의 그래프, 접선의 방정식, 이차방정식, 연립방정식, 정적분, 역함수 등에 대한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기준
제시문 〈가〉, 〈나〉, 〈다〉	[12수학II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12수학II01-04]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1-1	[10수학01-16] 이차부등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10수학04-05] 무리함수 $y = \sqrt{ax+b}+c$ 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II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12수학II01-04]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1-2	[10수학03-07]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12수학II02-07]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이해한다.
제시문 〈라〉, 〈마〉	[12수학I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수학I03-03]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문제 2-1	[12수학I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미적03-03]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문제 2-2	[12수학I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수학I03-03]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12미적03-03]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제시문 〈바〉, 〈사〉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I01-06]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을 안다.

문제 3-1	[12수학II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미적02-0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문제 3-2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I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미적02-12]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황선옥 외 8인	미래엔	2020	87~101, 199~209, 243~251
	고등학교 수학	이준열 외 9인	천재교육	2020	86~98, 206~208, 233~237, 248~252
	고등학교 수학	김원경 외 14인	비상교육	2020	212~216
	고등학교 수학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육	2020	46~56, 82~92
	고등학교 수학I	권오남 외 14인	교학사	2020	44~54, 80~96, 126~134
	고등학교 수학I	배종숙 외 6인	금성출판사	2020	40~49, 78~86, 134~137
	고등학교 수학II	김원경 외 14인	비상교육	2020	30~39, 74~77, 78~89
	고등학교 수학I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육	2020	29~40, 78~97
	고등학교 수학II	박교식 외 19인	동아출판	2020	81~96
	고등학교 미적분	황선옥 외 8인	미래엔	2020	60~62, 110~117, 136~142
	고등학교 미적분	김원경 외 14인	비상교육	2020	55~57, 99~103, 134~137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에서는 연속함수의 성질 중 하나인 사잇값 정리를 소개한다. <문제 1-1>에서는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f(a)$ 와 $f(b)$ 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사잇값의 정리에 의하여 방정식 $f(x)=0$ 은 a 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유도하고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도함수의 활용 중 평균값 정리를 소개한다. 제시문 <다>에서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인 귀류법을 소개한다. <문제 1-2>에서는 평균값 정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귀류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라>에서는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의 성질을 소개한다. <문제 2-1>에서는 삼각함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을 풀고 해당하는 x 의 값의 범위에 대하여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마>에서는 첫째항이 a , 공비가 r 인 등비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문제 2-2>에서는 삼각함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을 풀고 해당하는 x 의 값의 범위에 대하여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의 값을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바>에서는 역함수의 개념을 소개한다. 제시문 <사>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소개한다. <문제 3-1>에서는 도함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함수가 증가함수임을 보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3-2>에서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1-2	■ 각 세부 문제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1-1>에서 이차함수와 무리함수가 연속함수임을 이해한다. ② <1-1>에서 사잇값 정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③ <1-1>에서 이차부등식을 정확히 풀 수 있다. ④ <1-2>에서 명제의 부정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 ⑤ <1-2>에서 평균값 정리를 이해할 수 있다. ⑥ <1-2>에서 귀류법을 이용하여 명제를 증명할 수 있다.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③과 ⑥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2-2	■ 각 세부 문제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2-1>에서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을 풀 수 있다. ② <2-1>에서 해당하는 x 의 값의 범위에 대하여 함수 $f(x)$ 의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③ <2-1>에서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④ <2-2>에서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을 풀 수 있다. ⑤ <2-2>에서 해당하는 x 의 값의 범위에 대하여 함수 $f(x)$ 의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⑥ <2-2>에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③과 ⑥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3-2	■ 각 세부 문제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3-1>에서 $f(x)$의 정의역을 구할 수 있다. ② <3-1>에서 도함수를 이용하여 $h(x) = f(x) - x$가 증가함수임을 보일 수 있다. ③ <3-1>에서 $h(x) > h(0) = 0$을 이용하여 $f(x) > x$임을 보일 수 있다. ④ <3-2>에서 이계도함수를 이용하여 변곡점을 구할 수 있다. ⑤ <3-2>에서 주어진 함수의 점근선을 구할 수 있다. ⑥ <3-2>에서 $y = x$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하여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③과 ⑥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1.

$f(x) = x^2 + a - \sqrt{x+1}$ 라고 하면 $f(x)$ 는 닫힌구간 $[1, 3]$ 에서 연속이다. 제시문 <가>(사잇값 정리)에 의해 $f(1)f(3) < 0$ 이면 $f(c) = 0$ 인 c 가 열린구간 $(1, 3)$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즉, 이차함수 $y = x^2 + a$ 와 무리함수 $y = \sqrt{x+1}$ 이 열린구간 $(1, 3)$ 에서 만난다.

$f(1) = a + 1 - \sqrt{2}$ 이고 $f(3) = a + 7$ 이므로 $f(1)f(3) < 0$ 에 대입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a+1-\sqrt{2})(a+7) < 0$$

그러므로 실수 a 의 값의 범위는 $-7 < a < \sqrt{2} - 1$ 이다.

참고로 열린구간 $(1, 3)$ 에서 도함수 $f'(x)$ 는 다음을 만족시킨다.

$$\begin{aligned} f'(x) &= 2x - \frac{1}{2\sqrt{x+1}} \\ &= \frac{4x\sqrt{x+1} - 1}{2\sqrt{x+1}} > 0 \end{aligned}$$

따라서 다음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f(1) < 0, f(3) > 0$$

1-2.

귀류법을 사용하기 위해 $f(c_1) = 2c_1$ 이고 $f(c_2) = 2c_2$ 인 서로 다른 c_1, c_2 가 구간 $[0, 1]$ 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c_1 \neq c_2$ 이므로 $c_1 < c_2$ 라고 하자. 함수 $f(x)$ 가 닫힌구간 $[c_1, c_2]$ 에서 연속이고 열린구간 (c_1, c_2) 에서 미분가능하므로 제시문 <나>(평균값 정리)에 의해

$$\frac{f(c_2) - f(c_1)}{c_2 - c_1} = f'(c)$$

인 c 가 열린구간 (c_1, c_2) 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위의 식으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다.

$$f'(c) = \frac{f(c_2) - f(c_1)}{c_2 - c_1} = \frac{2c_2 - 2c_1}{c_2 - c_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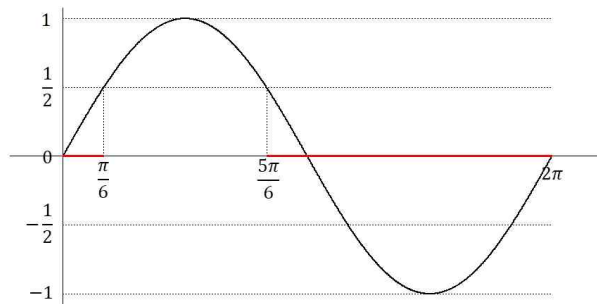
그런데 c 는 열린구간 $(0, 1)$ 에 있고 $f'(c) = 2$ 이므로 함수 $f(x)$ 가 열린구간 $(0, 1)$ 에 있는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 1$ 이라는 사실에 모순이다. 그러므로 $f(c) = 2c$ 인 c 의 개수가 닫힌구간 $[0, 1]$ 에서 하나 이하로 존재한다.

2-1.

$\sin \frac{\pi}{6} = \frac{1}{2}$ 이므로, $0 \leq x \leq 2\pi$ 일 때, 부등식 $\sin x \leq \frac{1}{2}$ 의 해는 아래 그림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left\{ x \mid 0 \leq x \leq \frac{\pi}{6} \right\} \cup \left\{ x \mid \pi - \frac{\pi}{6} \leq x \leq 2\pi \right\}$$

가 된다.



그러므로 $f(x)$ 의 정적분의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int_0^{\frac{\pi}{6}} e^{-x} dx + \int_{\frac{5\pi}{6}}^{2\pi} e^{-x} dx &= \left[-e^{-x} \right]_0^{\frac{\pi}{6}} + \left[-e^{-x} \right]_{\frac{5\pi}{6}}^{2\pi} \\ &= 1 - e^{-\frac{\pi}{6}} + e^{-\frac{5\pi}{6}} - e^{-2\pi} \end{aligned}$$

2-2.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0 \leq x \leq 100\pi$ 에서 $\sin x = -\frac{1}{2}$ 을 만족시키는 첫 번째 x 는 $\pi + \frac{\pi}{6}$ 이다. 사인함수는 주기가 2π 인 주기함수이므로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sin x = -\frac{1}{2}$ 을 만족시키는 홀수 번째 x 의 값은

$$x = (2n-1)\pi + \frac{\pi}{6} \quad (n=1, 2, \dots,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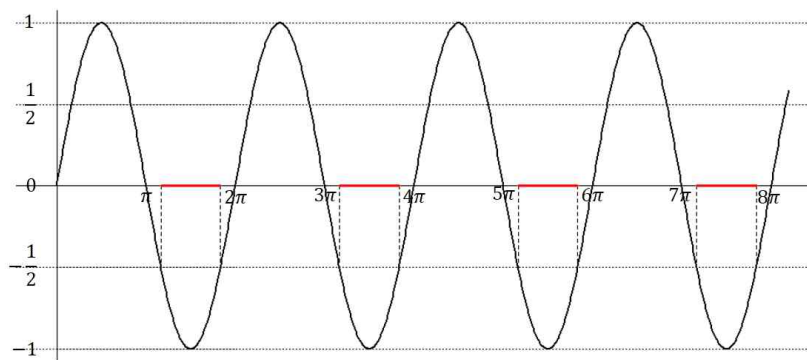
이다. 마찬가지로 짝수 번째 x 의 값은

$$x = 2n\pi - \frac{\pi}{6} \quad (n=1, 2, \dots, 50)$$

이다. 따라서

$$A_n = \left\{ x \mid (2n-1)\pi + \frac{\pi}{6} \leq x \leq 2n\pi - \frac{\pi}{6} \right\}$$

이라고 하면, $0 \leq x \leq 100\pi$ 일 때, 부등식 $\sin x \leq -\frac{1}{2}$ 의 해는 $A_1 \cup A_2 \cup \dots \cup A_{50}$ 로 표시할 수 있다.



해당하는 x 의 값의 범위에 대하여 함수 $f(x)$ 의 정적분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begin{aligned}\sum_{n=1}^{50} \int_{(2n-1)\pi + \frac{\pi}{6}}^{2n\pi - \frac{\pi}{6}} e^{-x} dx &= \sum_{n=1}^{50} \left[-e^{-x} \right]_{(2n-1)\pi + \frac{\pi}{6}}^{2n\pi - \frac{\pi}{6}} \\ &= \sum_{n=1}^{50} \left[e^{-\left\{ (2n-1)\pi + \frac{\pi}{6} \right\}} - e^{-\left(2n\pi - \frac{\pi}{6} \right)} \right] \\ &= \left(e^{-\frac{5\pi}{6}} - e^{-\frac{\pi}{6}} \right) \sum_{n=1}^{50} e^{-2n\pi}\end{aligned}$$

여기서 $\sum_{n=1}^{50} e^{-2n\pi}$ 는 첫째항이 $e^{-2\pi}$, 공비가 $e^{-2\pi}$ 인 등비수열의 50항까지의 합이다. 제시문 <마>에 의해

$$\sum_{n=1}^{50} e^{-2n\pi} = \frac{e^{-2\pi}((e^{-2\pi})^{50} - 1)}{e^{-2\pi} - 1} = \frac{e^{-2\pi}(1 - e^{-100\pi})}{1 - e^{-2\pi}}$$

이다. 그러므로

$$k = \frac{e^{-2\pi}(1 - e^{-100\pi})}{1 - e^{-2\pi}}$$

이다.

3-1.

주어진 함수

$$f(x) = \ln \sqrt{\frac{1+x}{1-x}} = \frac{1}{2}(\ln(1+x) - \ln(1-x))$$

의 정의역은 다음과 같다.

$$\{x \mid -1 < x < 1\}$$

이제 두 함수의 차 $f(x) - x$ 를 $h(x)$ 라 두자. 즉,

$$h(x) = f(x) - x$$

이다. 함수 $h(x)$ 를 미분하면

$$\begin{aligned} h'(x) &= f'(x) - 1 \\ &= \frac{1}{2} \left(\frac{1}{1+x} + \frac{1}{1-x} \right) - 1 \\ &= \frac{x^2}{1-x^2} \end{aligned}$$

이다. 따라서 $0 < x < 1$ 에서

$$h'(x) > 0$$

이므로 $h(x)$ 는 증가함수이다. 또한 $h(0) = 0$ 이므로 $x > 0$ 에 대하여

$$h(x) > h(0) = 0$$

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x > 0$ 에 대하여

$$f(x) > x$$

가 성립한다.

3-2.

$y = f(x)$ 의 역함수 $y = g(x)$ 의 그래프는 $y = f(x)$ 의 그래프를 직선 $y = x$ 에 대하여 대칭하여 얻을 수 있다. $y = f(x)$ 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함수의 증감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역 $\{x \mid -1 < x < 1\}$ 에서

$$f'(x) = \frac{1}{1-x^2} > 0$$

이다. 한편

$$f''(x) = \frac{2x}{(1-x^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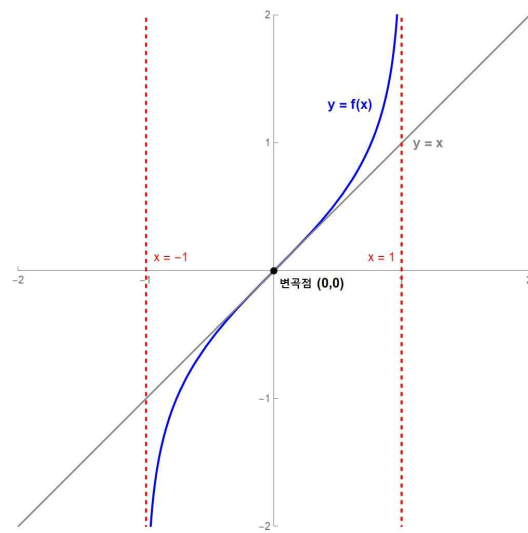
이다. 이로부터 점 $(0, 0)$ 은 곡선 $y = f(x)$ 의 변곡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lim_{x \rightarrow 1} f(x) = \infty, \quad \lim_{x \rightarrow -1} f(x) = -\inf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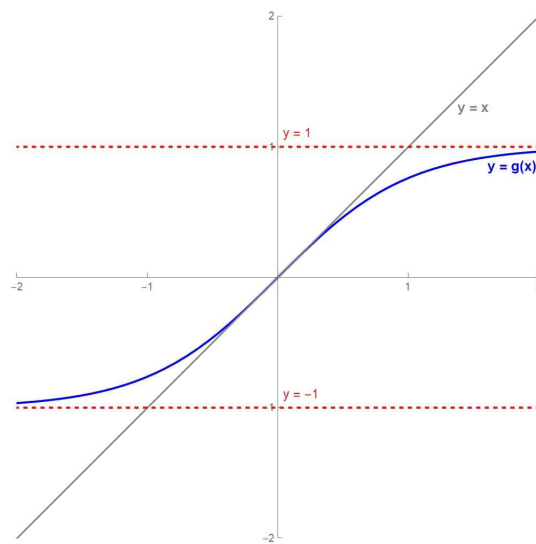
이다. 따라서 두 직선 $x = 1$ 과 $x = -1$ 이 점근선이 된다. 그리고

$$f'(0) = 1$$

이므로 $y = f(x)$ 의 그래프는 원점에서 $y = x$ 에 접한다. 이제 이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직선 $y = x$ 에 관하여 대칭하면 역함수 $y = g(x)$ 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2-7. 문항카드 ⑦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1~40번 문항>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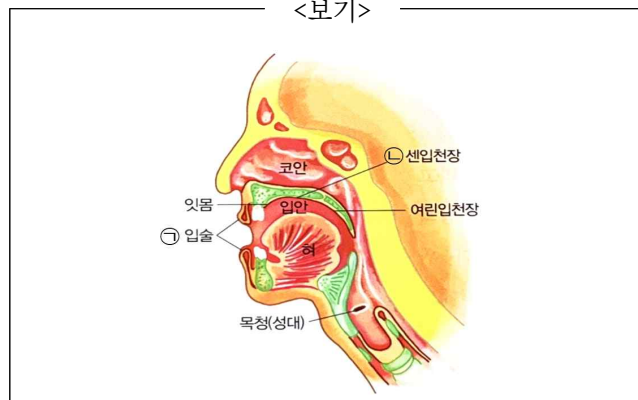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자연계열/예·체능계열 / 1~40 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객관식 4지선다형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자료

1.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다.
- ② 자음, 모음과 같이 실질적인 소릿값을 가진 것을 분절음운이라고 한다.
- ③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이것은 음운에 속한다.
- ④ 소리의 억양은 뉘앙스의 문제일 뿐, 문장의 의미를 구분해 주지 않는다.

[2~3] <보기>의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2. '㉠ 입술'에서 만들어지는 자음은? (2점)

- ① ㄱ ② ㄴ ③ ㅁ ④ ㅅ

7. 다음 중 <보기>의 ‘주성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점)

〈보기〉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이 중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것을 ‘주성분’이라고 한다.

- ① 번데기는 나비가 되었다.
- ② 고기를 낚으러 먼바다로 나갔다.
- ③ 새벽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 ④ 친구와 영화를 보고 밥도 먹었다.

8. 다음 중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점)

- ① 이 : 치아 ② 직업 : 소설가
③ 가끔 : 왕왕 ④ 화장실 : 변소

9. 다음 중 문장의 짜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3점)

- ① 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 ② 비가 와서 길이 질척하다.
- ③ 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
-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10~11】 〈보기〉는 옛 국어 자료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千世(천세) 우·희 미·리 定(정)·ㅎ·산 漢水北(한수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ㅎ·샤 卜年(복년)·
이 :궁·엣·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헉샤·샤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르쇼·셔 洛水(낙수)·예 山行(산행)·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10. 위의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방점이 사용되어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지금은 쓰이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고 있다.
- ③ 존칭 호격의 구사가 지금과 다를 수 있다.
- ④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표기한 것을 보면 끌어적기가 우세하다.

11. 위의 밑줄 친 어휘를 현대어로 잘못 바꾼 것은? (2점)

- ① 우희 → 위에
- ② 궂업스시니 → 끝 없으시니
- ③ 니수샤도 → 잊으셔도
- ④ 하나빌 → 할아버지를

1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생선을 소금에 절이다.
- ② 옷을 아들이 사는 기숙사로 부치다.
- ③ 그는 오늘도 고개 넘어로 밤을 주우러 간다.
- ④ 매일 기름진 음식을 먹었더니 얼굴에 여드름이 돋았다.

13. 다음 밑줄 친 고유어의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장독대에 꽃이 늘비하게 놓여 있다.
→ 듚성듬성
- ② 저 산을 넘어 산흘만 걸어가면 내 고향에 도착한다.
→ 3일
- ③ 우리 과는 이번 주에 새내기 모꼬지를 가기로 했다.
→ 놀이, 잔치와 같은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 ④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배고픔과 근심이 시나브로 사라진다.
→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14. 다음 관용 표현의 뜻풀이가 알맞지 않은 것은? (3점)

- ① 머리를 식히다.
→ 머리에 얼음찜질을 해서 열을 내린다.
- ② 입이 무겁다.
→ 비밀을 잘 지킨다.
- ③ 눈을 붙이다.
→ 잠깐 잠을 자다.
- ④ 속이 타다.
→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괴롭다.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내일 동이 트는 대로 떠나겠다.
- ② 옷을 좀 깨끗한 걸 입고 다녀라.
- ③ 지금 상태로는 이삼일간 기다릴 수밖에 없다.
- ④ 아픈 어깨를 움짚하면 할 수록 점점 더 고통이 심해졌다.

16. <보기>는 국어 어문 규정의 일부이다. 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3점)

<보기>

제13항 흘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① 깎아 [까까]
- ② 꽃이름 [꼬치름]
- ③ 앞으로 [아프로]
- ④ 밭에 [바테]

17. 다음 속담 중 의미가 전혀 다른 하나는? (3점)

- ① 개 밭에 편자
- ② 우물 안에 개구리
- ③ 가게 기둥에 입춘
- ④ 거적 문에 돌쩌귀

18.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맞춤법에 적합한 것은? (2점)

- ① 큰비로 강물이 눈에 뜨게 불어났다.
- ② 그녀는 입 속으로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내었다.
- ③ 반가움과 불안이 겹쳐 한순간 마음이 헛갈렸다.
- ④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웬지 멋있어 보인다.

1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유래한 한자성어는? (3점)

<보기>

혜소(嵯紹)가 낙양으로 오니, 어떤 사람이 왕용에게 말했다. “어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혜소를 처음 보았는데, 우뚝한 모습이 마치 학이 닭의 무리에 있는 듯했습니다.” 왕용이 말했다. “그대가 아직 그의 아비를 못 봐서 그렇게 말하는군.”

- ① 계란유골(鷄卵有骨)
- ② 군계일학(群鷄一鶴)
- ③ 학수고대(鶴首苦待)
- ④ 계명구도(鷄鳴狗盜)

20. 다음 중 한자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3점)

- ① 前後 - 전진 ② 祖父 - 조부
③ 百姓 - 백성 ④ 登校 - 등교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창의력의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창의력이란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 그래서 새로운 것을 조합해 내는 능력이다.

(나) 내가 만든 로봇 가운데 ‘스트라이더’라는 로봇이 있다. 다리가 세 개 달린 생체 모방형 로봇으로 그 모양이 카메라 삼발이를 닮았다. 그런데 이 로봇은 어떻게 움직일까? 뒤집어져서 굴러갈까, 뛰어오르며 이동할까, 옆으로 돌아가며 움직일까?

다리가 세 개인 ‘스트라이더’는 두 다리 사이로 나머지 한 다리가 지나가면서 이동한다. 앞으로 넘어지면서 두 다리 사이로 한 다리가 움직이며 넘어지는 몸을 잡아 주고, 또 다른 한 다리가 나머지 두 다리 사이로 움직이면서 걷는 신기한 방식이다. 아주 간단한 원리로 보이지만,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다. 이러한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

(다) 대학원생 시절, 나는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힐 겸 공원에 가곤 했다. 어느 날 어느 때처럼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옆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아주머니가 여자아이의 머리를 땡아 주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날 나는 머리카락 두 묶음 사이에 한 묶음을 넣고, 다른 머리카락 두 묶음 사이에 또 한 묶음을 넣어 땡아 주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때 보았던, 머리카락 두 묶음 사이에 한 묶음을 넣어 땡아 내리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로봇이 바로 ‘스트라이더’이다. 전혀 관계없는 것들, ‘머리를 땡는 것’과 ‘로봇’을 연결하여 창의적인 이동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라) 로봇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로봇이 아닌, 다른 것을 관찰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얻는 때가 많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창의력이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즉 기존에 있는 것들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서로 잘 연결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창의력이라는 것이다.

21. 글쓴이가 스트라이더 로봇을 고안하는 데 직접적인 영감을 준 일상적 장면은 무엇인가? (3점)

- ① 카메라 삼발이를 조립하면서 그 구조를 관찰한 장면
② 도서관에서 로봇 전시회를 관람한 장면
③ 한 아주머니가 여자아이의 머리를 땡아 주는 장면
④ 공원 벤치에서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장면

22. ㉠의 문맥적 의미는? (2점)

- 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여 전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
- ②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 ③ 이미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 ④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는 것

23. 각 단락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창의력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 ② (나)에서는 스트라이더 로봇의 구조와 작동 방식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스트라이더 로봇이 실제 공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설명되어 있다.
- ④ (라)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이 창의력의 핵심임이 다시 강조된다.

24. 윗글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진술은? (2점)

- ① 창의력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말한다.
- ②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쉽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 ③ 창의적인 생각은 기존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할 때 탄생할 수 있다.
- ④ 남이 만든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창의력의 핵심이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세 플라스틱은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다. 바다에는 해저 지각에서 녹아 나온 물질과 육지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을 타고 흘러든 온갖 물질이 섞여 있는데, 인류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바다에 대량으로 섞어 넣었다.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버려진 그물에 걸리거나 떠다니는 비닐봉지를 먹이로 잘못 알고 삼켰다가 죽은 해양 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 2004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과학 잡지 『사이언스(Science)』에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리처드 톰슨 교수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후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다.

(나) 최근에는 각질 제거나 세정, 연마 등의 기능을 위해 1밀리미터 정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제품 가운데는 지름 5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수십만 개까지 들어 있는 것도 있다. 이처럼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알갱이들은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든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는 다양한 플라스틱계 쓰레기가 파도나 자외선 때문에 부서져 만들어지기도 한다. 못 쓰게 된 어구,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꽂초 필터, 합성 섬유 등 각종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부서져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비해 2차 미세 플라스틱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알고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장기의 좁은 부분에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다로 흘러들어 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 있는 다른 유해 물질까지 끌어당긴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은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섭취하고, 작은 물고기를 다시 큰 물고기가 섭취하는 먹이사슬 과정에서 농축된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라)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의 실험 결과,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발포 스티렌은 나노(10억분의 1) 크기까지 쪼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노 입자는 생체의 주요 장기는 물론 뇌 속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 작은 물고기나 조개류를 즐기는 이들은 수산물의 체내에서 미처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섭취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현재로서는 과학자들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인과 관계가 확실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이미 여러 환경단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은 치약이나 세정용 각질 제거제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에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질과 같은 유기 물질로 대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25.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문제 제기로 글의 도입부에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 ② 용어의 뜻을 풀이하여 글의 내용을 쉽게 전달한다.
- ③ 신뢰성 있는 전문가의 발언과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다.
- ④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에 근거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26. 각 단락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은? (2점)

- ① (가) -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밀리미터 이하로 매우 작으며, 1960년대 이후 증가해 왔다.
- ② (나) - 현재 전문가들은 1차 미세 플라스틱의 비중이 2차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높다고 설명한다.
- ③ (다) - 해양 생물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고,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체내에서 발견된다.
- ④ (라) - 여러 환경단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7.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포만감을 주어 영양 섭취를 저해할 수 있다.
- ②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면 장기에 물리적 손상을 줄 수 있다.
- ③ 다른 유해 물질을 흡착하여 생물체 내 독성 농도를 높일 수 있다.
- ④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유해 물질만을 포함하고 있어, 먹이 사슬에 영향은 없다.

28. 다음 중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미세 플라스틱의 해로움이 완전히 입증된 후에 법적 규제를 시작하는 일
- ② 환경단체들이 미세 플라스틱 제품을 쓰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일
- ③ 소비자들에게 미세 플라스틱 대신 유기물 대체제를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일
- ④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 관계가 확실하지 않아도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일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물리는
소소리 바람.

앞섰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멧은 돛
새삼 듣는 빗날*

㉠붉은 잎 잎
소란히 밟고 간다.

*빗날 : 빗방울.

- 정지용, 〈비〉

(나)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2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는 자연 현상을 의인화하여 생동감 있게 그렸다.
- ② (가)는 매끄러운 운율로 움직임의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 ③ (나)는 극한의 상황에 놓인 인간의 내적 결의를 드러낸다.
- ④ (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30.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는 산새가 경쾌하게 걷는 모습을 잘 드러낸 것 같아.
- ② ‘갈갈이 손가락 펴고’는 물살이 갈라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 ③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은 넓고 풍요로운 평원을 칭송한 말이군.
- ④ ‘한 발 재겨디딜 곳’은 잠시나마 여유를 찾을 공간을 뜻하는 듯해.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 ③ 공감각적인 이미지를 구사하고 있다.
- ④ 단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2. 다음 중 ㉠과 같은 표현방식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 ②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③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④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켜집질하는 것이었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펄쩍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곤 달라 보였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나는 찬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것을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 먼저 켜다.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물었다.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뽀스는 뽀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 놔야지 한데 쑤셔 박아 놓으면 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어머니가 켜하는 쉼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의 푸른 기가 한층 깊어져서 ㉠귀기(鬼氣)가 감돌았다.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다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덜 만큼 겁부터 났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들입다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 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 달라고 졸랐다.

“아까도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잡숫고 더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 어떡하면 좋죠?”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 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 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그까짓 신경 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 주든지 하세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 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 준대서야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떼를 쓰시면 어떡해요?”

간호원이 획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다시는 네 따위에게 ㉠애걸(哀乞)을 하나 봐라, 중얼중얼 뇌까리며 돌아왔다.

아직도 빨래를 덜 개졌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별안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막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또 왔다. 하느님 맏소사. 그놈이 또 왔어.”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론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귀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여든여섯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양탈을 해 봤겠자일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여든여섯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 하라.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鮮血)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려는 게 껄썩하지만 세상의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다

오. 백 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常情)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 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휘이 휘이.

-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33. 위 제시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어머니는 수술 후 혼몽한 상태에서 헛것을 보고 있다.
- ② 간호원은 어머니의 이상 행동에 위기 의식을 보인다.
- ③ 화자는 평소 빨래 정리에 소홀하다.
- ④ 화자는 저승의 사자가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34. ㉠~㉢이 지닌 뜻이 적절하게 풀이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귀기’는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로 무서운 기운’이라는 뜻이다.
- ② ‘애걸’은 ‘남에게 명령하듯 성내면서 요구함’이란 뜻이다.
- ③ ‘선혈’은 ‘생생한 피’란 뜻이다.
- ④ ‘상정’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보통의 인정’이라는 뜻이다.

35. 다음 중 위 제시문의 서술상 특징으로 맞는 것은? (2점)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 ② 어머니의 입장에서 화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 ③ 작가가 나와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④ 1인칭 화자가 내면의 감정과 공포, 두려움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36. 위 작품에 나타난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은? (3점)

- ①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불안하게 지켜본다.
- ② 가족과 의료진 간 불신과 갈등이 발생한다.
- ③ 어머니는 병실로 찾아온 친구에게 적대감을 보인다.
- ④ 주인공은 저승사자를 상상하며 죽음의 긴장감을 느낀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펼 펼 나는 저 ㉠ **피꼬리** 翩翩黃鳥
 압수 서로 정답구나. 雌雄相依
 외로울사 이내 몸은 念我之獨
 뉘와 함께 돌아갈꼬. 誰其與歸

- 〈황조가〉

(나)

東風(동풍)이 건듯부러 積雪(적설)*을 헤터내니
 窓(창)밖기 심근 梅花(매화) 두세가지 띄여세라
 곱득 冷淡(냉담)헌디 暗香(암향)은 므스일고
 黃昏(황혼)의 돌이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논듯* 받기논듯 ㉡ **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花(매화) 것거내여 넘겨신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적설 : 쌓인 눈, 늦기논듯 : 흐느끼는 듯.

- 〈사미인곡〉

(다)

二月스 보로매* 노피 현 ㉢ **燈(등)**스블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三月 나며 開(개)호 滿春(만춘) ㉣ **돌**윗고지여
 누미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四月 아니 니저 오실셔 ㉤ **꽃**고리새여
 머슴다* 錄事(녹사)니문 넷 나룰 닛고신더 아으 動動(동동)다리

 六月스 보로매* 별해 브론 ㉥ **빛** 다호라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 보로매 : 보름에, 중 : 모습, 머슴다 : 무슨 일로.

37.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 (나), (다) 모두 정형시이다.
- ② (가), (나), (다) 모두 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
- ③ 창작의 시대 순서는 (가) - (나) - (다)이다.
- ④ (가), (나), (다) 모두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④ (다)의 제목은 〈동동(動動)〉으로 이 작품의 후렴구에서 따왔다.

④ 빗

④ ‘피꼬리’는 화자의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니나, ‘꽃고리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 기준 1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성취 기준 2	[12언매02-02]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을 탐구한다.	문항 5
	성취 기준 3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문항 6
	성취 기준 4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문항 8 문항 12 문항 13 문항 14 문항 17 문항 19 문항 20
	성취 기준 5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문항 7 문항 9
	성취 기준 6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문항 10 문항 11
	성취 기준 7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	문항 15 문항 16 문항 18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항 29 문항 30 문항 31 문항 32 문항 33 문항 34 문항 35 문항 36
	성취 기준 2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문항 37 문항 38 문항 39 문항 40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항 21 문항 25 문항 26 문항 27	문항 22 문항 24
성취 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3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언어와 매체	이관규 외 6인	비상교육	2020	84~151	문항 1~20	○
언어와 매체	민현식 외 6인	천재교육	2020	52~111, 217		○
언어와 매체	이삼형 외 5인	지학사	2020	64~123		○
언어와 매체	최형용 외 8인	창비	2020	100~131		○
국어	민현식 외 12인	좋은책신사고	2020	254~257	문항 33~36	○
국어	고형진 외 18인	동아	2017	184~185	문항 21~24	○
국어	최원식 외 18인	창비	2020	68~73, 312~315	문항 25~28, 문항 29~32	○
국어	류수열 외 10인	금성출판사	2018	351~353	문항 29~32	○
문학	한철우 외 7인	비상교육	2020	188~191	문항 37~40	○
문학	방민호 외 5인	미래엔	2020	171, 194~197		○

5. 문항 해설

1~20번 문항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음운의 변동과 정확한 발음, 한글맞춤법의 원리, 국어의 올바른 표현 등의 단원을 바탕으로 출제했다. 이 중에서 음운 변동, 준말, 띄어쓰기와 맞춤법, 높임 표현, 인용 표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질문하였다.

21~24번 문항은 창의력에 대한 데니스 홍의 글이다. 글쓴이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상적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독해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5~28번 문항은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고, 이것이 해양 생태계와 인간에게 끼치는 구체적인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한 글에 대한 질문이다. 글의 전개 방식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또한 문제 해결의 원칙과 실천적 대응까지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29~32번 문항은 현대시 두 편을 담았다. 정지용의 〈비〉는 현실의 삶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감성적 정화를 담고 있고, 이육사의 〈절정〉은 죽음을 초월하는 강인한 저항정신을 담고 있는데 이 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또한 시어의 상징적 의미, 표현 기법의 특징 등도 물었다.

33~36번 문항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2」를 활용한 문항으로, 이 소설을 통하여 시점의 특성, 소설 속 인물과 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 작품이 담고 있는 삶의 태도와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7~40번 문항은 유리왕의 〈황조가〉, 고려가요 〈동동〉, 조선시대의 문학인 〈사미인곡〉을 근거로 출제하였다. 세 편의 공통점은 사랑하는 대상과 떨어져 있다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주제와 형식, 그리고 문학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또, 주요 작품에 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도 묻고자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40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서 문항별 기준이 필요 없음	2점, 3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1번	④	11번	③	21번	③	31번	③
2번	③	12번	③	22번	①	32번	④
3번	①	13번	①	23번	③	33번	①
4번	③	14번	①	24번	③	34번	②
5번	②	15번	④	25번	④	35번	④
6번	①	16번	②	26번	②	36번	③
7번	④	17번	②	27번	④	37번	④
8번	②	18번	①	28번	①	38번	②
9번	①	19번	②	29번	④	39번	④
10번	④	20번	①	30번	③	40번	②

2-8. 문항카드 ⑧ <재외국민 특별전형 영어 1~33번 문항>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1~33번 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영어I, 영어I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객관식 5지선다형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자료

*각 문항 3점, 단 19번 문항은 4점

[1~4] <보기>에 나열된 의미들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1. <보기> (1) loving someone very much
(2) very enthusiastic about something
(3) containing or dealing with one particular thing
① devoted ② emotional ③ superficial ④ affectionate ⑤ dependent
2. <보기> (1) ideas and actions that show a lack of good judgment and careful thought
(2) severe mental illness
① gravity ② coalition ③ madness ④ poverty ⑤ anxiety
3. <보기> (1) to produce the features of something in a way that seems real but is not
(2) to have features or qualities that are similar to a particular substance
(3) to pretend to feel or think something
① regard ② simulate ③ recombine ④ intend ⑤ resemble

4. <보기> (1) to fix or ask as fee or payment

(2) to rush against

(3) to place the guilt or blame for

① cost ② coerce ③ charge ④ accommodate ⑤ fee

[5~8] 아래 주어진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5. If the committee had known how serious the problem was, it might have responded more quickly and allocating the necessary resources to prevent the situation from escalating further.

① had known ② responded ③ allocating ④ escalating ⑤ further

6. The company is committed to reduce waste and has invested heavily in technologies that allow plastic materials to be recycled safely without losing their original properties.

① is committed ② reduce ③ invested ④ be recycled ⑤ properties

7. The brochure describes a resort located in the mountains, offering luxurious rooms, delicious meals, and relax spa treatments designed to attract international tourists.

① describes ② located ③ offering ④ relax ⑤ to attract

8. Future robots can autonomously perform a complicated operation, marked a major step to automated medical procedures.

① autonomously ② complicated ③ marked ④ automated ⑤ procedures

[9~13] 밑줄 친 표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9. The manager's decision to cut costs was both controversial and unexpected, leading to heated debates among the board members.

① beneficial ② delayed ③ consistent ④ efficient ⑤ disputed

10. The student's argument was so persuasive that even science experts nodded their heads.

- ① brief ② unclear ③ casual ④ repeated ⑤ compelling

11. The nature documentary revealed the harsh conditions that animals must endure during the winter months in the Arctic.

- ① severe ② mild ③ uncertain ④ temporary ⑤ artificial

12. Scientists have been trying very hard to understand the mysterious forces of black holes for decades, but it seems they have found more questions than answers.

- ① wandering ② struggling ③ planning ④ implementing ⑤ expecting

13. Many countries are now reluctant to send children abroad for adoption because there is concern that the children will suffer without the knowledge of their indigenous culture.

- ① foreign ② urban ③ native ④ exotic ⑤ immigrant

[14~19] 빈칸 안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14. As climate change continues to worsen, many countries are taking action. Some are investing in renewable energy, while others are passing strict laws. Scientists warn that time is limited and global cooperation is essential. Without serious efforts, the planet may face a major _____.

- ① celebration ② infliction ③ crisis ④ discovery ⑤ blessing

15. Cathy had always dreamed of becoming a doctor. She studied hard and volunteered at a local hospital. When she finally received her acceptance letter from medical school, she felt an overwhelming sense of _____.

- ① relief ② regret ③ confusion ④ neutrality ⑤ disappointment

16. Smart phones have changed the way people communicate. Text messages and video calls are now more common than face-to-face talks. Some experts say this may affect social skills, especially in young people. They worry that technology is reducing meaningful human _____.

- ① speculation ② illustration ③ interaction ④ competition ⑤ population

17. The famous artist surprised everyone with her latest painting. Critics praised her for taking a bold creative risk. They said the piece showed great _____ and maturity.

- ① weather ② memory ③ friendship ④ price ⑤ talent

18. Playing tennis, for me, in general is an uncomfortable situation. I waste too much energy and attention _____ every single movement of my hand, my racket, and my feet. Besides, I also have to watch the player at the other side of the net.

- ① on ② in ③ with ④ of ⑤ to

19. Every year, thousands of tourists (A)_____ the remote island to explore its untouched beauty. The island, which was once difficult to access, has recently become a popular destination. Visitors often hike through green forests, swim in clear waters, and see many kinds of animals. Local people welcome the growing number of visitors because it helps the local economy. But they also want to protect the island's (B)_____ from damage caused by too many tourists. [4점]

- | | (A) | (B) |
|---|-------------|-------------|
| ① | had visited | building |
| ② | visiting | weather |
| ③ | to visit | island |
| ④ | visit | environment |
| ⑤ | would visit | temperature |

[2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

When we try to make a decision about some difficult or complex question, it is completely reasonable _____ by the opinion of a well-known expert who has studied the topic carefully. When we say that a certain conclusion is correct because an expert has given that opinion, we are not making a mistake in reasoning. In fact, depending on expert advice is necessary for most of us in many situations. Of course, an expert's opinion is not final proof; experts can disagree, and even when they agree, they can still be wrong. But expert opinions are still one good way to support a conclusion.

20. Which of the following can go in the blank?

- ① to be forgotten
- ② to be compared
- ③ to be invited
- ④ be be rejected
- ⑤ to be guided

21.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 ① We should never trust expert opinions when making decisions.
- ② Experts always agree with each other and never make mistakes.
- ③ Only one expert is enough to prove that a conclusion is true.
- ④ Personal experience is better than expert advice in every situation.
- ⑤ It is a good idea to rely on expert opinions, but they are not always correct.

[22~24]

In everyday life, we usually ask for an explanation when something unusual or surprising happens. For example, if an office boy arrives at work on time every morning, no one will be curious. However, if he comes an hour late one day, his boss will demand an explanation. What does it mean to ask for an explanation? The office boy might say that he took the 7:30 bus as usual, but the bus had a traffic accident and was delayed for a long time. Since there was no other way to get to work, he had to wait for the bus to be fixed, which took about an hour. This story would probably be accepted as a good explanation because it helps us understand the situation clearly. It makes the late arrival seem reasonable and not strange anymore. An explanation is a group of statements or a story that helps us understand something, so that it ----- seems confusing or hard to believe.

22. Which of the following can go in the blank?

- ① at least
- ② for example
- ③ of course
- ④ no longer
- ⑤ above all

23. According to the passage, when do people usually ask for explanations?

- ① When something happens regularly
- ② When something unusual or surprising happens
- ③ When an event is planned in advance
- ④ When a person asks for help
- ⑤ When there is no problem at all

24. What does the example of the office boy show?

- ① That employers do not care about transportation problems
- ② That excuses are never accepted
- ③ That accidents never affect daily routines
- ④ That being late once is always unacceptable
- ⑤ That a good explanation helps people understand the situation clearly

[25~26]

The discovery of oil in commercial quantities came at just the right time. Scientists had long been at work on the problem of supplying the world with a safe and efficient way to make light. The engine that works with burning fuel had just been invented. The industrial era was just beginning, and people needed light, energy, and machine oil. Petroleum became the perfect answer. Oil helped power automobiles, ships, railroads, and airplanes. It helped us start mass production instead of making things one by one. It also gave us paints, plastics, perfumes, soap, and cleaning liquids. Indeed, today a man can be clothed from head to foot from the products of a barrel of oil, and industry now produces more than 2,300 items from crude petroleum.

25. Why was the discovery of oil especially important at that time?

- ① It replaced the need for coal in power plants.
- ② It came when people needed light, energy, and machine oil.
- ③ It was the first fuel that people ever found.
- ④ It stopped pollution from factories.
- ⑤ It made ships much faster than before.

26. Which of the following describes how oil changed our lives?

- ① Oil has powered transportation and helped us make things in large numbers.
- ② Oil is rarely used to make perfumes and soaps.
- ③ The first use of oil was to make paints and plastics.
- ④ The discovery of oil delayed the start of the industrial era.
- ⑤ Oil is not important in modern factories anymore.

[27~29]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_____ the world smaller, many people question whether globalization is more positive or more negative. As nations become more integrated into a single global market, our traditional cultural barriers are being breached and more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exchange are being created. But with the fading borders between nations new questions arise. Does economic growth from the global market tend to favor the rich and leave the poor behind? Perhaps more importantly, will globalization create a world in which traditional values are underestimated?

27. Which word is most appropriate for the blank?

- ① make
- ② to make
- ③ making
- ④ made
- ⑤ have made

28.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has broken down cultural barriers and made globalization possible?

- ① education
- ② economic growth
- ③ job opportunities
- ④ new traditional values
- 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29.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 ① Globalization creates more opportunities and helps poor nations become rich.
- ② Globalization raises both opportunities and concerns.
- ③ Globalization has given rise to a set of new traditional values.
- ④ Globalization is mostly negative because it causes international conflicts.
- ⑤ Globalization leads to stronger cultural differences and limits economic growth.

[30~31]

Language is so tightly woven into human experience that it is scarcely possible to imagine life without it. Chances are that if you find two or more people together anywhere on earth, they will soon be exchanging words. When there is no one to talk with, people talk to themselves, to their dogs, even to their plants. Therefore, the loss of language following brain injury is ----- and in severe cases family members may feel that the whole person is lost forever.

30. Which word is most appropriate for the blank?

- ① demonstrating
- ② proceeding
- ③ encouraging
- ④ profiting
- ⑤ devastating

31.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the author's view on language?

- ① Language is mainly used in formal settings when speaking in public.
- ② Language is not a necessity for people who live by themselves.
- ③ Language is central to human life, and people cannot live without it.
- ④ Loss of language may cause one to lose one's family members.
- ⑤ Language is not used when people talk to themselves or to their pets.

[32~33]

Reading has alway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charms of a cultured life. It is respected and envied by those who do not have that privilege. (A) From this prison there is no escape. But the moment he takes up a book, he immediately enters a different world, and if it is a good book, he is immediately put in touch with one of the best talkers of the world. (B) The man who doesn't have the habit of reading is imprisoned in his immediate world with regard to time and space. His life falls into a set routine. Moreover, he is limited to conversation with a few friends and sees only what happens in his immediate neighborhood. (C) This is easy to understand when we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life of a man who reads and that of a man who does not.

32. Choose the most appropriate order.

- ① (A)-(B)-(C)
- ② (C)-(A)-(B)
- ③ (C)-(B)-(A)
- ④ (B)-(A)-(C)
- ⑤ (B)-(C)-(A)

33.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the man who has the habit of reading?

- ① He only notices what happens in his immediate surroundings.
- ② His only reference is the world he currently lives in.
- ③ He follows the same daily pattern with a set routine.
- ④ He talks mostly with only a few people he already knows.
- ⑤ He learns from great thinkers and acquires a broader perspective.

3. 출제 의도

대학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의 어휘에 대한 숙달도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영어 텍스트의 해석과 파악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대학 입학 이후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확인하고자 했다. 평가에 사용되는 어휘와 텍스트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라면 무리 없이 이해하고 분석하여 유추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과 난이도로 구성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 [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영어		
	과목명: 영어I		관련
	성취 기준 1	[12영I03-03]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문항 1~8, 문항 19~21
	과목명: 영어II		관련
	성취 기준 1	[12영II03-01]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문항 22~26
	성취 기준 2	[12영II03-02]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문항 22~26
	성취 기준 3	[12영II03-03]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문항 9~18
	과목명: 영어 독해와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영독03-02]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문항 27~33
	성취 기준 2	[12영독03-03]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문항 27~3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Macmillan English Dictionary		Macmillan	2006		문항 1~19	O
Merriam-Webster Dictionary		Online			문항 1~19	X
Introduction to logic(9th Ed.)	Irving M. Copi	Macmillan	1994	165	문항 20~24	O
Design for good reading			1991	130	문항 25~26	O
Raise the issues: An integrated Approach to Critical Thinking (3rd Ed.)	Carol Numrich	Pearson Education	2010	146	문항 27~29	O
The Language Instinct	Steven Pinker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2007	3	문항 30~31	O
Guidelines: A Cross-cultural reading/writing text	Ruth Spac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90	문항 32~33	O

5. 문항 해설

1~4번, 9~17번 문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어휘들의 뜻을 학습자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지 평가하고자 했으며 5~8번, 18~19번, 27번 문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소개하는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했다. 20~33번 문항에서는 학습자의 영문 독해 역량을 평가하고자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주제(의사결정 과정, 설명의 의의, 산업과 기술의 발달, 인간의 언어 사용, 독서의 중요성)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이해 능력과 논리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평가 대상인 학습자들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텍스트의 주제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독해 역량을 최대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33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서 문항별 기준이 필요 없음	3점, 4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1번	①	12번	②	23번	②
2번	③	13번	③	24번	⑤
3번	②	14번	③	25번	②
4번	③	15번	①	26번	①
5번	③	16번	③	27번	③
6번	②	17번	⑤	28번	⑤
7번	④	18번	①	29번	②
8번	③	19번	④	30번	⑤
9번	⑤	20번	⑤	31번	③
10번	⑤	21번	⑤	32번	③
11번	①	22번	④	33번	⑤

2-9. 문항카드 ⑨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학 1~20번 문항>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1~20 문항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I, 수학II
	핵심개념 및 용어	객관식 5지선다형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제시문

1. $a + b = 10$, $a^3 + b^3 = 700$ 일 때, ab 의 값은? [4점]

- ① -30 ② -10 ③ 10 ④ 30 ⑤ 90

2. 상수 $a_0, a_1, a_2, \dots, a_8$ 에 대하여 등식

$$(x^2 - 3x - 1)^4 = a_0 + a_1x + a_2x^2 + \dots + a_8x^8$$

이 x 에 대한 항등식일 때, $a_1 + a_2 + \dots + a_8$ 의 값은? [6점]

- ① 79 ② 80 ③ 81 ④ 82 ⑤ 83

3. 삼차방정식 $x^3 = -1$ 의 한 허근을 ω 라고 할 때, $\omega^{300} - \omega^{301} + \omega^{302}$ 의 값은? [4점]

- ① -1 ② 0 ③ 1 ④ $-i$ ⑤ i

4. 부등식 $|x-1|+|x-3| \leq 4$ 를 만족시키는 정수 x 의 개수는? [4점]

-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⑤ 9개

5. 점 $A(0,0)$ 과 원 $(x-3)^2+(y-4)^2=9$ 위의 점 P 를 이은 선분 AP 의 길이의 최솟값을 m , 최댓값을 M 이라고 할 때, $\frac{M}{m}$ 의 값은? [4점]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6. 원 $x^2+y^2-2x-4y-4=0$ 과 직선 $2x+y+1=0$ 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 라고 할 때, 선분 AB 의 길이는? [6점]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7. 두 실수 x, y 에 대하여 다음 〈보기〉에서 $x=y=0$ 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6점]

————— 〈보기〉 —————

$\textcircled{㉠} \sqrt[3]{x}+\sqrt[3]{y}=0$ $\textcircled{㉡} x + y =0$ $\textcircled{㉢} x^2+y^2=0$ $\textcircled{㉣} x^3+y^3=0$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8. 두 집합 A, B 가 $A=\{1,2\}$, $B=\{1,2,4,8\}$ 일 때, $A \subset X \subset B$ 를 만족시키는 집합 X 의 개수는? [4점]

- ① 2개 ② 4개 ③ 6개 ④ 8개 ⑤ 10개

9. 세 함수 f, g, h 가

$$f(x) = 2x + a, (h \circ g)(x) = -3x + 1, (h \circ (g \circ f))(x) = bx + 4$$

를 만족시킬 때, $a - b$ 의 값은? (단, a, b 는 상수) [4점]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10. 두 유리함수 $y = \frac{x-2}{ax+1}, y = \frac{bx-2}{3x-1}$ 의 그래프가 직선 $y = x$ 에 대하여 대칭일 때, $a + b$ 의 값은? (단, a, b 는 상수) [6점]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11. 어떤 파티에 부부 15쌍이 참석하였다. 부부끼리는 서로 악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는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악수할 때, 전체 악수의 수는? [6점]

- ① 390 ② 405 ③ 420 ④ 435 ⑤ 450

12. $x = \log_4 25 + \log_8 27$ 일 때, 2^x 의 값은? [4점]

- ① 15 ② 18 ③ 21 ④ 24 ⑤ 27

13. 부등식 $(\log_2 x^2)(\log_2 4x) \leq 16$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의 개수는? [4점]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⑤ 8개

14. $0 \leq x \leq \pi$ 일 때, 함수 $y = 2\sin^2 x - 3\cos^2 x$ 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은? [6점]

- ① -3 ② -2 ③ -1 ④ 0 ⑤ 1

15. 예각삼각형 ABC에서 $\overline{AB} = 3$, $\overline{AC} = \sqrt{13}$, $\angle B = \frac{\pi}{3}$ 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6점]

- ① $3\sqrt{3}$ ② $6\sqrt{3}$ ③ $9\sqrt{3}$ ④ $12\sqrt{3}$ ⑤ $15\sqrt{3}$

16. $\sum_{k=1}^9 \frac{2}{4k^2 + 8k + 3}$ 의 값은? [6점]

- ① $\frac{5}{21}$ ② $\frac{2}{7}$ ③ $\frac{1}{3}$ ④ $\frac{8}{21}$ ⑤ $\frac{3}{7}$

17. 곡선 $y = (x-2)(x-3)(x-4)$ 위의 점 $(3,0)$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4점]

- ① -5 ② -4 ③ -3 ④ -2 ⑤ -1

18. 닫힌구간 $[0,5]$ 에서 함수

$$f(x) = x^3 - 6x^2 + a$$

의 최댓값을 M , 최솟값을 m 이라고 하자. $M+m=-12$ 일 때, 상수 a 의 값은? [6점]

- ① 4 ② 6 ③ 8 ④ 10 ⑤ 12

19. 함수 $F(x)$ 가 함수 $f(x) = x^2 + 2x + 4$ 의 부정적분일 때,

$$\lim_{x \rightarrow 2} \frac{F(x) - F(2)}{x^2 - 4}$$

의 값은? [4점]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20. 다항함수 $f(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x+1)f(x) = (x+1)^3 + \int_1^x f(t)dt$$

를 만족할 때, $f(3)$ 의 값은? [6점]

- ① 14 ② 16 ③ 18 ④ 20 ⑤ 22

3. 출제 의도

방정식과 부등식, 집합, 명제, 함수, 순열과 조합,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미분과 적분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 과정의 수학, 수학 I, 수학 II 과목에서 학습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본 문제들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 및 논리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기준
1	다항식의 연산	[10수학01-01] 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2	나머지정리	[10수학01-02] 항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10수학01-03] 나머지정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10수학01-05]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10수학01-06] 이차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의 뜻을 안다.
4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10수학01-15] 절댓값을 포함한 일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5	원의 방정식	[10수학02-06]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6	원의 방정식	[10수학02-07]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7	명제	[10수학03-06]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다.
8	집합	[10수학03-02]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해한다.
9	함수	[10수학04-02]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10	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4-04] 유리함수 $y = \frac{ax+b}{cx+d}$ 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다.
11	순열과 조합	[10수학05-03]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12	지수와 로그	[12수학01-04]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3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수학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4	삼각함수	[12수학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5	삼각함수	[12수학I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6	수열의 합	[12수학I03-04] Σ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7	도함수	[12수학II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8	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9	미분계수, 부정적분	[12수학II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II03-01] 부정적분의 뜻을 안다.
20	정적분	[12수학II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황선욱 외 8명	미래엔	2020	13~22, 26~38, 51~57, 132~135, 139~151, 178~179, 202~203, 219~232, 236~242, 270~273
	고등학교 수학	고성은 외 6인	좋은책신사고	2020	11~32, 43~47, 73~79, 83~87, 137~144, 149~154, 168~169, 190~193, 209~216, 226~230, 257~260
	고등학교 수학I	고성은 외 6인	좋은책신사고	2020	28~31, 70~74, 92~100, 133~135
	고등학교 수학I	황선욱 외 8인	미래엔	2020	24~30, 74~79, 97~111, 143~145
	고등학교 수학II	황선욱 외 8인	미래엔	2020	53~60, 73~89, 115~130
	고등학교 수학II	고성은 외 6인	좋은책신사고	2020	53~67, 72~92, 113~127

5. 문항 해설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대학 진학 후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번~11번의 열한 문항은 고등학교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의 성질, 복소수의 성질, 절댓값을 포함한 부등식, 원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의 합성, 역함수, 순열과 조합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번~16번의 다섯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 I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수열의 합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7번~20번의 네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 II의 함수의 극한, 미분, 다항함수의 도함수, 적분, 다항함수의 정적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본문과 연습문제를 응용하여 출제한 문항으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수험생들이라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0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서 문항별 기준이 필요 없음	4점, 6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1번	③	6번	④	11번	③	16번	②
2번	②	7번	③	12번	①	17번	⑤
3번	②	8번	②	13번	①	18번	④
4번	①	9번	⑤	14번	③	19번	③
5번	④	10번	②	15번	①	20번	⑤